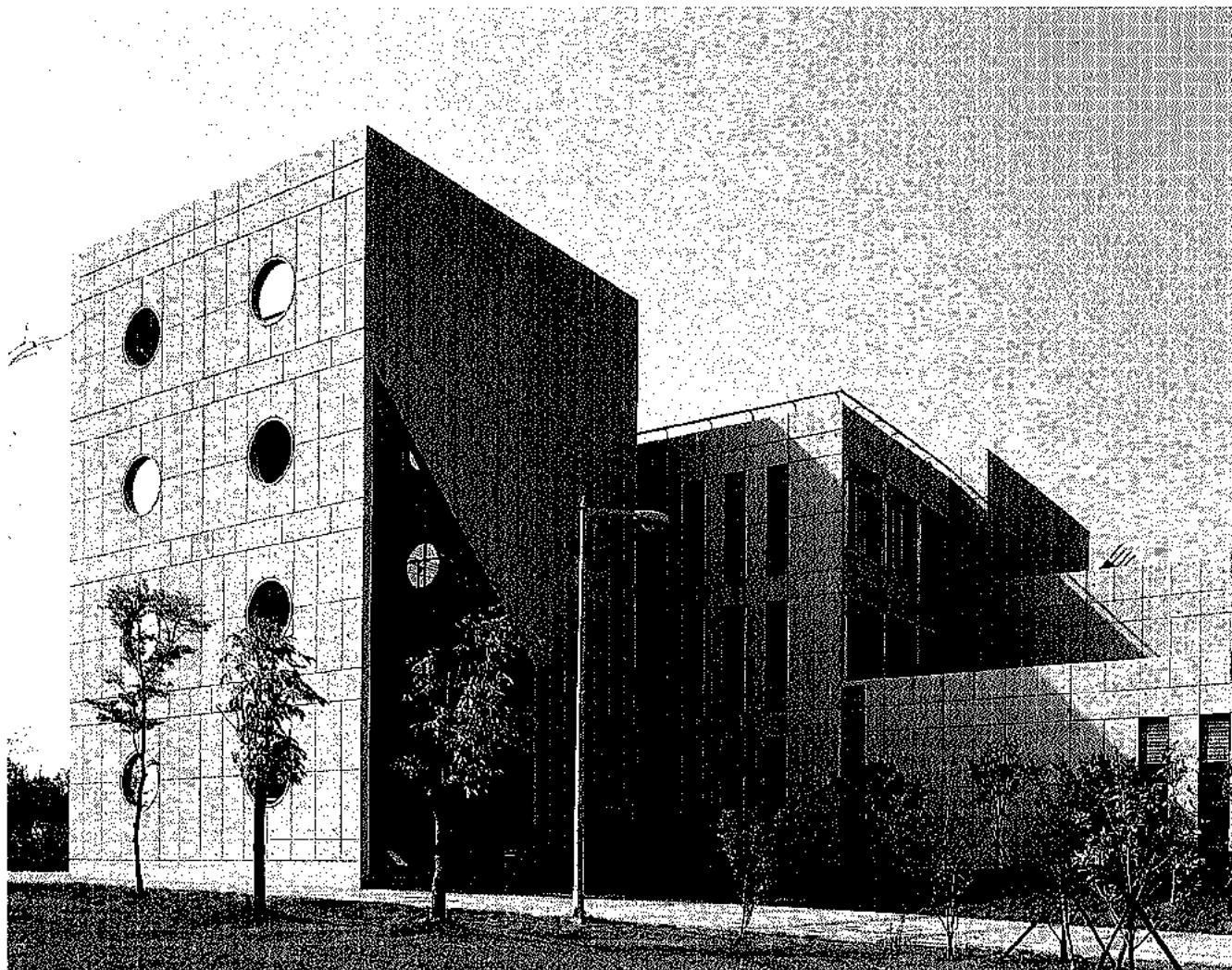


月刊 建築士 1994년 11월호  
 통권 307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금인가

#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November 1994



## 격려사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오용석

## 회원

유 **J** (주)범건축

이 **540.5** 명

동 **대92.7**

국 **307c.4** 승중+변용

비 **관행과 파행—민정학원—/김성우**

## 일하며 생각하며

전문건축사제도/이정근

## 제언

공체조합설립연구의 필요성/강기세

## 좌담회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건축기행

'94 북유럽 건축순례/박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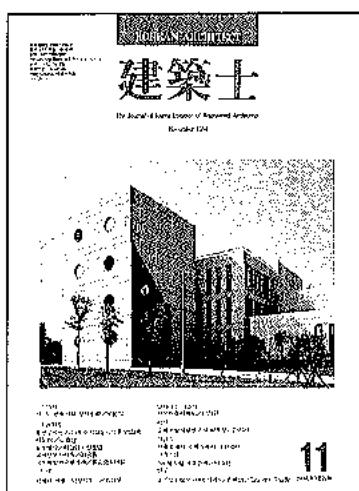
## 연구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주해(2)/김도경+주남철

**11**

NOVEMBER

發行人: 吳雄錫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勤, 梁海潤,  
崔泰容, 李 豉,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光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行處: 大韓建築土協會  
(協會創立日: 1965年 10月 23日)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fax: (02)586-8823  
登録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録: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표지사진/유전공학연구소  
(설계)/(주)범건축

##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吳雄錫

18

유전공학연구소(특수시설동)/(주)범건축	20
이문291/承孝相	24
동원빌딩/崔寬泳+鄭東明	28
국제신문사사옥/李龍欽	34
국토개발연구원청사/尹承重+卞鎔	38
전동전/朴舒弘	40
갑술년의 질서/崔相彩	42
비애(90.5×116)/金寅培	43
관행과 과행/金聖雨	44
전문건축사제도/李廷根	50
공제조합설립 연구의 필요성/姜基世	53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李 豉/姜錫元/龐漢英/尹炳完/全泰鎮/崔燦煥	56
'94북유럽 건축순례/朴在煥	62
정서가 결핍된 사회는 주거환경에서/吳英治	71
송「영조법식」(대목작제도) 주해(2)/金度慶+朱南哲	72
실크로드 건축기행/金晟坤	82
검단복지회관	86
내전법원종합청사	92
1994년도 9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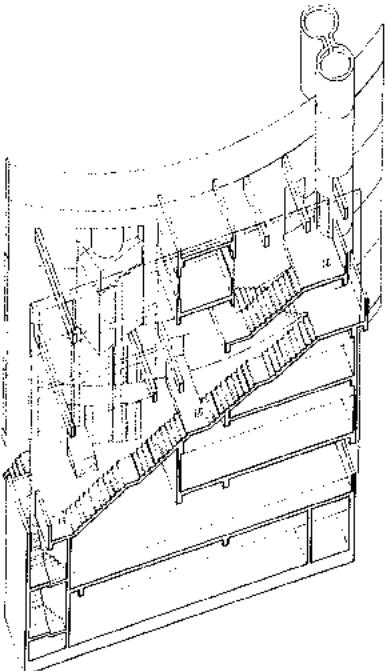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시건축기술센터(02)581-5555, 581-5715~8·시내문물회/서대문구인회동169-25, 333-6411·관악문화/관악구신림동1422-17, 382-6744·도봉문화/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영등포문화/영등포구당산3가81, 632-2143·강동문화/강동구성내동317-4, 481-6840·강서문화/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성동문화/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노래문화/동래문화동101-7, 923-0158·종로구문화1동18, 735-0905·마포문화/마포구상암동275-1, 333-5251·송파문화/송파구송파동5-12, 423-9153·중구문화/중구문화로19-11, 279-1415·용산문화/용산구위문로191-22, 717-6607·서초문화/서초구초1동1023-1, 552-9108·은평문화/은평구한인동79-32, 348-1486·동작문화/동작구사당동200-6, 815-3026·강남문화/강남구논현동242-30, 517-3771·노원문화/노원구강계동1707-4, 933-8076·양천문화/양천구신정동1027-9, 653-2802·중랑문화/중랑구미도동166-46, 437-7356·성북문화/성북구삼선5가110, 922-5117·구로문화/구로구구로동86-4, 852-2225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법전동94-18, 28 (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211-8, (053)53-890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증종동694-10, (062)521-0025~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내촌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천로371-24-5, (031)47-6129~30·직원문화/경기도수원시매천로371-24-5, (031)43-6662, 7072·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1)3149-2698·부천문화/부천시수원로48-1, (032)564-1554·성남문화/성남시수정구대성동307-7, (031)755-5415·의정부문화/의정부시위정부동192, (031)375-0458·용인문화/용인시시정동343-22, (033)666-6153·고양문화/고양군위성면우리동166-2, (031)63-8802·구리문화/구리시구택동109-2, (031)63-2337·이천문화/이천시이천읍종리192-1, (031)635-6445·광명문화/광명시청간동20-2, (02)1684-5845·안산문화/안산시고잔동536-1, (031)480-9130·서울문화/032)504-4121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진동39-5, (036)54-2442·원주문화/원주시 중앙동60-54, (037)43-7250·강릉문화/강릉시성내로6-14

<b>Encouraging Address/Oh, Woong-Suk</b>	<b>18</b>
<b>WORKS</b>	
<i>Genetic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Baum Architects</i>	20
<i>Emun291/Seung, Hchioh-Sang</i>	24
<i>Dongwon Building/Choi, Kwan-Young &amp; Cheong, Dong-Myeong</i>	28
<i>The Kookje Shinmun Co. Building/Lee, Yong-Heum</i>	34
<i>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Yoon, Seung-Joong &amp; Byeon, Yong</i>	38
<b>PROGRESS WORK</b>	
<i>Cheondeung-Jeon/Park, Seo-Hong</i>	40
<b>GALLERY</b>	
<i>The Order of This Year/Choi, Sang-Chae</i>	42
<i>Sorrow(90.5×116)/Kim, In-Bae</i>	43
<i>CRITICISM / Mirjung School</i>	
<i>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Kim, Sung-Woo</i>	44
<b>ESSAY</b>	
<i>Specialist-Architect System/Lee, Jeong-Keun</i>	50
<b>SUGGESTION</b>	
<i>Necessity of Mutual Benefit Association/Kang, Ki-Se</i>	53
<b>DISCUSSION MEETING</b>	
<i>The Counterpla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Architectural Design</i>	
<i>Lee, Bok/Kang, Seok-Won/Bang, Han-Young/Yoon, Byeong-Wan/Cheon, Tae-Chin/Choi, Chan-Hwan</i>	56
<b>ARCHITECTURE TRAVEL</b>	
<i>Euro-Arch-Tours '94/Park, Chae-Hwan</i>	62
<b>FEATURE</b>	
<i>Poverty of Social Emotionality &amp; Residing Environment/Oh, Young-Chi</i>	71
<b>REPORT</b>	
<i>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2)/Kim, Do-Kyong &amp; Joo, Nam-Cheol</i>	72
<b>EXHIBITION</b>	
<i>Architectural Ruins of the Silk Road Regions/Kim, Sung-Kon</i>	82
<b>COMPETITION</b>	
<i>Keomdan Public Welfare Hall</i>	86
<i>Taejeon District Court Buildings</i>	92
<b>STANDARD</b>	
<i>Korea Acid Test</i>	98
	100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Yang, Hae-Yoon/Choi, Tae-Yong/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속초문화/속초시동부동466-63, (0392)33-5081 / 신작문화/서울특별시 강남구 향동55-43, (0394)31-8708 / 영암문화/영암군 영암읍 유영로 1  
 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 107-3, (043)56-2752·53-7342·충주시문화/충주시역진동673-1, (044)3847-3082·제천문화/제천시의성동9-8, (043)43-6253·우천문화/우천문화센터 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 대흥동 452-2, (042)256-4068·천안문화/천안시 동남동 160-1, (041)551-4551·홍성문화/홍성군 홍성읍  
 오로리 29-1, (041)32-2755·구미문화/부여군 부여읍 운남리 703-1, (043)385-2217·대전문화/대전시 대전동 197-10, (042)234-3357·서산/  
 (045)361-4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시 원산구 남노송동 531-1, (065)87-6007~8·이리문화/이리사당동 1기 77-21, (065)352-3796·군산문화/군  
 산시 전강동 35-4, (065)143-3816·나주문화/나주시 해장동 59-1, (06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 서구 회장동 783-238(주선회관), (062)746-7567, 33-9944·목포문화/목포시 대안동 1, (063)172-3249·순천문화/  
 순천시 장원동 51-11(061)743-2457·여수문화/여수시 간문동 441번지, (062)162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 동구 신천4동 338-1, (053)742-8317~8·포항문화/포항시 북구 동43-8, (052)44-6029, 46-1664·경주문화/경주  
 시 광활동 801-4, (051)32-4710·구미문화/구미시 광복동 34-3, (054)631-1537~8·연수문화/안동시 서부 157-4, (051)515-5703·김천문화/김  
 천시 낙산동 21-2, (054)731-2541·영주문화/영주시 해방3동 311-12, (052)34-5950·성주문화/성주시 중앙동 280-3, (052)513-0677·상주문화/  
 상주시 남양동 36-7, (052)32-5808·길산문화/경주시 중앙동 859-5, (053)812-6721·달성문화/달성군 화원읍 천리리 113-3, (053)634-0336·영천  
 문화/영천시 창동 36-10, (053)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 미산시 풍암동 327-1-47, (055)46-4530~1·울진문화/울진군 우진읍 585-6, (052)771-4836·진주문화/진주시  
 문성동 7-20, (050)745-6403·증주문화/증주시 시호동 163-18, (055)71645-7420·김해문화/김해시 부원동 611-1, (052)525-5692·밀양문화/밀양  
 시내 연동 392-1, (052)7335-4848·거창문화/거창군 거창읍 양화24-3, (055)8143-6090·양산문화/양산군 양산읍 남부동 457-19, (052)3  
 84-3060·기계문화/기계전침습고 철린 139-2, (055)8135-3432·삼천포문화/삼천포시 흥국로 91-6, (050)33-9770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 2도1동 1289-6, (064)52-3248·서귀포문화/서귀포시 서귀동 299-6, (061)62-2233



##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격려사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협회상 정립에 총 매진을…



會長 吳 雄 錫

가을의 풍요로움을 맞이한 오늘,  
시·도건축사회 94년도 정기총회를 맞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회원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국제적 개방화의 길목에 서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불투명한  
주변상황들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느덧 지나 온 한해의 자취를 서서히  
뒤돌아 보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앞에 산적했던  
여러 혼란문제들을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해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아직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시키려는 외부세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문화의 기조와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부적 결속을  
바탕으로 이에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업체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상정시켰던 「건축설계용역업 진출  
규제완화」 요구가 지난 10월14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논의가 되어왔던 건축법 및  
건축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경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경우 특기할 사항으로는 종전  
허가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허가시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현행 공사기간중 중간검사제도를 폐지시키고  
사용검사제도는 보고서만 제출하면 검토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있어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소개설 형태와 그에 따른 업무의 제한 등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협회운영의 자율권 폭을 넓혀 정관에서 비상근 회원부회장의 선임과 임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의 취임시 건설부장관 승인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시험제도는 1차시험을 예비시험으로 전환하여 대학졸업 즉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는 그 자격을 평생 인정하여 건축사사무소 등에 5년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후 설계능력 위주의 건축사시험에 응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중 건축책임감리회사의 대표자는 건축사가 현행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선기된 건설관계법령 개정안 등은 올해의 정기국회를 거쳐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된 후 95년 7월초부터 시행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상반기중 새로 개정되는 건축사법시행령에 의하여 도서신고제도를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시행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늦어도 내년 임시총회시까지는 제도변화에 따르는 협회운영방안 개정 등 적응조치를 마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건축사시험제도 개정에 따른 청장년층 회원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협회의 구성 그리고 의식기준의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청장년층 회원이 협회의 집행부 그리고 대의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단합된 양상의 협회상을 만들어 회원들의 활동환경을 개선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화·무한경쟁 시대라고는 하나 건축사 다수 합격자 배출로 인한 사무소 개설회원의 증가로 업무수주 과정에서는 예산회계법으로 설계자 선택이 정부의 승인된 수가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관서의 잘못된 예를 본따 민간사업에서까지 물자구입 과정과 같은 설계비 입찰형식을 취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물지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우리모두의 슬기로운 최선의 노력과 안내도 필요하겠으나 혹시 시험방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일이 아닌지 심중한 재고와 더불어 정책적인 재검토와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21세기에 대비한 중장기 사업으로 회원 개개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건축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연구소, 자체시험소, 교육원의 운영과 공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금년내에 사업에 반영되었던 신문발간 업무는 금년도 준비, 발행을 마치고 명년초에는 창간호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들의 바른 주장을 통하여 건축계의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건축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회원 여러분 !

건축은 문화예술이며 우리 건축사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보람된 전문입니다.

근간 우리 건축사들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물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높은 작품수준은 공지와 함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총회로서 임기를 마치시는 시·도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여러분, 그동안 협회의 어려웠던 당면문제 해결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공을 크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새로이 시·도 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으로 선출되시는 분들에게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면모의 협회를 만들어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그동안의 많은 성원에 나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이 총회가 우리 협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회원모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발전,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10.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雄 錫

# 유전공학연구소(특수시설동)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Designed by Baum Architects



위치 /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대지면적 / 87,190.50m<sup>2</sup>

건축면적 / 2,868.38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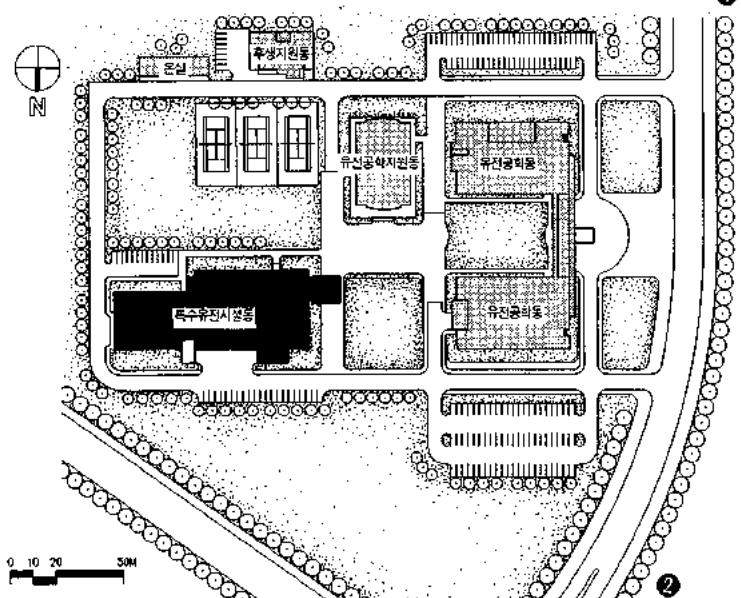
연면적 / 6,030.09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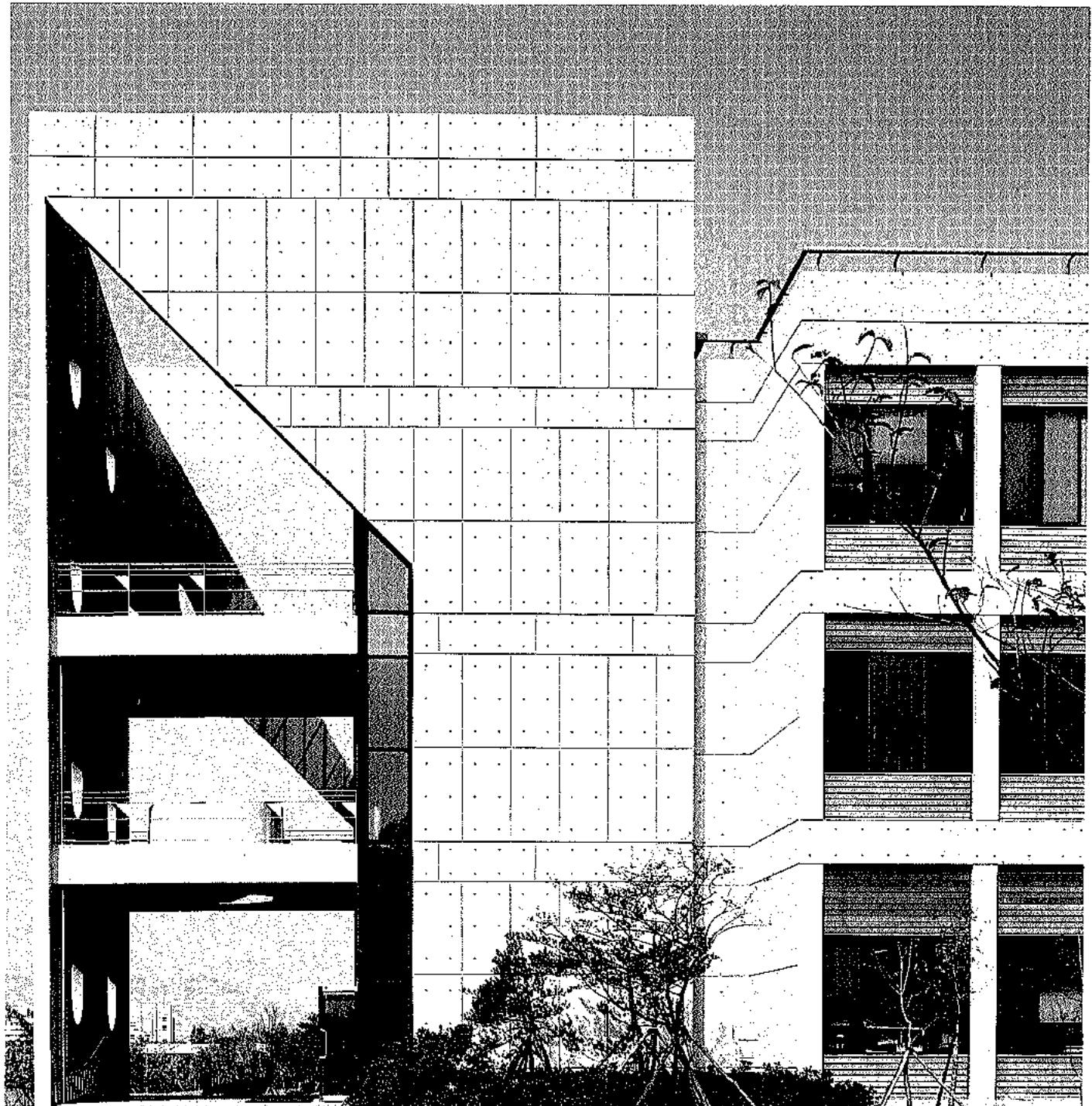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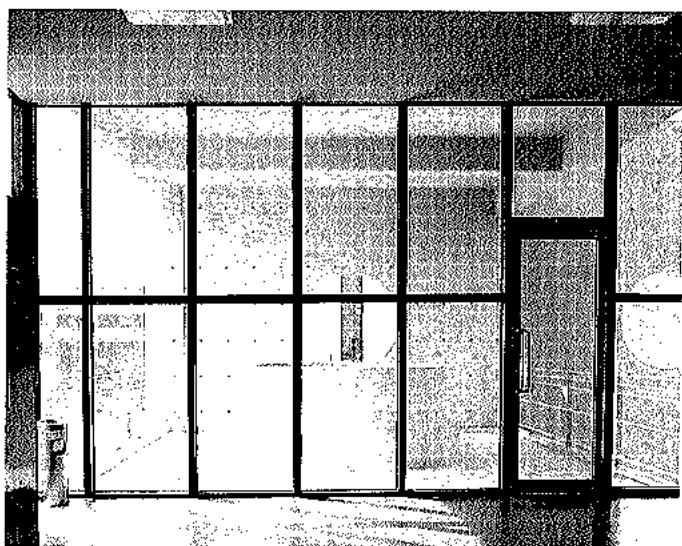
외장 /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T16컬러복층  
유리

용도 / Zootron, Gene Bank, Lab., Pilot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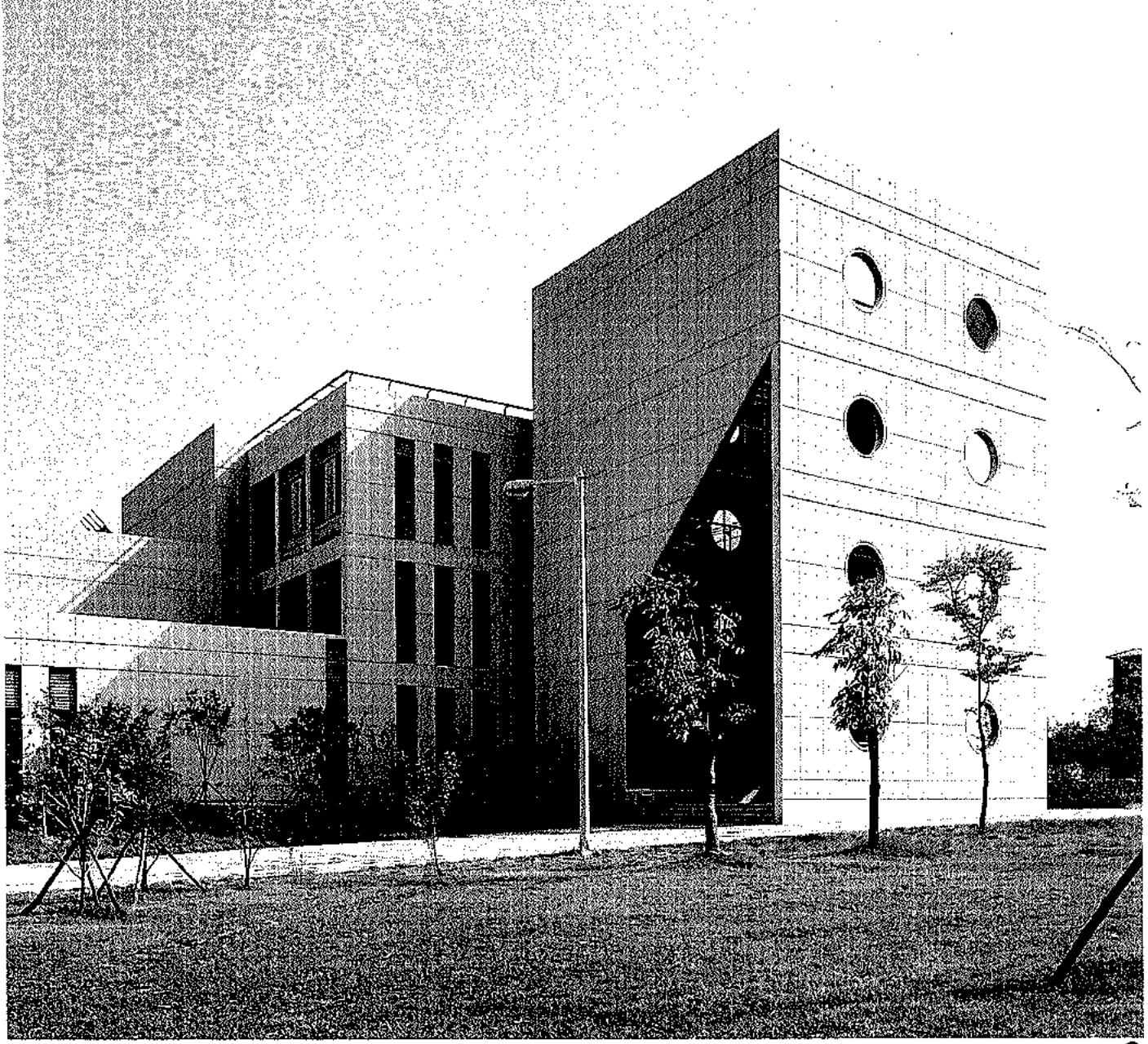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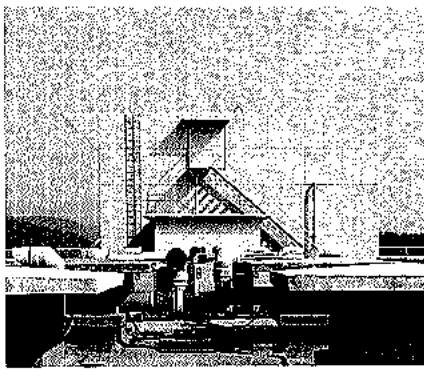


4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외벽 부분 상세
- ④ 2층 테라스



5



6

대전 EXPO SITE와 인접해 있는 대덕연구 단지의 풍경은 엑스포 행사 동안의 번잡함이나 부산함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대로 차분한 분위기를 다시 찾은 것 같다. 과학입국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정부의 시책에 따라 건설에 착수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벌써 한물간 느낌을 주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비어있는 땅이 많아서 간혹가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나름대로 자기 그룹의 위세를 뽑내듯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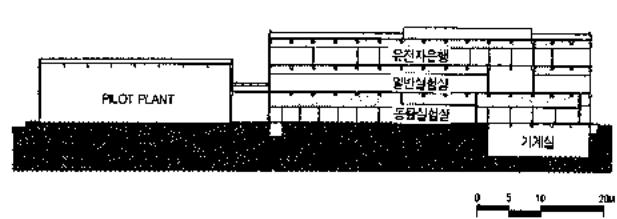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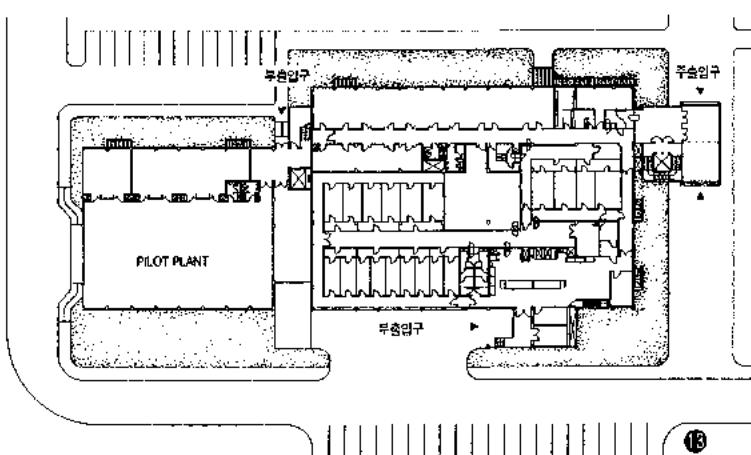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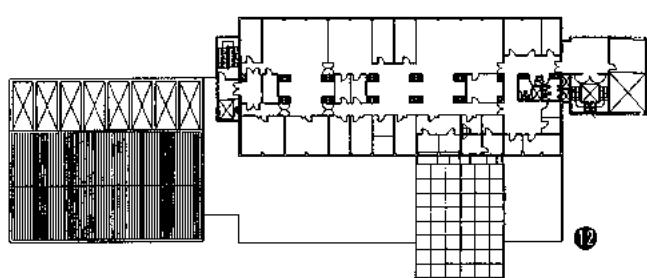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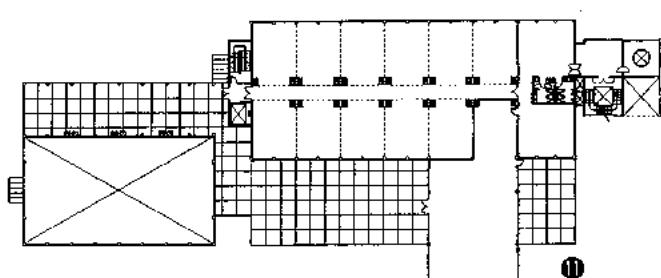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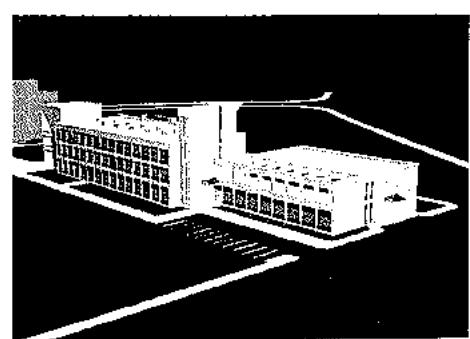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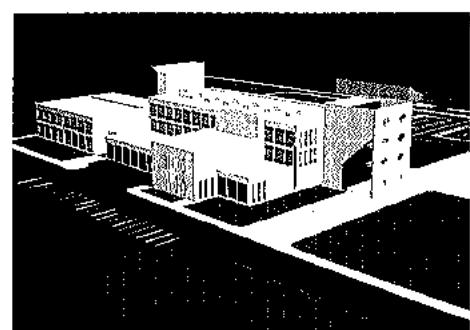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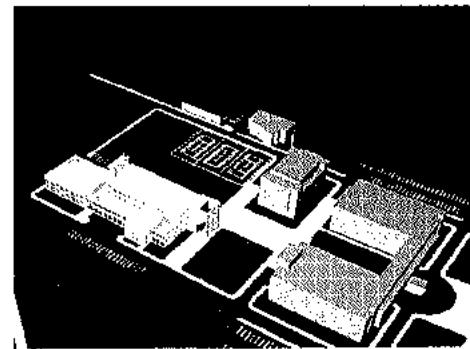
89년도에 이미 1차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인 유전공학연구소의 대지내에 2차 계획으로 건설된 특수시설등 건물은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연구단지 분위기 가운데에서 시간의 변화를 꾀부로 느끼며 읊마해 볼 기회를 갖게 하였다.

기존건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자리에 있던 것인양 슬그

머니 끼워넣는 방식으로 배치가 결정되었다. 주 출입구를 기둥에 통로로 쓰이던 곳에 두어 골목길을 돌아 대문에 이르면 예전의 수법을 답습하였다. 그 곳에서는 손바닥만하게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둑근 원창을 통하여 이웃집 마당이 들여다 보이기도 한다. 기존건물의 외장재료가 노출 콘크리트인 점과 기초과학을 다루는 연구소로서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적당한 점이 맞아 떨어져서 같은 재료를 쓰되 쓰임새를 달리 하므로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습식공법으로 시공되는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꼭 필요한 골조 부분에 국한하였으며 유리와 목재(적삼목 판재)를 써서 건식의 커튼월로 처리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비교적 변하지 않을 콘크리트의 질감에 비하여 끊임없이 바뀌는 나무의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표정을 달리하면서 연륜의 깊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 ①주출입구 전경
- ②옥상 계단탑
- ③주계단실 상세
- ④CAD 서플레이션
- ⑤CAD 서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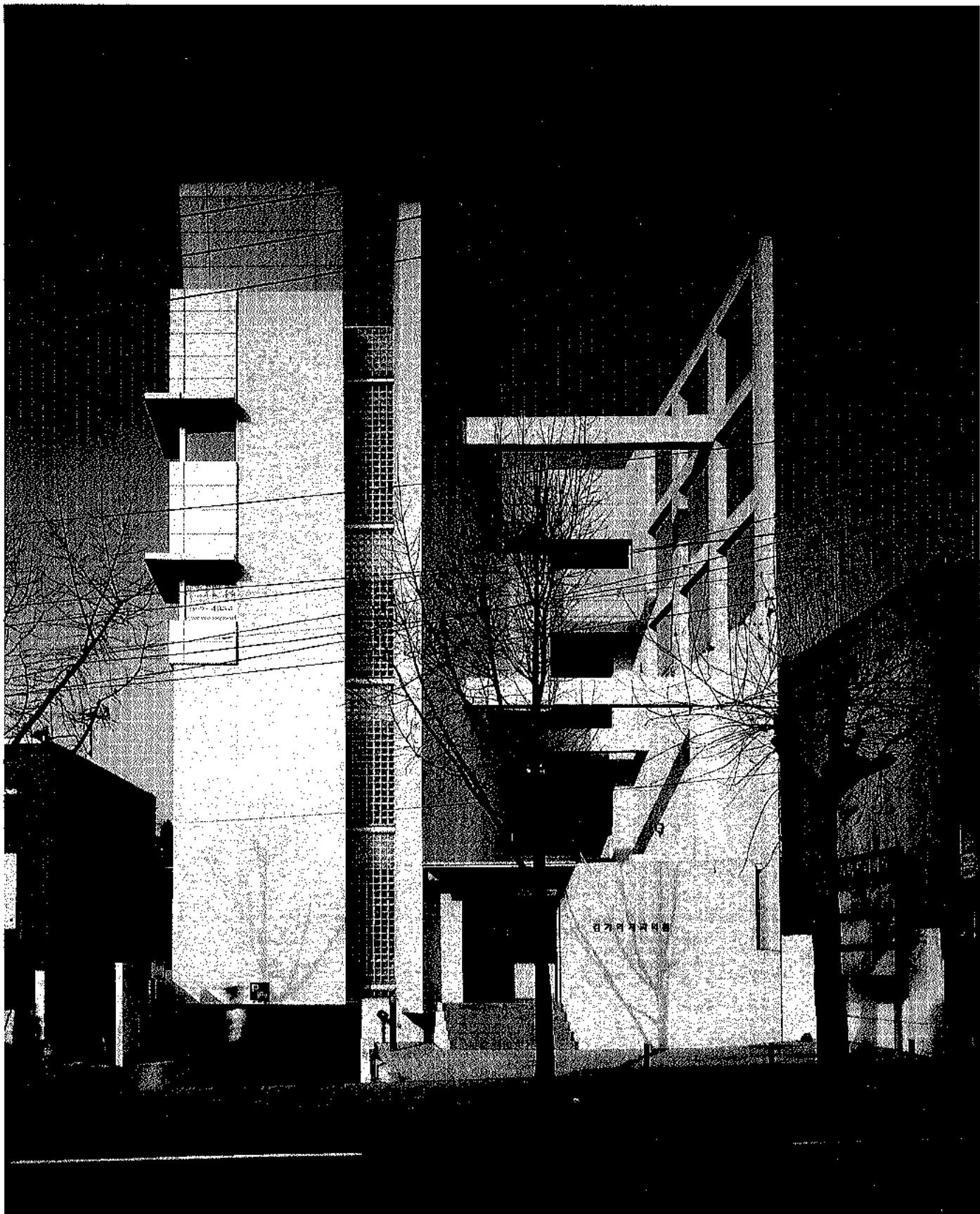


- ⑪ CAD 시뮬레이션
- ⑫ 2층 평면도(일반실험실)
- ⑬ 3층 평면도(유전자은행)
- ⑭ 1층 평면도(동물실험실)
- ⑮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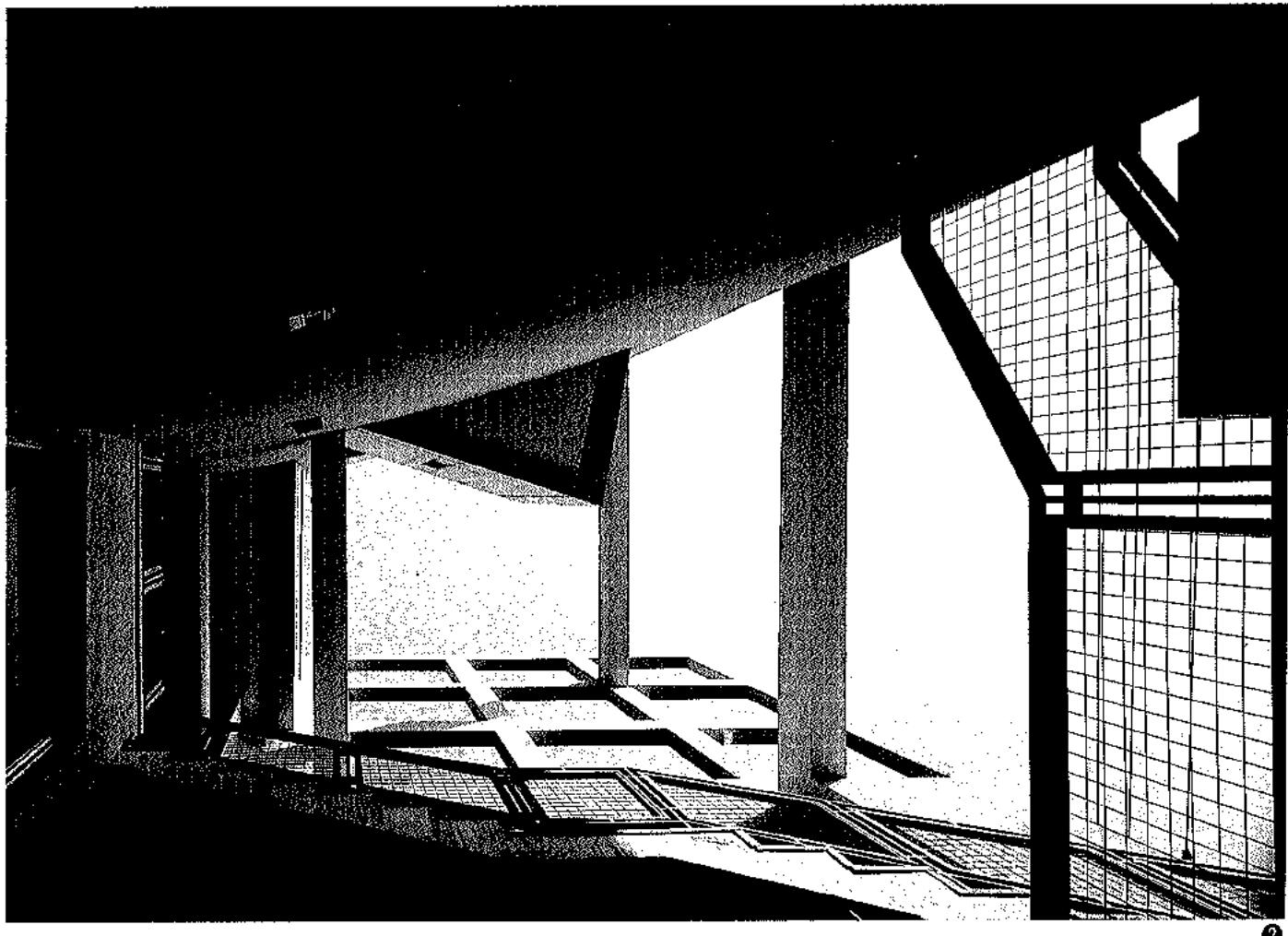
# 이문 291

Emun 291

承孝相/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Designed by Seung, Hchihoh-Sang



- ❶ 동측 도로에서 본 전경
- ❷ 2층 중정에서 올려다 본 모습
- ❸ 배치도



②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1-30

지역 / 일반주거지역, 노선상업지구

지구 / 주차장정비지구, 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430m<sup>2</sup>

건축면적 / 199.38m<sup>2</sup>

연면적 / 1,113.36m<sup>2</sup>

건폐율 / 46.37%

용적률 / 20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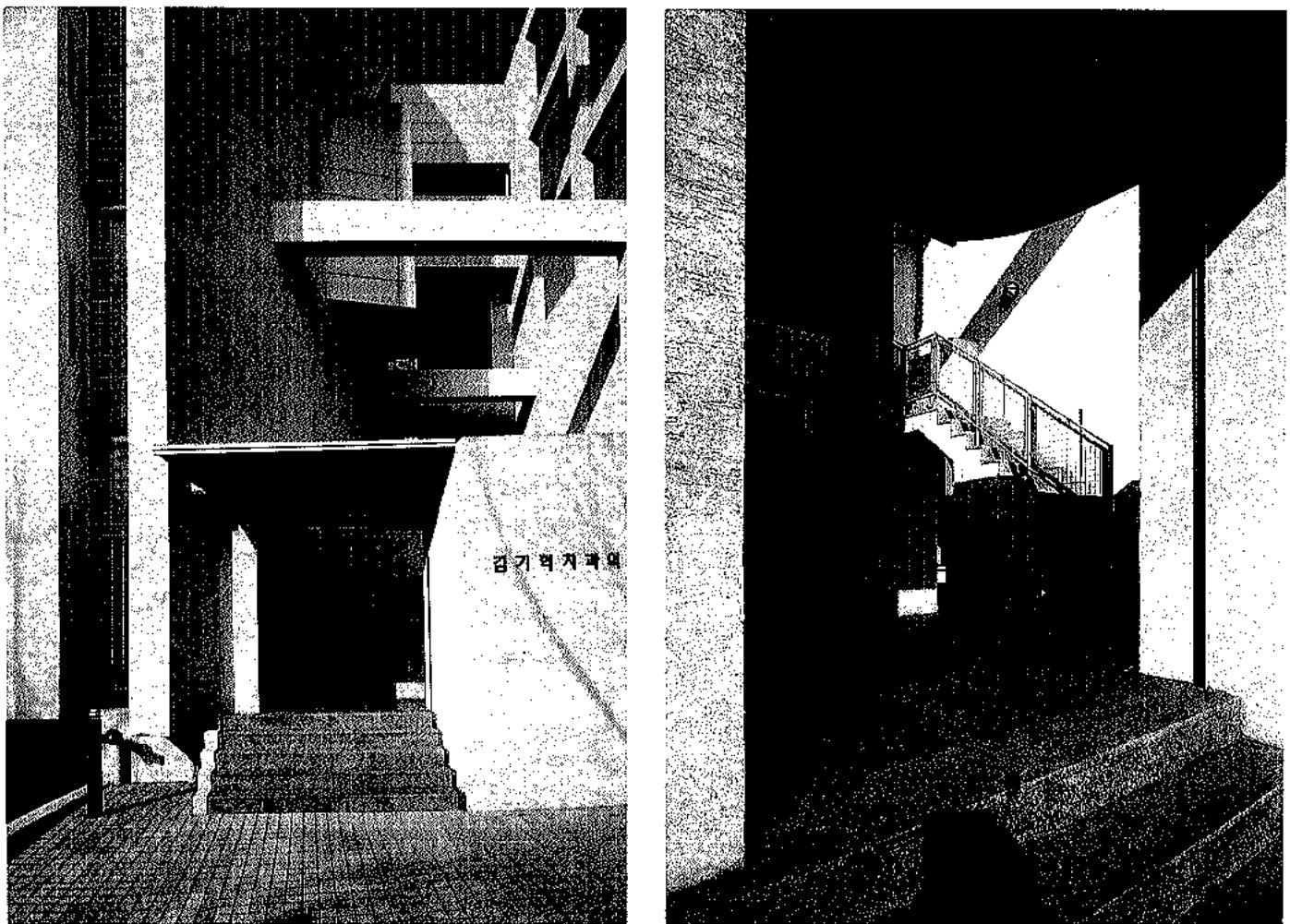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시스템, 알루미늄 복  
합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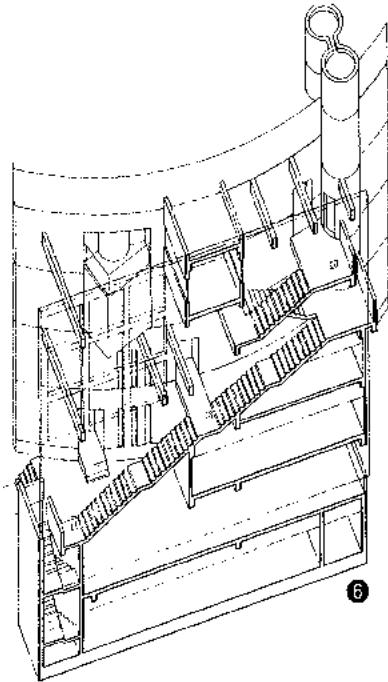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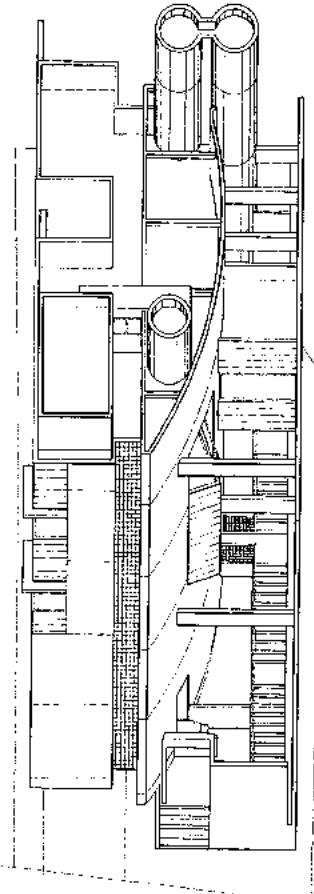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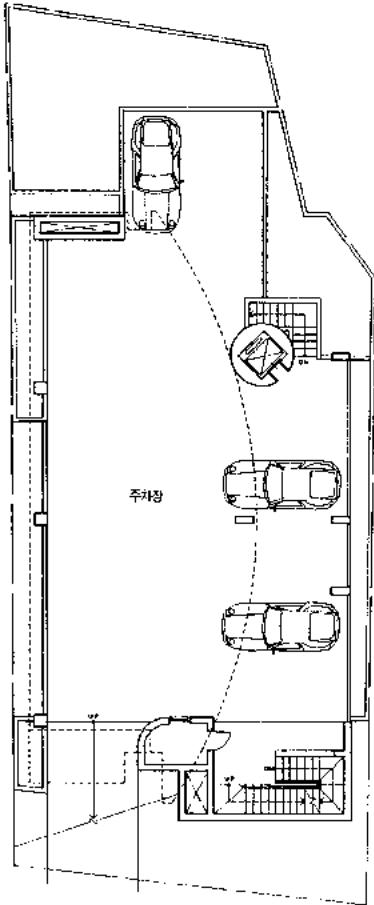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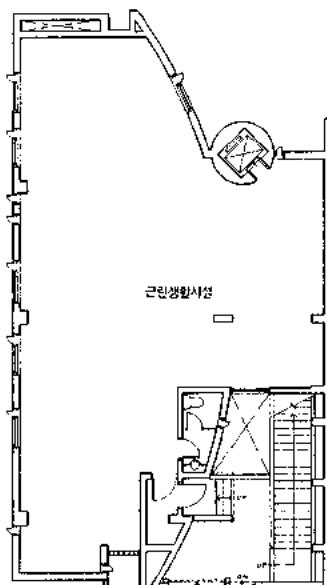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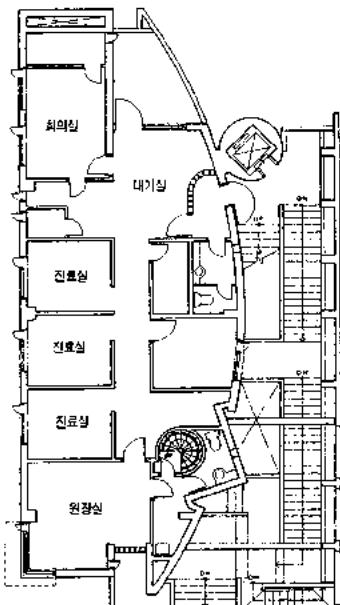
- ④ 주출입구 디테일
- ⑤ 출입구에서 본 전경과 계단실
- ⑥ 엑소노메트릭
- ⑦ 엑소노메트릭
- ⑧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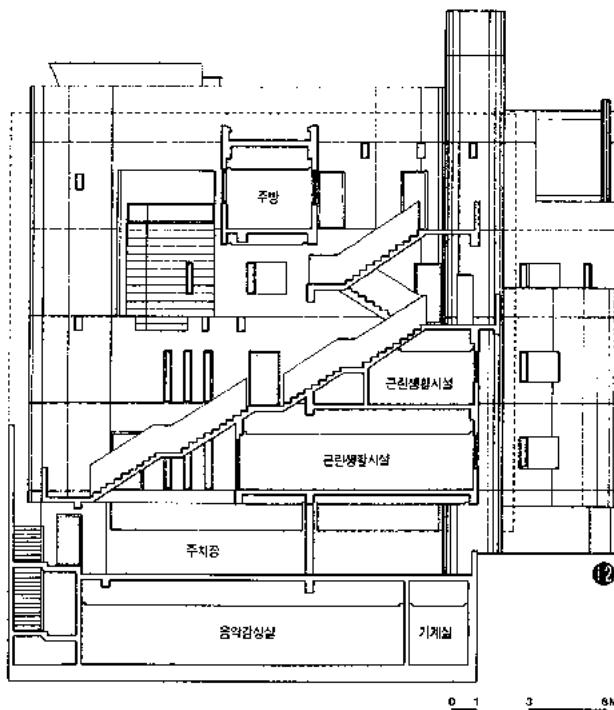
⑨



⑩



⑪



⑫

이문 291은 치과의원과 주택, 그리고 2개층의 임대 공간을 가진 표준적인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여기에서도 대지의 세밀한 이용, 공사비 절감, 복잡한 법규와 싸움이 건축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시내 웬만한 지역의 풍경을 이루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이 제대로 자리 매김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문동의 경우는 건축 주가 자신이 사용할 건축물을 원하였다라는 조건, 개발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인근의 외국어 대학에서 연결되는 20m의 가로 조건은 다른 근린생활시설들에 비해 훨씬 좋은 배경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대지는 불규칙한 형상으로 가로에 좁게 면하여 애당초 정형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뒷부분 인접지에 대한 일조권 제한은 근린 시설 자체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어울려 건축적 해결에 곤혹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층별 별도 진입, 좁은 대지 가로면에 차량과 사람의 진입, 좁은 입면, 고층부에 대한 배려등이 고려되어 주변의 골목길과 유사한 직선계단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도사의 가로가 건축으로 파고들어 입면은 내부에 있고 각층이 도로에 연한 듯한 구성, 그것은 다시 말해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었고 주어진 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옛날에 한반쯤 있음직했던 내부와 외부를 잇는 이 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기도 하며, 도시와 건축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결시킨다. 때로는 사유의 공간으로, 때로는 공유의 공간으로 변용될 수 있는 이 집 속의 길에서, 이 도시의 건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연이 담겨자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이다.

❶ 2층 중정에서 출입구를 바라본 모습

❷ 2층 평면도

❸ 4층 평면도

❹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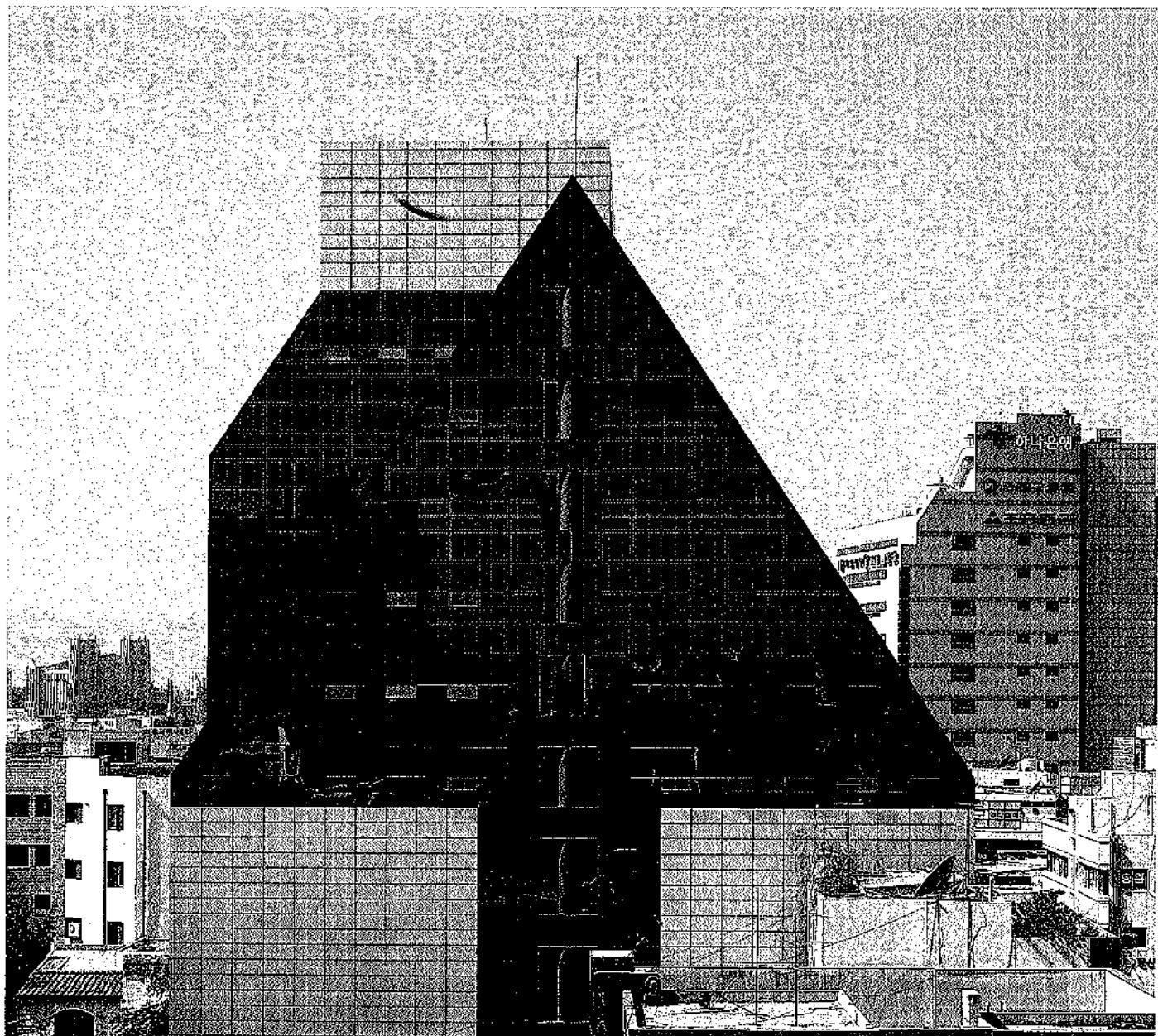
# 동원빌딩

Dongwon Building

崔寬泳+鄭東明/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②

대지위치 /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 가8-1번지  
지역지구 / 상업지역

대지면적 / 1,049.0m<sup>2</sup>

건축면적 / 821.4m<sup>2</sup>

연면적 / 9,897.4m<sup>2</sup>

건폐율 / 79.1%

용적률 / 650.6%

용도 / 상업, 업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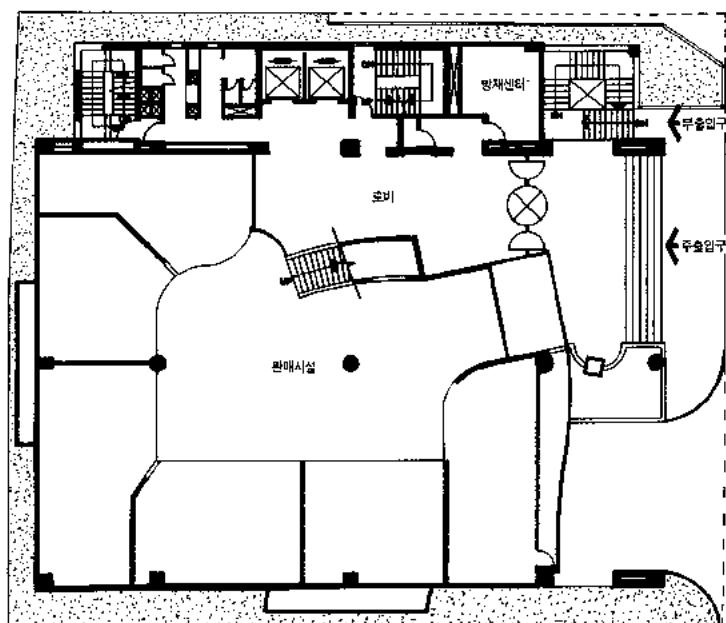
조경면적 / 127.8m<sup>2</sup>

최고높이 / 47.2m

외장재료 / 알미늄 커튼월, 컬러복층반사유리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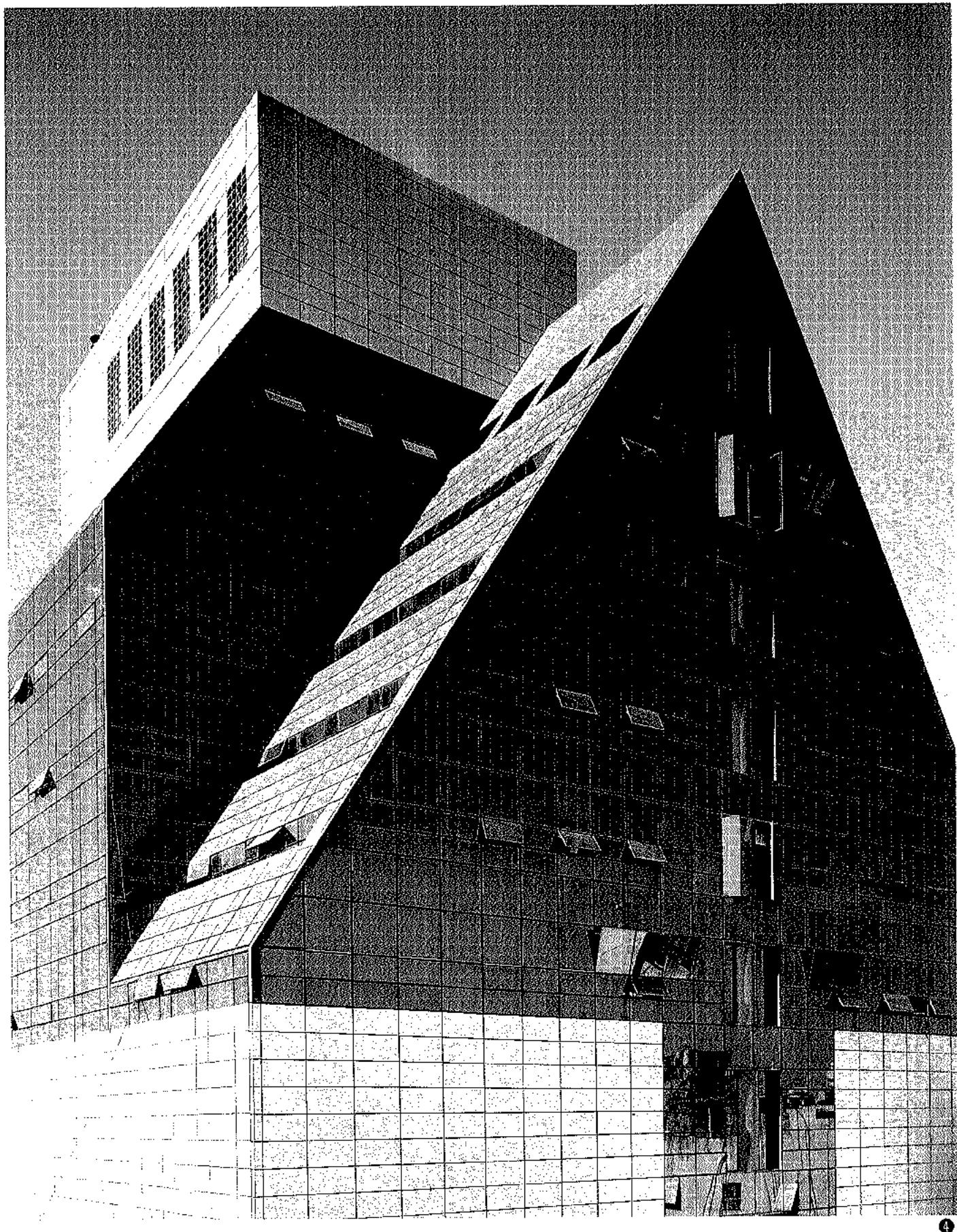


③

①전경

②측면 상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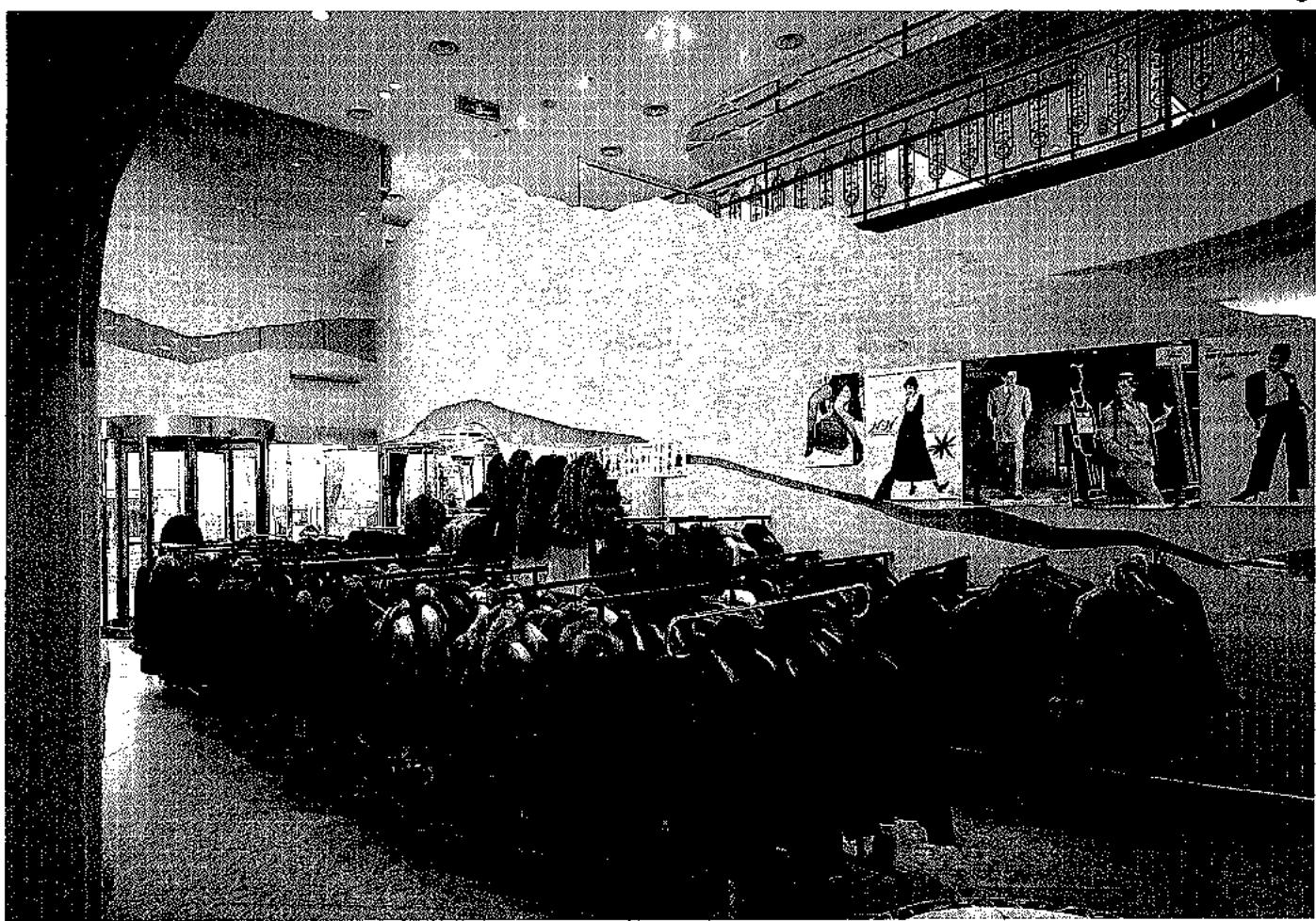
③2층 평면도 및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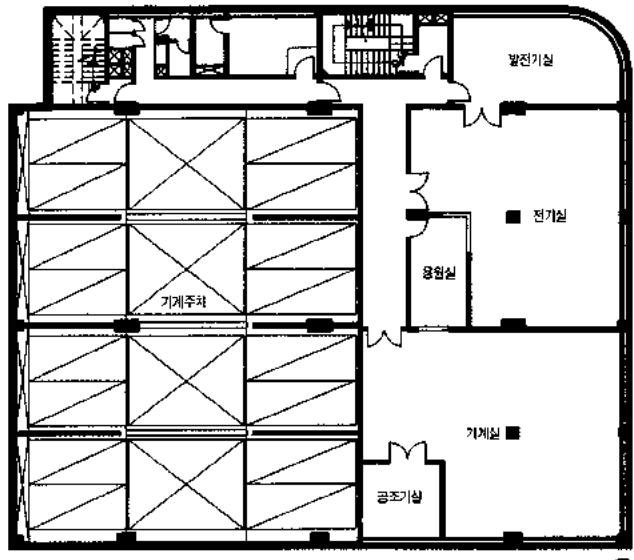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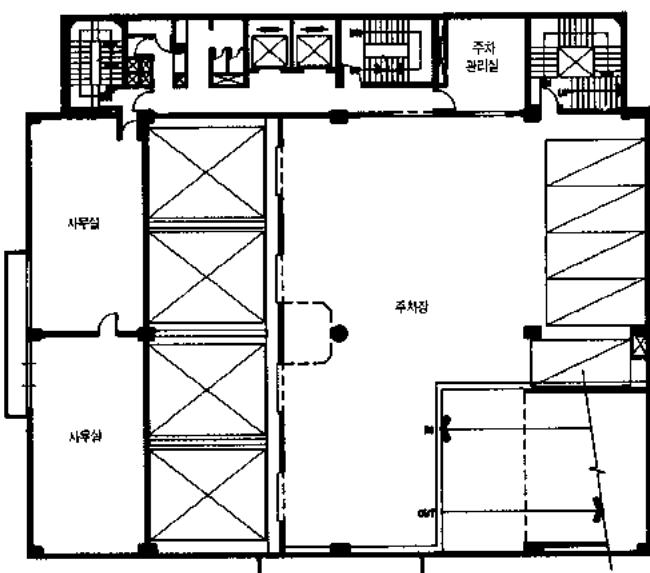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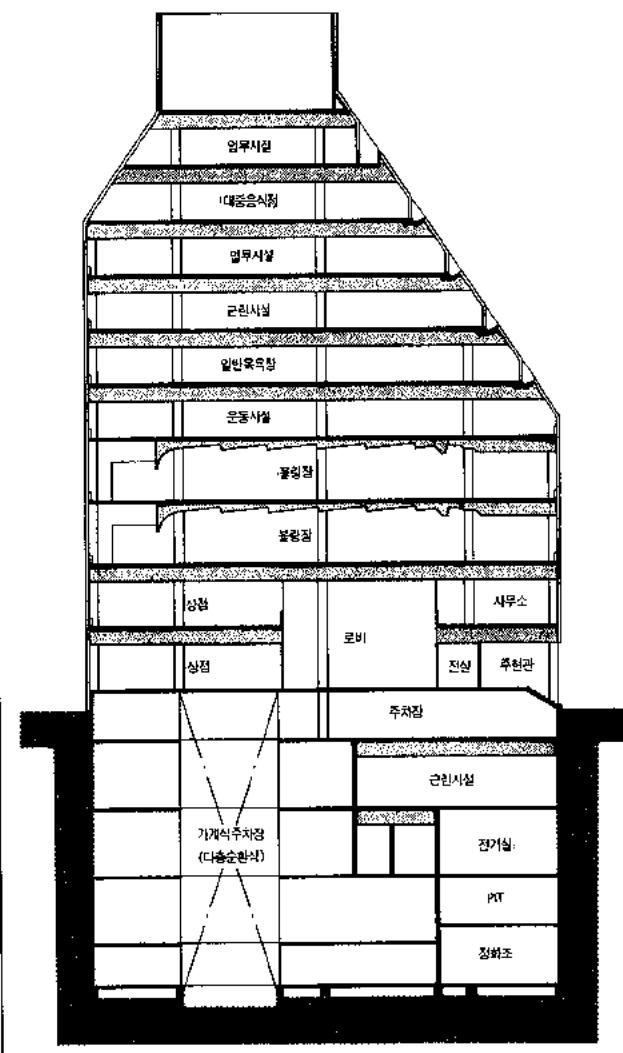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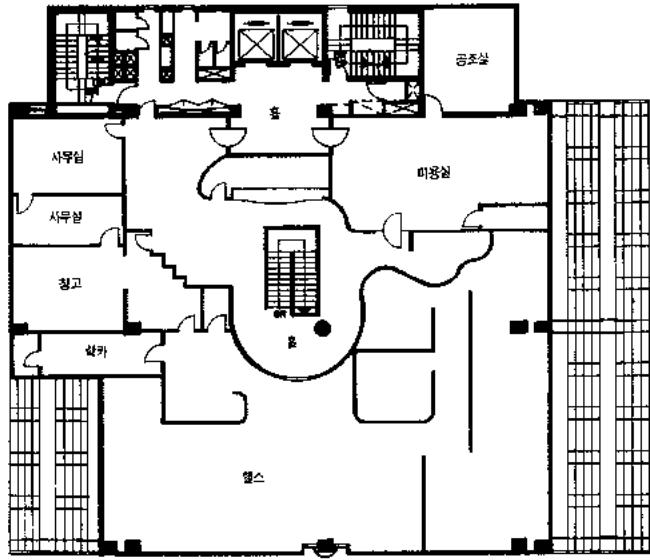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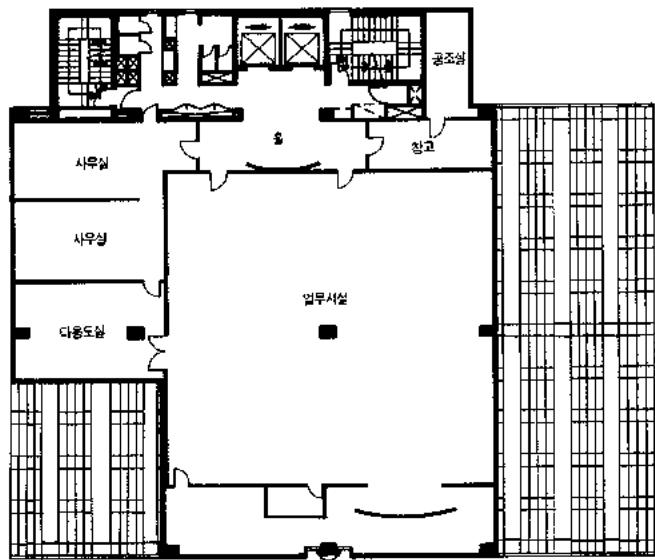
- ④ 측면 상부 외벽 상세
- ⑤ 주출입구 전경
- ⑥ 2층 매장 전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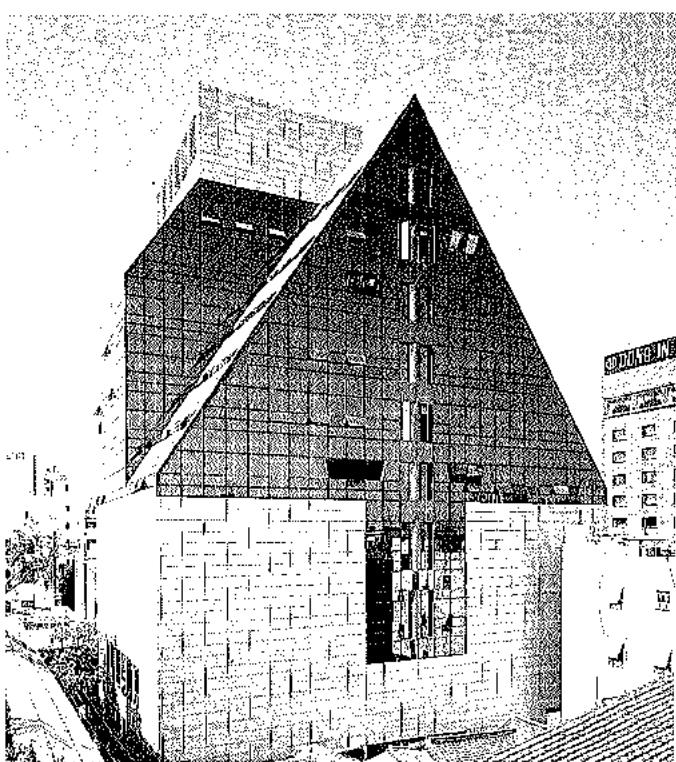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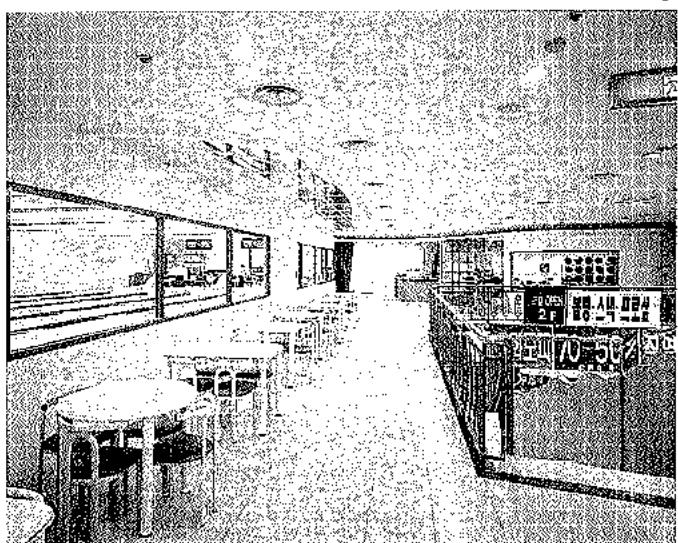
- ⑦ 9층 평면도
- ⑧ 8층 평면도
- ⑨ 종단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지하2층 평면도



12



13



14

- ② 3층 연결 계단
- ⑥ 측면 전경
- ⑩ 4층 볼링장 연결 복도

# 국제신문사사옥

The Kookje Shinmun Co. Building

李龍欽/(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위치 /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76-2번지

외 17필지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

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 / 5,592.00m<sup>2</sup>

건축면적 / 3,118.26m<sup>2</sup>

연면적 / 56,293m<sup>2</sup>

건폐율 / 55.76%

용적률 / 718.93%

규모 / 지하 4층, 지상 2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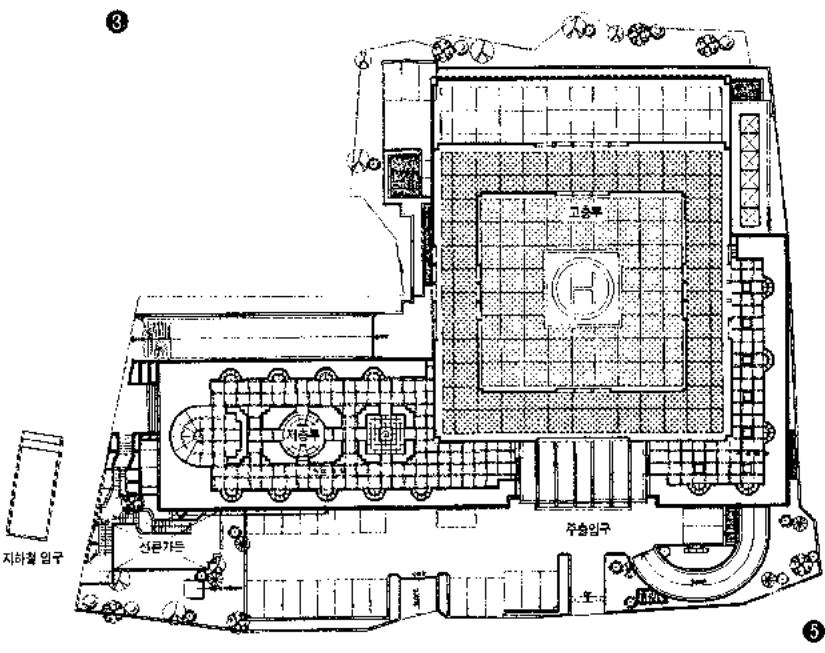
①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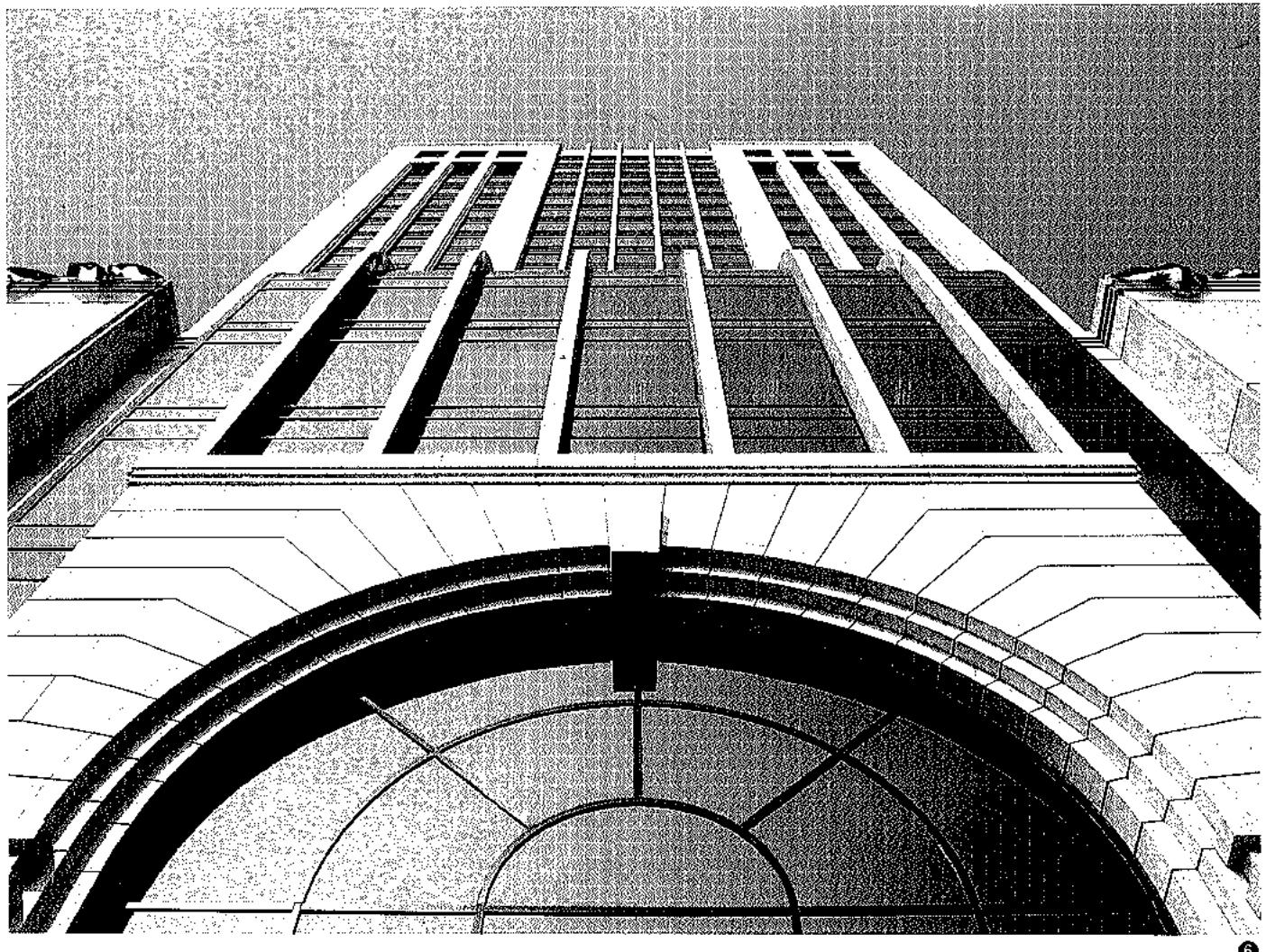
② 1층 로비 전경

③ 전시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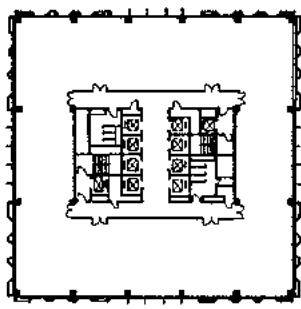
④ 대강당 내부

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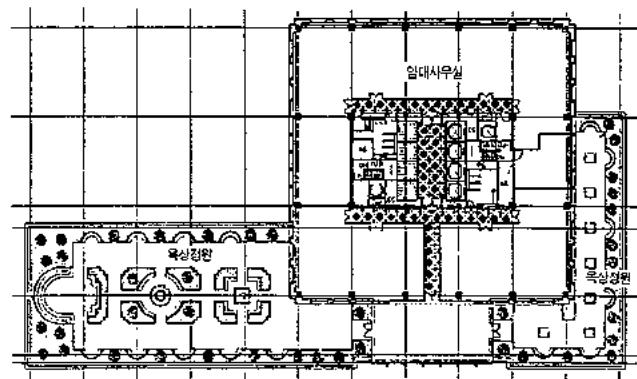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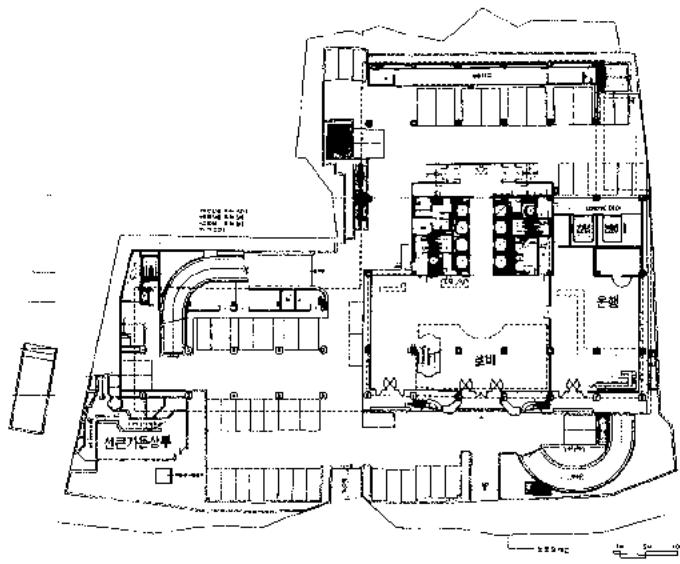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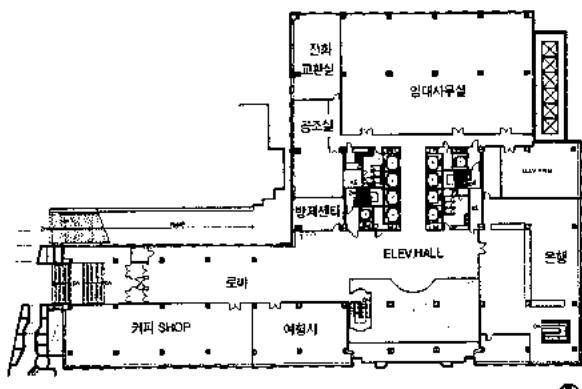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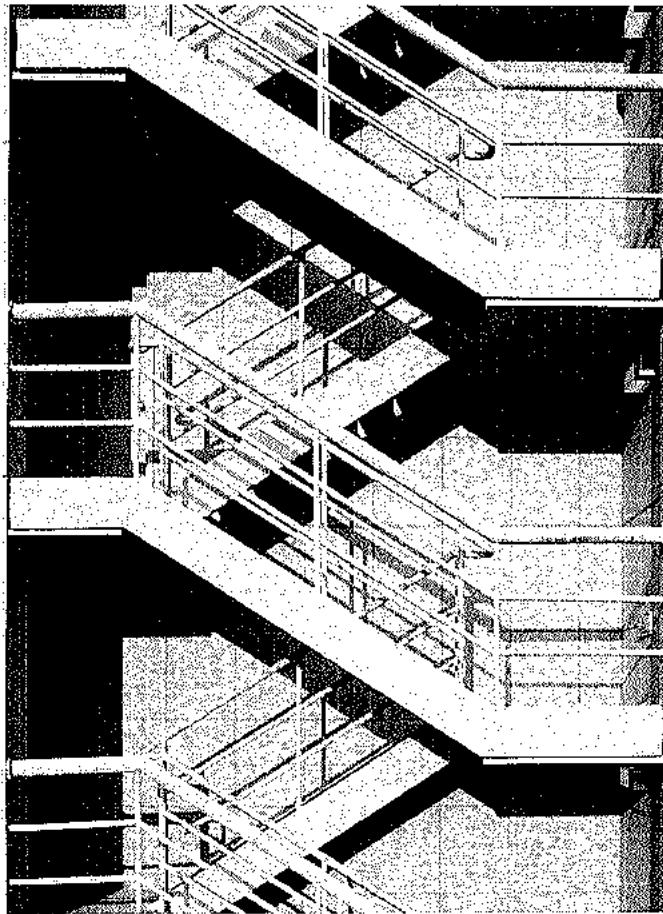
8



9



10



⑪



⑫

#### □ 대지분석

대지는 전면의 50m 주간선로에 접해 있으며, 부산교대의 진입도로인 20m 도로를 남쪽으로 끼고, 북쪽으로 8m 계획도로가 지나가는 L자형 부지이다.

대지 주변으로 오피스 Zone이 형성되어 있고, 부산교대가 있어 교육, 문화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부산선청사가 건립되면 연산 R를 비롯하여 계획대시 주변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예측된다.

대지는 동래와 시내를 잇는 교통 결절점이며, 지하로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전물로의 많은 동선 유입이 예상된다.

#### □ 배치계획

대지의 형상에 의해 고충부가 확정되므로 전체적인 배치의 흐름은 남북으로 저층부가 놓이고 북쪽에 Tower가 세워졌다.

대지의 전면은 좌측 코너에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소공원 개념의 조경 도입으로 폭포수를 바라보며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설정했다. 배면은 신문사 전용 외부공간으로 신문발송동선을 수용하고 원활한 차량동선도 수용하는 외부공간으로 계획되었다.



⑬

- ⑥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 ⑦ 기준층 평면도
- ⑧ 6층 평면도
- ⑨ 1층 평면도

- ⑩ 2층 평면도
- ⑪ 배면 계단부
- ⑫ 엘리베이터 훌
- ⑬ 동서측 전경

# 국토개발연구원 청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尹承重十木 鎏/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Yoon, Seung-Joong & Byeon, Yong



위치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택지개발지구

지역 / 중심상업지역

지구 / 업무지구

대지면적 / 13,053m<sup>2</sup>(3,948.5평)

건축면적 / 1,567.79m<sup>2</sup>(473.3평)

연면적 / 19,961.86m<sup>2</sup>(6,038.9평)

건폐율 / 12.0%

용적률 / 99.79%

규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외부마감 / 화가석 벼너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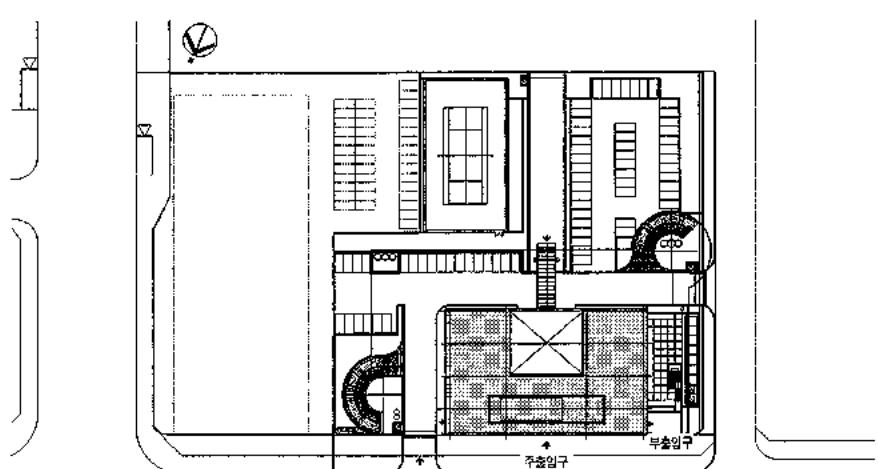
건축주 / 국토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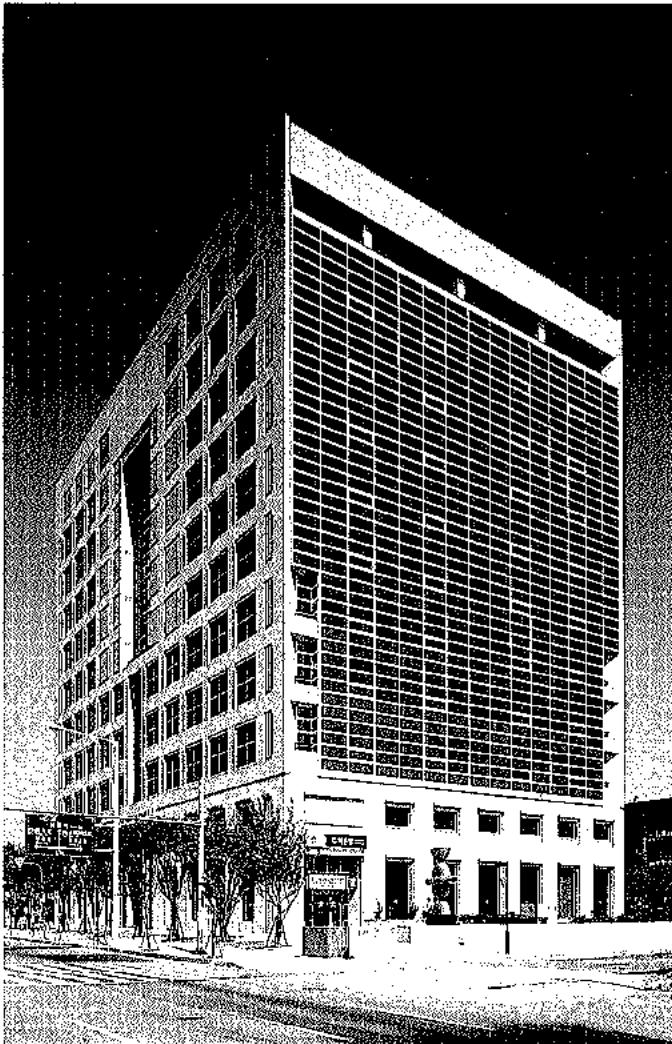
시공자 / 태홍건설

공사비 / 166억 6천만원(276만원/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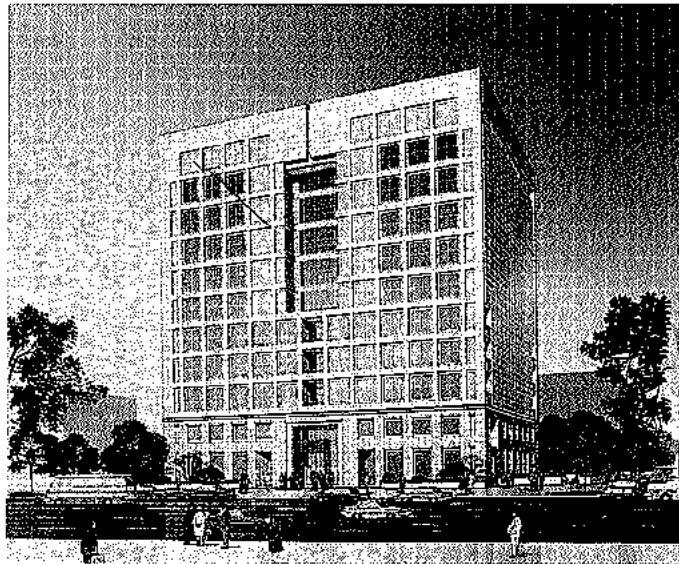
설계기간 / 1990년 7월~1991년 10월

공사기간 / 1991년 12월~1994년 4월





③



④



⑤

원도시가 갖추어 온 모든 조형 환경 속에는 늘 확인치 않은 설계 과정 속에 몇 가지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공감하곤한다. 연구소 기능으로 프로그램되고 현상설계 경기를 통해서 제안된 국토개발원 조형도 예외가 아니었으리라 본다.

프로그램과 도시 환경 구조를 근거로 원칙이 수렴되고, 개진되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정해지면,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들이 가려지고 제안의 가치들이 토론된다.

그 원칙의 결과는 늘 디자인 이전의 순수한 다이어그램으로만 그 콜격이 만들어지게 되며 그 콜격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디자인의 어휘—매론 악숙하게, 매론 생소한 것—들이 원칙과 제안의 범주 안에서 다양성을 갖추면서 형상을 드러내게 된다.

형상으로서 조형은 다시 원도시건축이 갖추려는 의사로서 가치를 갖는 격(格)—그것은 과정의 주제이기도 하다—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만나게 된다.

본래의 원칙과 제안의 의사를 되풀이 해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칙과 제안의 의사를 되풀이 해석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칙까지도 의심하게 되는가 하면 그 제안의 시간성까지도 반론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같은 과정과 같은 사고의 원칙속에서도 각기 다른 격들이 갖추어져 다양하게 조형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토개발원의 주체가 된 수용의 격은 신도시 공용 건축의 제안으로서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① 남동측 전경

②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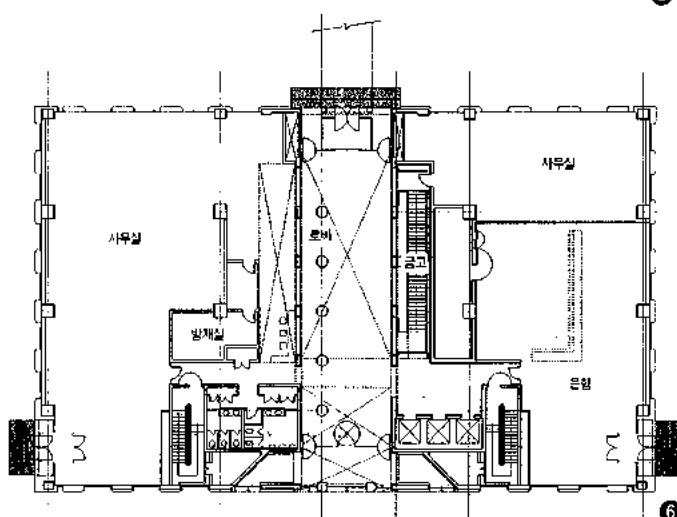
③ 전면도로에서 본 남서측 전경

④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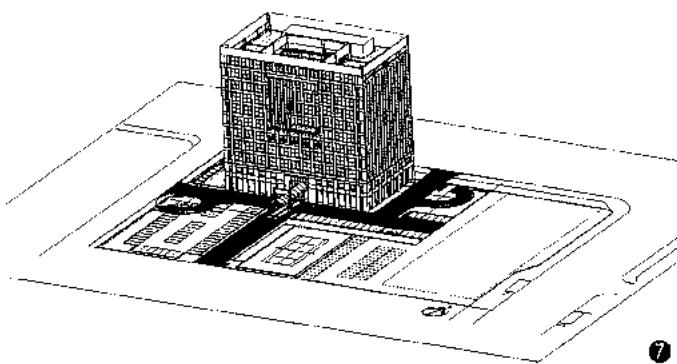
⑤ 2층 복도에서 본 오픈된 로비 상부

⑥ 1층 평면도

⑦ 엑소노메트릭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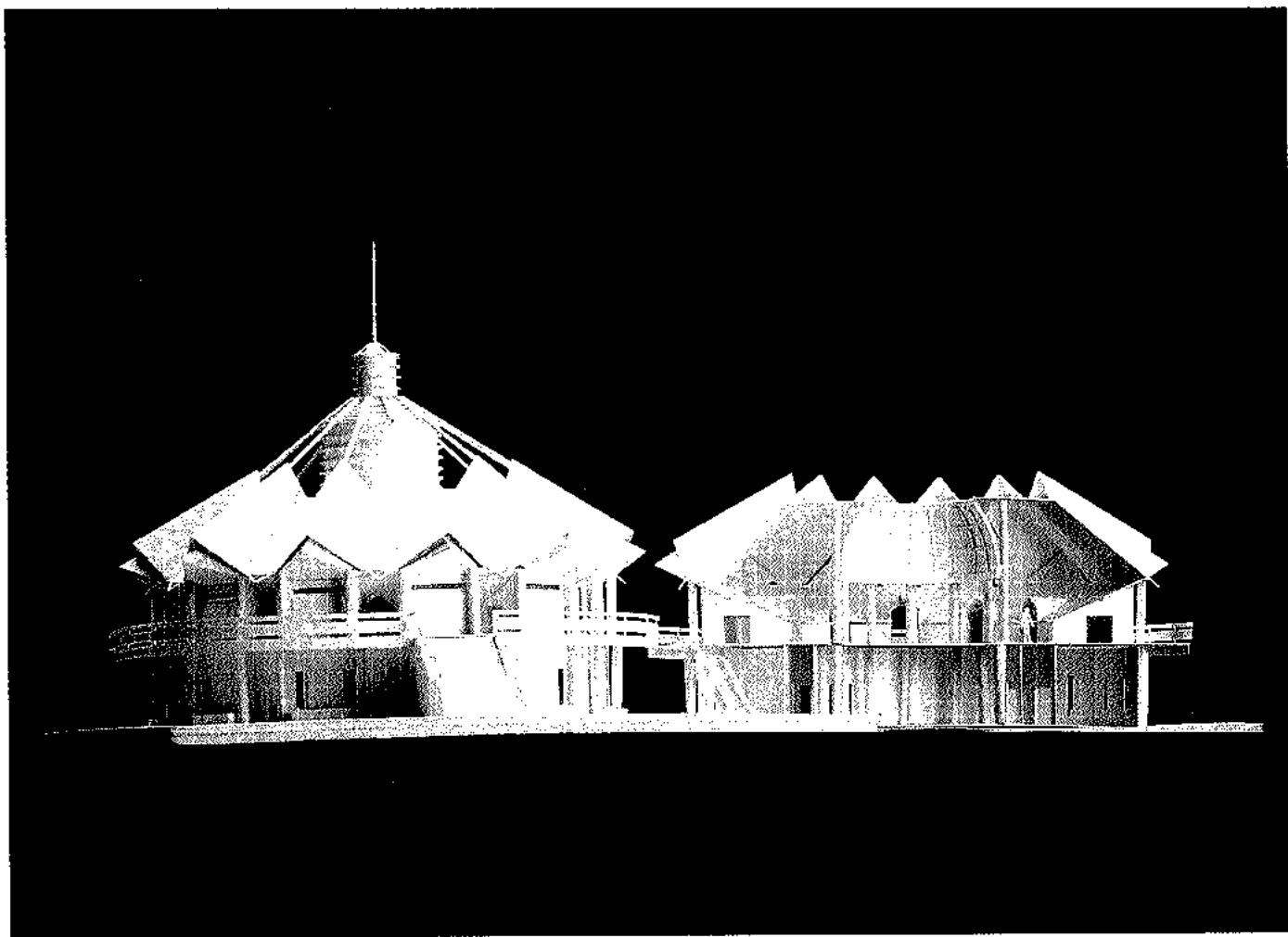
⑦

# 전등전

Cheondeung-jeon

朴舒弘/단 ·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eo-Hong



모형사진

위치 / 충북 중원군 엄정면 용산리

대지면적 / 1,495m<sup>2</sup>

건축면적 / 734.59m<sup>2</sup>

주요시설 / 기도실, 승방, 사무실, 법당, 식당

구조 / 철근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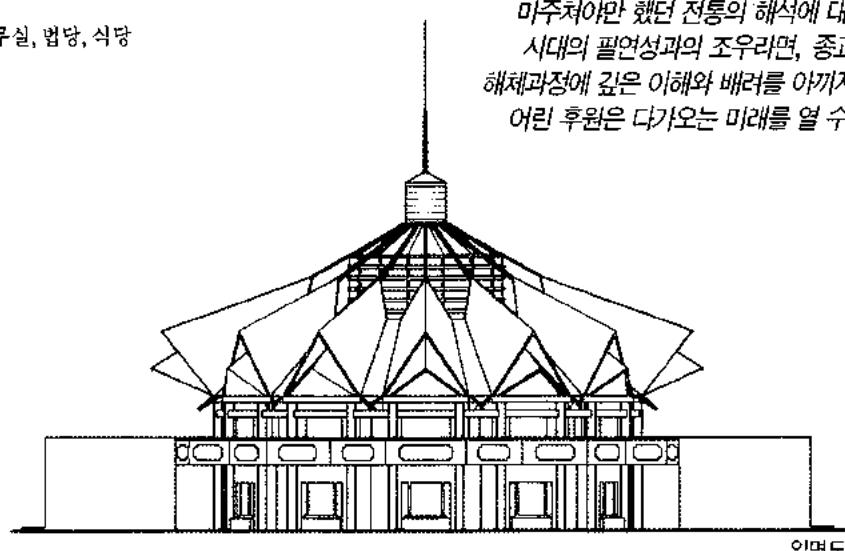
마감 / 화강석 벽면구이

설계 / 정영민, 조건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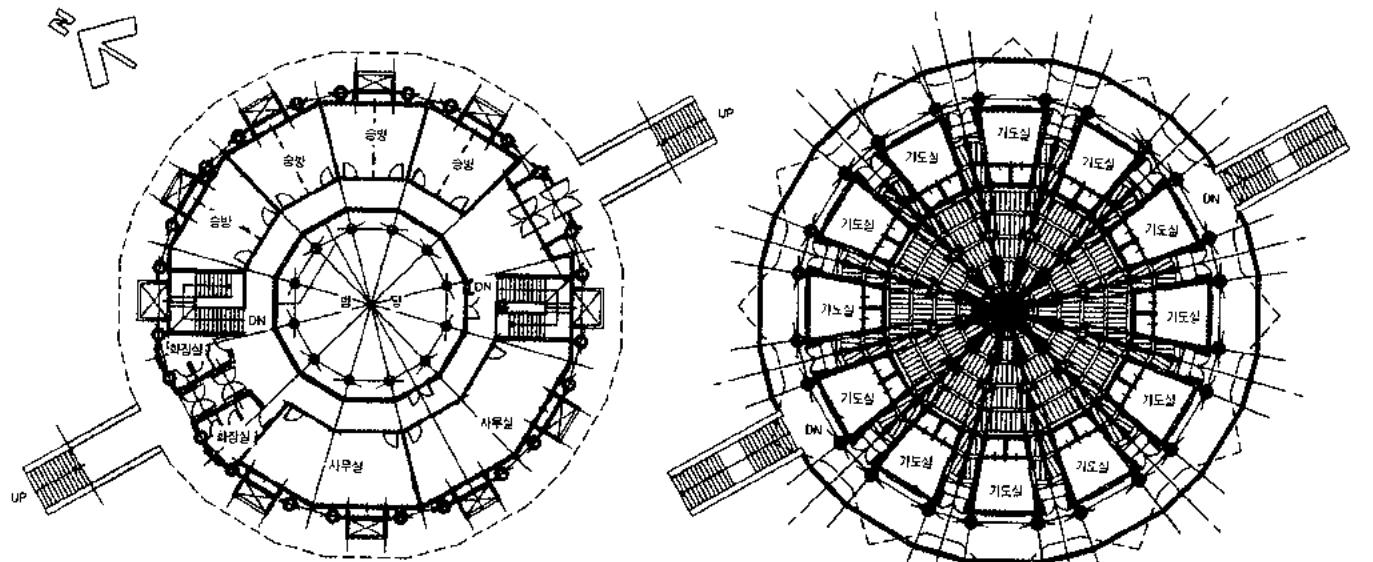
모델 / 이범형

CAD / 서윤규

건축공간이 위치할 수 밖에 없는 깊은 산속이라는 장소성의 의미, 신계영역이 갖는 재래적 공간의 현대적 수용,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만 했던 전통의 해석에 대한 고통어린 시간 등이 우리 시대의 필연성과의 조우라면, 종교건축의 관념적 질서에 대한 해체과정에 깊은 이해와 배려를 아끼지 않은 크라이언트의 인내심 어린 후원은 다가오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진정한 화두가 되리라 믿는다.



입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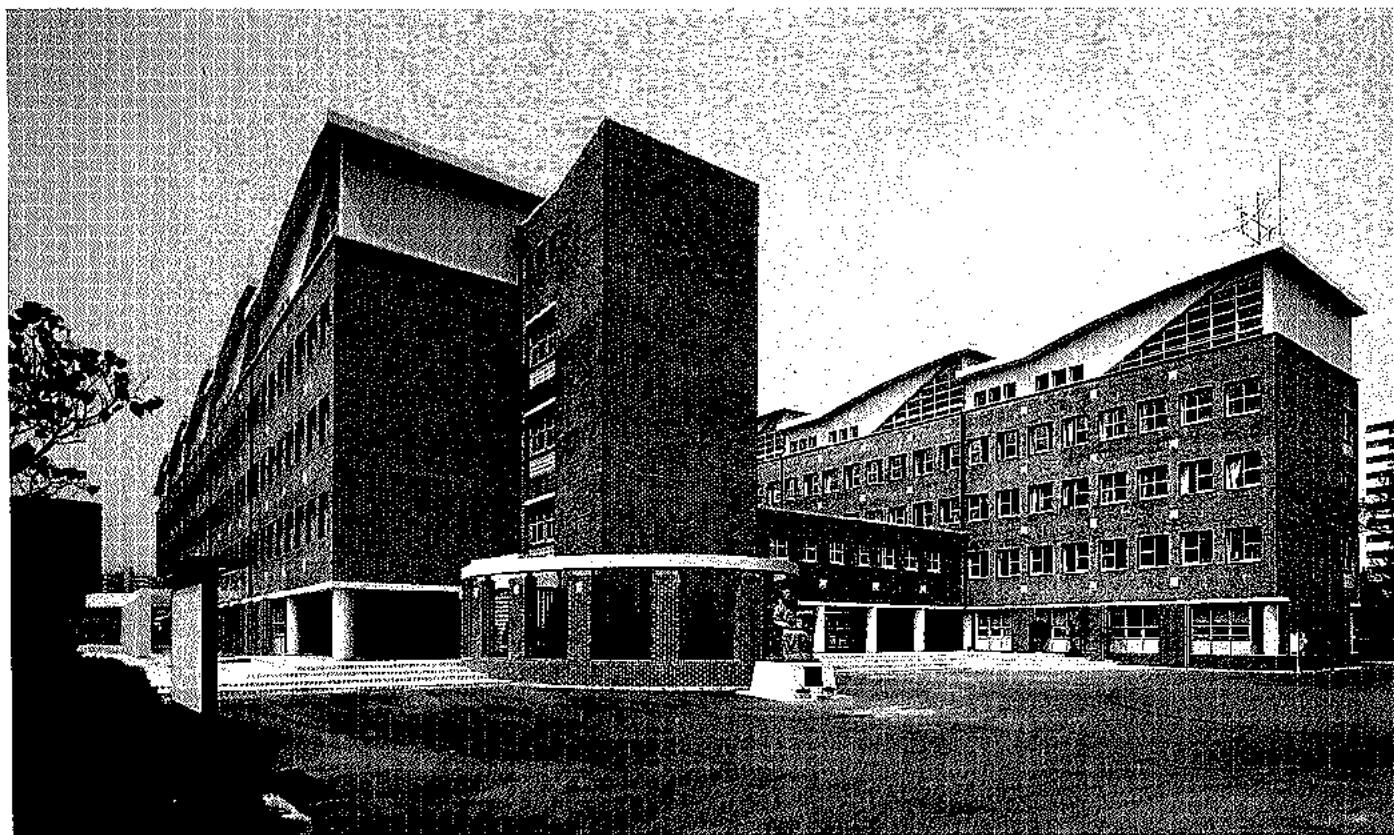
# 관행(慣行)과 파행(破行)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민정학원의 경우(文政一作)—  
—In Case of the Architecture of Min Jung School—

金聖雨/연세대 교수

by Kim, S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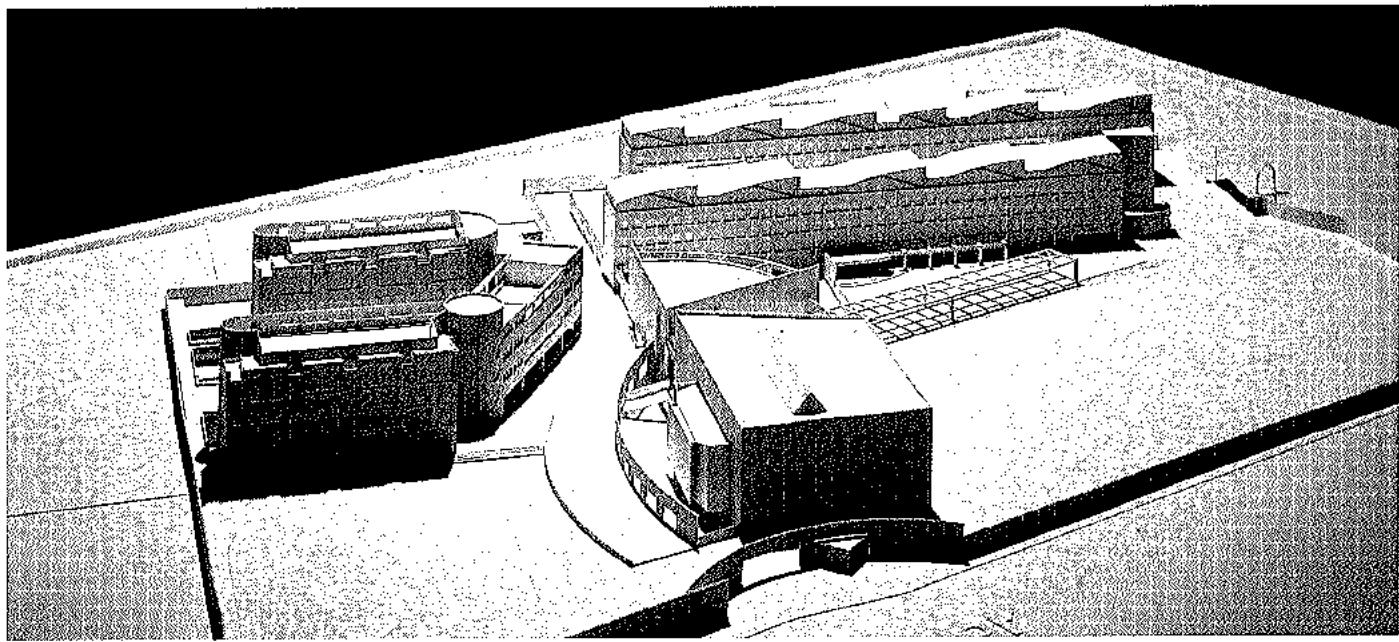
중고등학교 전경

## 1.

어느 건축작품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그 건물에 대한 건축비평을 쓰게끔하는 이유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건물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 건물이 비평을 필요로하는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건물이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비평이 다 의미있는 비평이 될 수는 없다. 비평이 보다 더 의미있기 위해서는 비평하는 작품이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성의 깊이와 제시하는 해결책의 특수성에 비평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비하여 상을 타는 작품이 모두 그러한 문제성의 깊이와 해결책의 특수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두번째 수상작이

현법재판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선정된 작품이 스스로 선정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가치를 드러내 주지 못하면 그 결과는 건축상 제도 자체의 위상에 손상을 초래한다. 물론 모든 판단은 주관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선정결과에 대한 이외제기가 단순한 견해차이의 문제로 돌려질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법재판소의 경우는 찾아지는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작품이었고, 해결책으로서의 디자인이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받아들일 내용이 약했기에 우리는 작품에 대해서보다도 상 제도에 대하여 회의적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건축문화대상은 번듯하고 무난하고 시공이 잘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비칠 수 있는 종류의 건물을 선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 제도인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주관부서로서 관(官)이 개입되고 심사위원은 대외적 신망도 위주의 인선(人選)으로 짜여지고 나면 괴하기



도형도

어려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건축상은 막연하게 “우수한 건축물을 골라 포상함으로 건축문화창달을 도모한다”고 하는 식의 취지보다 좀더 구체적인 상의 목적과 선정의 기준과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모두가 공정할만한 모범생뽑기보다 특수해적 고유성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해 주어야만 건축계가 기대하는 상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횡일성과 일반해적 관행이 철저하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상에 의한 작품의 평가마저도 일반해적으로 무난한 작품이 골라진다면 그 건축상제도는 스스로의 권위와 역할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건축상은 문제없는 모범생을 골라 상 주는 것이기 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수해적 작품을 발굴해 냈으로의 방향이 제시되는 쪽으로의 책임도 져야하기 때문이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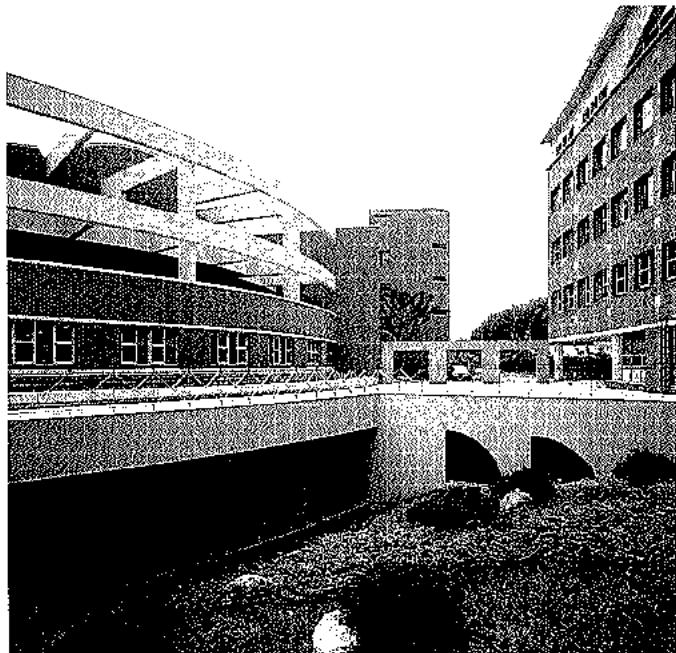
세상일은 관행(慣行)과 파행(破行)으로 이루어진다. 관행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관성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힘이고, 파행은 그 방향을 바꾸어 보려는 힘이다. 관행이 없을 수는 없으되 파행도 없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발전은 관행과 파행의 조화의 결과이다. 관행만이 지속되면 발전은 없다. 파행만이 난무해도 발전은 저해된다. 자기 설득력과 정당성을 지닌 파행이 관행을 대치하면서 발전은 이루어지고 그렇게 대치된 파행은 또다시 관행으로 되어가며 또다른 파행을 기다리게 된다.

하나의 관행이 일정기간 이어지면서 파행의 조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건축상제도의 역할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건축상은 모름지기 잘생긴 관행을 찾아 상주기 보다는 파행적 시도를 발굴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관행의 지속이기보다는 이유있는 파행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이유있는 파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한국건축 현실이 이미 갖고있는 관행적 타성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볼때 설득력있는 파행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파행의 시도 자체가 빈곤했기 보다는 설득력의 빈곤이 더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 설득력과 자기 정당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건축계 내부적인 일에 극한되기 보다는 한국 문화계 전반에 걸친 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화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축작품의 파행적 설득력이란 것이 이러한 문화병의 치유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지금 우리에게 깊게 스며들어 있는 관행적 흐름으로서 두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 하나는 서양을 주축으로 한 국외의 건축경향이 우리의 경향을 어느정도 주도하게 되는 대서양적(對西洋的) 영향관계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서양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들여 국내의 현실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고착되어나가는 대내적(對內的) 축적이 만드는 흐름이다.

이 두가지 경향이 어중간하게 만나고 적당히 타협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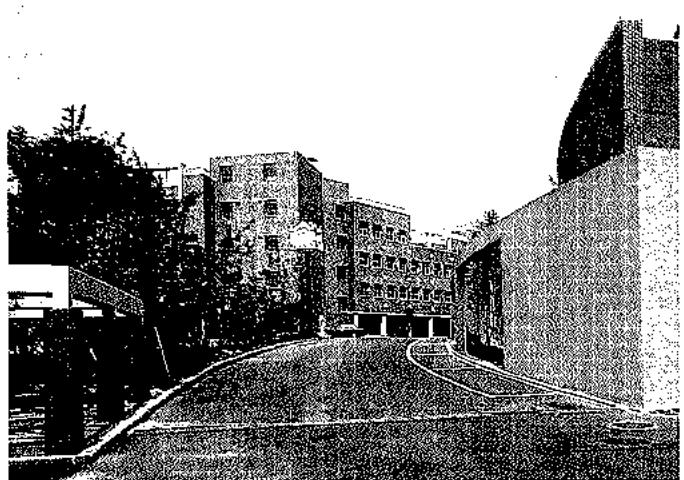
관리동 선큰

선에서 우리 현대건축이 어우르고 있는 것이다. 서양을 흡수하려는 의지는 있되 서양 그대로 흡수되는 것을 우리 현실에 용납하지 않고, 따라서 서양것이 아닌 우리의 경향이 만들어지기는 하되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건축문화는 이러한 두가지 관행의 흐름에 비추어 놓고 그 위치와 가치를 판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 수상작이 민정학원으로 결정되었다. 민정학원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작품이기 보다는 무난한 해결을 도모한 작품으로 보인다. 문제의식에 의한 고민보다는 건축을 현실적으로 끌어내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는 방법과 결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웠다. 동시에 문제제기를 통한 싸움을 걸지도 않았기에 싸울 필요도 없고, 어설픈 모험을 하지 않았기에 흥집힐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한 정도의 성취도 쉬운일만은 아니기에 기본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시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작품의 성격이 앞서 언급한 관행과 파행의 사이에서 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건축적 처리나 전체적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관행적 첫바퀴를 크게 탈피하지는 않는다. 중고등학교의 교실공간구성, 운동장과 건물사이의 분위기 등의 모습에서 보이듯이 관례적인 이미지와 처리방식은 강하게 남아있다.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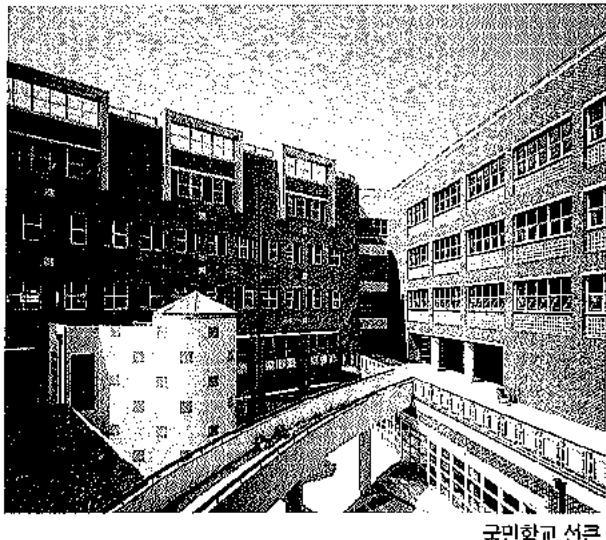
국민학교 진입부

배치계획이나 건축계획에서 흔하게 보이지 않는 시도가 의도되었고 그런대로 성공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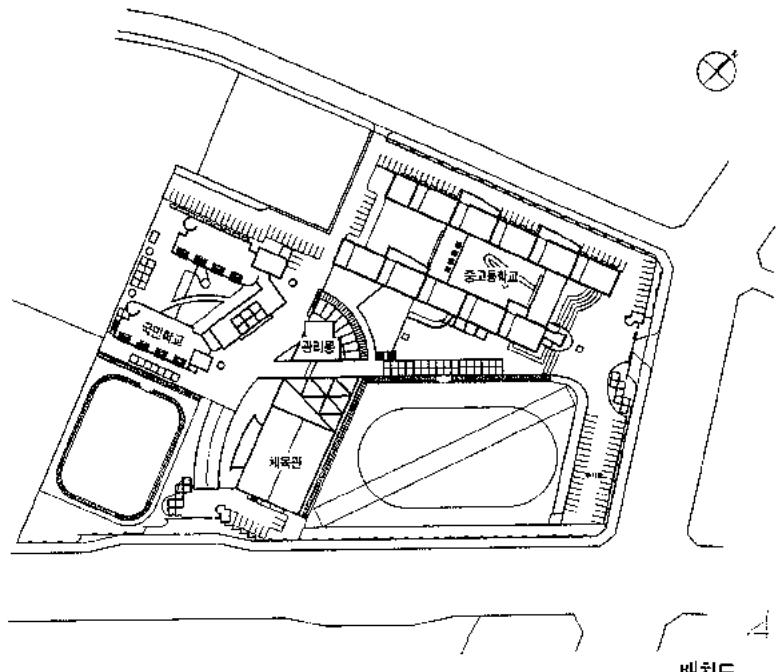
예를 들면 배치계획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긴 교실건물벽을 마주보며 진입하는 식의 일상적 학교계획을 탈피하여 색다른 공간계획을 시도하였다. 배치의 기본원칙은 대지를 접하는 몇개의 가로축을 대지내부에 연장시켜 만들어진 조합으로 보인다. 가로축이 배치의 기본골격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경험되는 외부공간의 형성방법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학교건물의 관행을 부분적으로 깨뜨릴 수는 있더라도 학교교육의 관행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는 바에는 학교 건축이 그정도의 파행을 시도한 것은 의욕적인 태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물에 있어서도 구조나 계획상의 기본 골격이 기존의 학교건축에서 크게 탈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상부의 곡면이 있는 특별교실의 처리, 가벽의 삽입, 보행로상의 가구조물 처리 그리고 노란색이 두드러지는 색채계획 등은 틀림없이 기존의 관행적 틀 위에 얹어지는 파행적 시도이다.

이 작품이 수상작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러한 정도의 파행적 시도가 건축적인 기여로서 인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파행적 시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사람은 있을 것이다. 전체배치에서의 공간적 중심에 서무—이사장실이 있는 관리동이 자리잡고 있는 방식이 전체 대지의 공간적 구심점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다소 산만한 공간들의 집합같은 배치계획이 된것이 아닌가 하는 점, 또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선큰



그리고 관리-체육관등이 벽돌이라는 재료상의 통일성이외에 건축적인 유대관계는 약하지 않는가 하는점, 또 굳이 꼽자면 체육관 입구쪽과 관리동 상부의 콘크리트 뼈대가 너무 불필요하면서도 과대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점 등은 지적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큰가든의 공간 사용적 측면 내지는 노란색 가벽과 건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꼬집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은 지적될 흄이 없다는 것보다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점이 없는 건물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점의 유무보다는 장점의 이유와 배경적 생각을 문제삼고 싶기 때문이다.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이 관행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고 기능수행을 잘하고 있다. 건축적 세련도에 꼬투리잡힐 점이 찾아지더라도 외관상의 변화와 평면계획의 자유로움이 그러한 단점을 덮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류의 이야기가 비평적 내용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논쟁의 연장은 될 수 있겠으나 결말은 나지 않는다. 비평의 관심사는 건축적 결과보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이미 출발점에서 저질러졌고 결정되어 버린 바가 되기 때문이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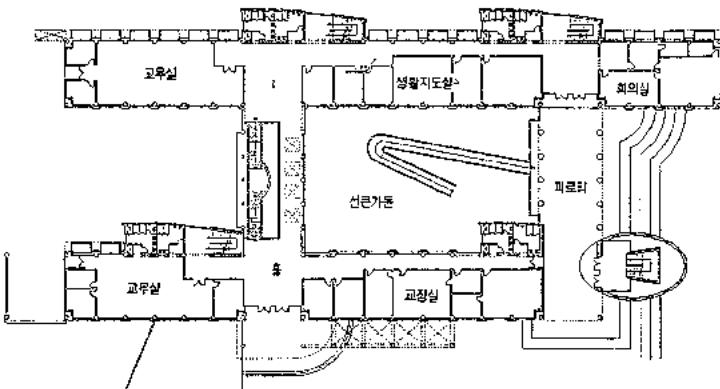
관행의 두가지 흐름중에 서양의 경향에 대한 추종적 영향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분명하다.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따르게 되더라도 주관적 이해와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대내적, 즉 한국식으로 고착되어 탈피를 어렵게하는 관행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새로운 자기창조를 통한 자기극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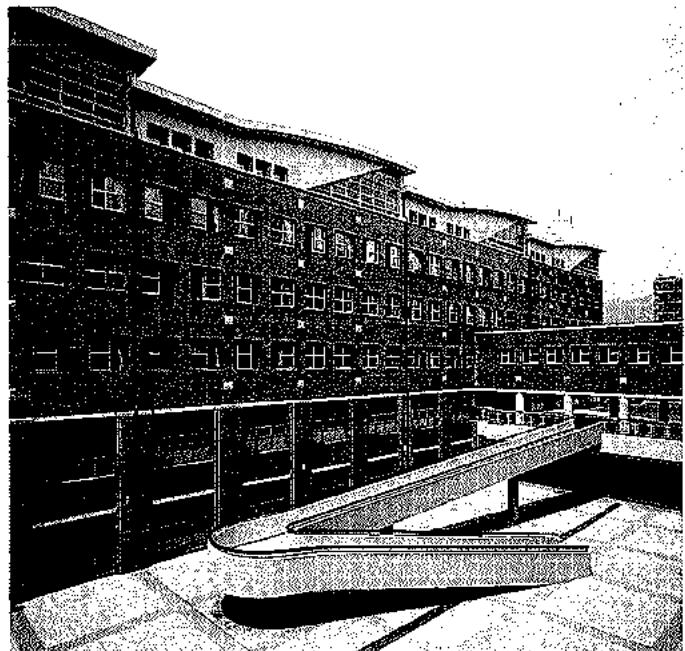
이 두가지 관행은 사실 서로 물려있고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을 빛내내고 있으므로 구별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가지 관행 모두에 대하여 우리는 파행적 시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가치판단은 바로 거기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민정학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싶어진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민정학원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문제의식의 투철성, 시대적 상황에의 민감도 또는 자기이념에 대한 철저함 같은 사유적 이유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능처리, 외관, 형태, 색채 등의 건축적 현실에서 출발된 작품이다. 때문에 그러한 건축적 처리의 성공여부를 논하는 것이 이 작품에 대한 안전한 비평적 범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의 범위를 작품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대와 문화적 의미 쪽으로 무리하게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물속에서의 의견교환에 지나지 못함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민정학원에서의 파행적 성격은 건축가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겠으나 조감적인 눈으로 볼때는 상당히 조심스런 과정이었다. 파행을 위한 과정이기보다는 관행을 인정해야하는 구속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옷을 입힌 그리한 과정이었다. 즉 관행을 파행적으로 꾸미는 방식으로의 파행에 가깝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관행의



중고등학교 1층 평면도



중고등학교 선운

구조를 파행하려한 것이기 보다는 관행의 모양새를  
파행적으로 다듬은 쪽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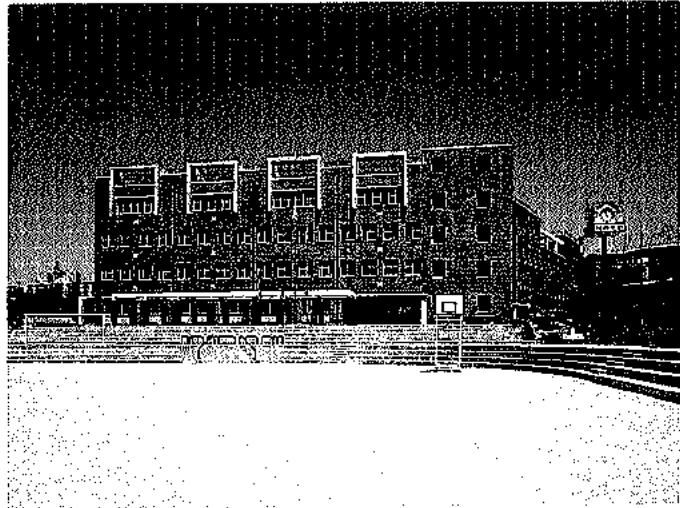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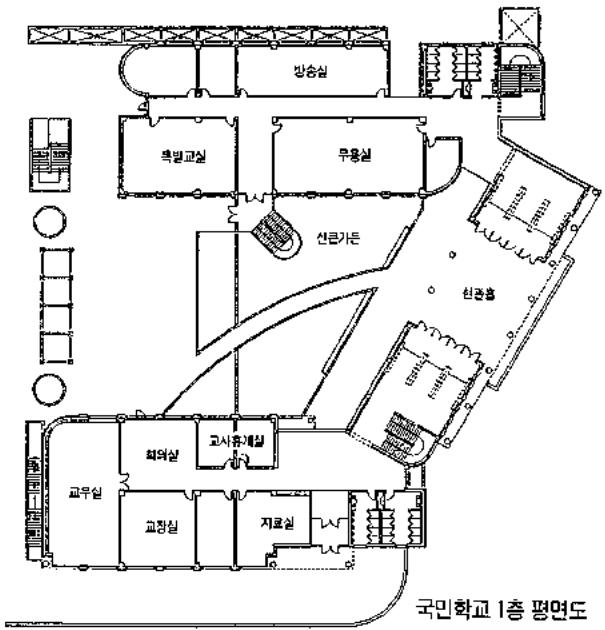
이것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언급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건축에서 관행의 구조를  
건드린다는 것이 다른 종류의 건물에서 보다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은 상상이 간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파행일망정 동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민정학원의 디자인은 비교적 한국적 관행에 더 가깝게  
위치해서 출발한 것 같다. 한국적 관행이라는 말은  
한국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닌 한국적 현실이  
반영된 관행이라는 뜻이겠으나 어쨌든 재료의 선택에서  
부터 공간계획의 근본이 한국에서의 관행적 요구에  
뿌리내리고 있다. 서양에서부터의 영향으로 보이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학교의 선운가든에  
박혀있는 계단실의 노랑고파란색조나, 노란 가벽의  
처리방식, 또 체육관과 관리동의 노출 콘크리트 빼대  
등의 처리에서 어느정도 외래적 냄새를 맡게된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소  
어색하게 벽돌건물에 붙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한 어색한 요소들이 건축가만의 방식에 의해 재처리,  
재구성되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버린 느낌은 약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벽돌건물에 작위적(作爲的)으로  
덧붙여있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유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주조적(主潮的)  
내용으로 파악했다면 이 작품은 의미있는 파행이기  
보다는 남아 하는 식의 멋부리기를 추구했었지  
않았는가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정학원에서는 이러한 외래적 인상이  
외래적인 것으로 심하게 드러나지를 않으며 전체적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는 아니었다.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있는 기준의 관행적  
학교계획에서 출발한 작품이며 앞서 얘기된 노란색의  
덧붙임들은 그 관행속에서의 파행적 성과로서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것들이 스스로 갖는 어색함은  
남아 있더라도 그것들이 한국적 관행의 틀에 얹히워서  
그 관행을 깨는 파행적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색함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러한  
요소중에서 노란색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상부의  
곡선형 특별교실층은 그 파행적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단일하고 강렬한 벽돌일관의 색조와 면적 형태감은  
무엇인가 그 단조로움과 획일적 강렬함을 누그러뜨리고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를 필요로 했고 그 역할을 이러한  
지붕층이나 가벽, 골조 등의 부분이 담당해내었다.  
이러한 덧붙임의 부분들이 자체만으로서는 문제적  
요소가 될 수도 있었으되 벽돌위주의 획일성과  
맞물려짐으로서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래적인 관행이 한국적 관행에 침가되어  
파행의 성격으로 변환되었고 전체적인 관행—파행의  
균형이 잡혀지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을 성공적이라고 평한다면 바로 이러한 노력에  
그 대가를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관행적 타성이 뿌리깊고 저항하기 어려운 성격임을  
감안할 때 고마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학교 전경

그렇지만 이 건물이 거둔 이러한 성과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시도된 과행이 건드리는 관행의 범위가 줄거나 뿌리에까지 미치기 보다는 자리를 건드리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과행은 관행의 내부적 구조를 문제삼는 과행이지 관행의 자기모순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덧붙임의 과행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민정학원을 비난할 의사는 없다. 단지 민정학원은 논할 수 있고 논해야하는 비평적 범위를 어느 선에서 잡아야 하는가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 5.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논할 때 민정학원은 건강한 건축물이다. 불필요한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기에 거부감을 만들지 않았고 지나친 자기주장이 없었기에 싸움판을 벌리지도 않았고, 무리한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괴짜가 되기보다는 모범생이 되었다. 그래서 무난함의 성공작이 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작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무난함은 이미 발표된 작가의 변(辯)이나 심사평에서도 드러난다. 건축 계획적인 내용이 작가에게나 심사자에게나 공통적인 관심사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설계하는 사람치고 건축계획적인 처리에 고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해동안에 한국에 지어진 건물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건축계획적으로 잘처리된 작품을 찾는데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건축계에 문제내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계획적 처리의 잘잘못이 아니고 그러한 건축적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주관적 이유의 문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가시적 결과를 만드는 사유적내용에서 미래의 방향과 의미를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그러한 사유적 내용을 간파하고 가시적 결과를 주요문제로 삼아서 좋을만큼 평이하고 안이해서 좋은 계제는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두가지의 관행적 흐름 속에서 미래에 우리가 서야할 입지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문화적 중병을 앓고 있는 시기에 와 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면 그 시대가 안고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해결을 제시하지는 못 할 망정 문제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민정학원이라는 건물을 논함에 있어서 건축적 처리만을 문제삼기를 원치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민정학원이 제시한 과행적 노력에 대해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동시에 그 과행의 동기와 성격, 그리고 사유적 배경까지도 문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비 가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혼적이 안찾아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혼적이 드러나는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정학원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민에 동참하라고 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민이 부족한 채 지나가려는 시대에 대해서 역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 시대에 이르러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건축사제도

Specialist-Architect System

李廷根/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계획

by Lee, Jeong-Keun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나니 아침저녁 공기가 한층 상큼하다. UR이니 건설업계의 설계권 요구, 건축교육 제도개선, 건축사법, 도서등록제도, 감리제도 등등 건축관계 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한해의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제도판 앞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문건축직능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한데 빼어서 다시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안과 밖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전문건축 직능제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돌출된 문제이기보다는 오랜기간 축적된 원인들의 결과이겠기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건축계 여러 분야의 선후배간에 치혜를 짜내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없이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난마같이 얹힌 바둑의 복잡한 싸움에서도 맥점이라는게 있는데 과연 우리 전문건축직능계의 복잡하게 얹히고 설친 문제에는 맥점이 없을까 한번쯤 희망을 걸어보게 된다.

해마다 찾아오는 건축사 시험 시즌이 되면 사무실마다 수험자들의 휴식과 결원사태로 업무수행이 파행적으로 된다.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건축계의 커다란 손실이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작은병이라고 방치하다가는 끝내 불치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시간과 정신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우리나라의 축성제도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성안에서 적을 맞아 써우는 병사들이 성밖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근심때문에 전쟁을 잘 치를 수 없으니 축성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여기서 축성법에 비유되는 오늘 우리 건축계의 사안은 건축사 시험제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건축설계를 필생의 업으로 삼겠다고 희망에 가득 차 학업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수업을 시작하는 직원들을 보면 꽤 오랜전의 나의 경우가 생각난다. 무언가 멋진 설계를 해보겠다는 의욕과 호기심 그리고

건축가가 된다는 자부심에 가득찬 출발은 바로 현실에 부딪치면서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사람사는 세상에 항상 따라다니는 삶의 조건이다. 하여튼 여러가지 힘들이 복잡하게 얹혀서 작용하는 현실에서 디자인의지란 뚜렷한 선을 그듯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을 죄아들게 만든다. 그리고 설계의 많은 결정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설계하는 행위가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가진 자의 소원풀이를 도와주는 정도이구나 하는데까지 생각이 미쳐서는 그만 의욕이 꺾이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며 그 만큼 나의 일이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은 여지없이 사라지게 된다. 사회에 발을 디디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수업을 시작하는 초년병들을 보면서 내가 겪었던 갈등을 그들 또한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한 갈등의 구체적인 실생활에서의 현상은 사무소의 분위기, 소장과의 관계, 사무실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정 등과 엉켜서 일어난다. 그러나 설계라는 직업관에 대한 확신과 직업의 전망,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만족은 사설상 건축사의 이 사회에서의 역할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건축직능의 사회에서의 역할구조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건축학도들의 직업관을 불안정하게 하는 뿌리깊은 원인이다.

‘건축가’지 6월호 시평에서 김진애 박사는 많은 건축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였다. PA지 2월호에 실린 ‘건축직능은 구원 가능한가?’라는 내용을 우리 사회의 사정에 비추어 반추하며 둔감해져가는 건축인들의 의식에 불씨를 지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건축직능의 문제는 건축직능의 역할구조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로 부유하고 있는 점이다. 많은 건축인이 건축사들이 사회에서 일한 만큼 평가받지 못할

“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느 건축사이건 모든 건축을 다 취급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전문성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문건축사의 영역구분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매우 포괄적일 수도 있고 그 체계에 대한 논의자체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대한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뿐 아니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 대해 줄곧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렇다고 직능을 수행해내는 바탕으로서 설계사무소가 크든 작든간에 직능수행이 안정된 틀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적 기초로서의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아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만큼 건축인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 결과이고 직능인의 장래와 역할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윗글에서 지적된 바처럼 건축계에 대항해서 존재하는 의료, 법무, 엔지니어링 등의 직능계에 비교하면 건축계가 얼마나 전문성의 축적에 소홀하고 대사회적인 역할에 있어 균형있는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건축직능의 대 사회 관계에 대한 적확한 진단없이 현상에 매달려 대중요법을 들고 나와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다. 건축직능의 원초적인 문제는 대사회 서비스 체계의 미문화 상태에 있다. 동일한 건축사가 집짓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하면 이것은 모든 분야가 깊이 전문화되어가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녹슨 칼이다. 원시시대 움막집 짓고 살던 때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땅고르기부터 집칸세우기 및 집안의 가구와 조경 등 모두 한 손아귀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사성이 다르다. 다른 분야가 19세기를 기점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반해 건축분야만은 건축의 예술성이나 건축의 마스터 비율더란 개념에 집착하여 전문성을 축적하지 않았다. 건축에 있어 예술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이 중요할 뿐이지 건축은 건축이다. 전문성을 확고히 쌓아오지 않은 직능분야가 여타 전문성을 쌓아온 연관분야에 영역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건축직능이 영역을 빼앗기고 점점 설 땅을 끌어가고 있음은 사필귀정이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유통이 풍부한 사회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직능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확고하지 않으면 지켜야 할 영역의 경계선도 애매모호한 것이다. 의료계나 법무계,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직능계에서는 고도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종합병원 모델이라는 것도 직능의 전문화가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분화되지 않은 것은 종합해야 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다. 전문화를 추구하려면 그에 따라 교육제도도 체계를 달리해야 하며 여기에 부수되는 연구기능이 뒤따라 주어야 하며 이들은 적절히 건축실무와 상호 연계되어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느 건축사이건 모든 건축을 다 취급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전문성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대 사회적인 서비스의 질이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그 만큼 사회에서의 역할구조가 모호해진다. 사회의 건축직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용역비를 요구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연결고리는 대 사회 건축 서비스의 전문화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건축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의료계의 전문의 제도와 같은 것이고 법무계의 민, 형사 또는 더 세분화된 전공분야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문건축사의 영역구분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공연장, 상업시설, 주거시설, 생산시설, 위락시설 등 한 분야만 깨우칠때도 많은 경험과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나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건축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범하게 되는 시행착오의 대가를 사회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매우 포괄적일 수도 있고

건축의 대 사회 서비스와 전문화가 건축분야의 전문성의 측적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건축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축사제도의 도입은 건축전문인의 대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의 건축사 직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건축교육의 체질개선과 수준향상을 촉발하리라고 예상된다.

그 체계에 대한 논의자체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土'자 붙이는 직능의 종류가 수 없이 많아졌다. 각 직능마다 면허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대 사회 서비스 직능의 분화가 다기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만큼 대 사회 서비스직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사회가 근 반세기에 걸쳐 각 직능별 전문화의 심도를 강화해온데 비해 건축계 내에서의 전문화는 미미한 편이다. 건축직능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매우 다양해졌고 분야별 전문성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능의 전문화는 교육의 전문화와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우리 건축계에 일었던 건축교육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건축설계 교육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건축교육의 개혁이라는 과제에서 설계교육에 중점을 두는 측의 밖에 있는 건축분야에서는 논의의 주류에 대항해서 하나로 뭉치는 현상을 보였다. 어떤 교육이건 전제조건이 전인 교육이어야 하다는 것은 교육이란 의미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여기서 논외이다. 교육을 통해 전문인의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사회의 소용에 닿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구축과 대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를 외면한 채 설계가 중요한가 기타분야 과목이 중요한가 하는 식의 양분된 논리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전문성을 구축하고 건축의 전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분야들이 어떠한 틀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연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가가 발상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비 설계분야가 설계분야에 종속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명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한 것이다. 건축직능의 전문성에 관한한 설계와 비설계 분야라는 분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의료분야에서 사람의 건강을 명제로 어떻게 임상분야와 비임상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임상은 전문성의 적용행위이며 의료행위과정의 한 단면이다. 설계교육이 중요한가 비설계교육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건축직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다.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대 사회 서비스에 보다 철저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 사회 서비스에 철저한 것은 그 만큼 신용을 쌓는 것이고 직능의 대 사회적인 역할구조를 확고하게 한다. 따라서 건축직능에 대한 인식은 뚜렷해지고 영역의 침해에 대한 피해의식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직능의 역할이 모호할 때 직능인과 그 서비스를 받는 사회 사이에 상호 관계가 애매해 질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회박한 애매한 영역에는 다른 분야의 직능이 대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 사회의 각 분야마다 너무 전문화되어 나누어져서 오히려 전체를 못보는 단편적이고 편향된 경향을 우려할 지 모른다. 그러나 분석적이 아닌 종합이란 있을 수 없고 종합적이 아니고서 분석적일 수도 없다. 전문화라는 것은 그 분야의 이해와 서비스의 심도를 깊이하는 것일 뿐 결코 분야별로 허물 수 없는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아파트 설계를 많이하고 병원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전문이다 하는 말이 성립할 수도 있다. 많이 경험한 결과에 의해 그 분야에 익숙하다는 것은 전문성의 의미를 축소 왜곡할 우려가 있다. 건축행위의 기술적인 수행능력에 그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여러 상관관계를 내다보는 이해도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대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와 건축분야의 전문성의 측적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건축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축사제도의 도입은 건축전문인의 대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의 건축사 직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건축교육의 체질 개선과 수준 향상을 촉발하리라고 예상된다.

# 공제조합 설립 연구의 필요성

Necessity of Mutual Benefit Association

姜基世/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Kang, Ki-Se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변하여 가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경제분야는 현저하게 달라져 가고 있다. 공급자 보다 수요자가 우위에 놓이며, 소비자가 평가하고 거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진국 사회 형태로 변하여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너무나 안정된 건설 분위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실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건축사협회는 사실 건축사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기능보다는 창작예술, 저작권, 도서등록, 건축사법 등에 관여하면서 양자의 균형발전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제 건축설계를 건축관계법과 우리만이 강조하는 창작예술품으로 소비자에게 강요하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좋은 창작품을 얻기 위해 현상에 불이는 경우가 다반사 되었고, 설계가 늦어지면 지체보상을 요구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음을 우리 회원들 누구나 실감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속앓이를 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도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설계부실로 책임지우려 하며, 책임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하자로 인한 보험이 있고, 계약행위에 뒤따르는 각종 Bond들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금융실명제 이후 닥칠 경제활동의 선명성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감리비 수수료의 노출문제, 지출비용의 정당성 등 무엇 하나도 등한시할 수 없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회원들은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이나, 아니면 단체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왜 우리는 등한시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저리(6% 수준)의 운영자금의 대출, 설계감리 이행보증, 선금금 또는 계약금 보증 등을, 장기적으로는 설계감리 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공동대처 및 배상처리 등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화 시켜야만 우리 회원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게

설계감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대처행위는 사회를 보다 밝고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하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풍토, 잘못되면 스스로 보상해 주는 사회로 변할뿐더러 개인간의 거래든 조직간의 거래든 재판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전문분야의 협회들은 건설분야만 해도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심있는 회원이라면 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건축사들도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함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나는 이전에도 회원들 간에 공제조합에 대한 개인적인 논의를 해본적이 있다.

어떤 회원은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어느 회원은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반대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회원은 소형사무실이 대형사무실을 돋는 격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즘 몇년사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건축사법개정에 설계하자로 인한 보상이 법으로 대두되고, 공제조합의 설립기반이 법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어떠한 형태의 공제조합이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면을 통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몇자 적어보기로 하였다.

## 공제조합의 역할

첫째, 설계감리계약상 건축주에 대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측이 책임지겠다는 이행보증 업무로서, 현재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기업체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건축사들도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함이 어떨지 재안해 본다.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은 사회 분위기나 건설업계의 당면과제인 부실공사 방지 대책면이나 우리 건축사들의 활동입장에서 볼 때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건축사간에는 이러한 보증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전문 일반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할뿐 아니라 수수료도 전문집단의 공제조합들 보다 2배 가까이 된다. 또한 그러한 수수료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또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행보증을 하게 되면 신용도의 상승, 저작권의 보호, 법률상 계약행위의 인정 등 무형의 이익이 뒤따를 것이다.

둘째, 설계감리업무는 계약서 작성으로 건축주의 건설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그간의 형태로 보아 여러 사무실에 건축계획설계를 의뢰하고, 보수를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던 예로 보아, 선금금이나 계약금을 받지 않고는 설계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선금금 또는 계약금을 받아야 할 경우 지불자(건축주)는 건축사를 법률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약행위에 있어 선금금 또는 계약금에 대한 보증서(계약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하겠다는 내용)를 건축주에게 주는 것이 상행위인 것이다.

셋째는, 설계감리하자에 대한 보증 및 보상문제로 이는 회원들 간에 가장 침예화된 문제다.

설계감리비 2~5%의 금액으로 충실히 설계를 하고, 공사 도중에나 완공후 설계감리의 하자로 거액의 보상을 감당하기란 너무나도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무실이 폐쇄되고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는 연간 외형금액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불하고 사무실의 위험 부담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에 대한 하자보상 요구 소송은 건축주들 뿐만이 아니라 시공자측에서 보다 빈번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을 구성하고 정부당국에 하자 보상에 대한 종류와 경제적인 한계등을 승인받아, 사회에 공표하고,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법률적인 투쟁과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합측이

연구검토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일뿐더러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고 양질의 시공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넷째로, 공제조합에서 회원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설계활동을 하는데 유통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 일반제일금융계에서는 설계감리가 서비스업종으로 구분돼 금융 혜택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타분야의 공제조합에서와 같이 일반금융의 1/2 수준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회원들에게는 최상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로는, 전문집단으로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의 과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연구된 결과를 활용하는 일과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Data Bank의 운영, 설계 소모품 등의 저가 구입판매,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공제조합과 회원들과의 관계

공제조합은 설계감리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단위가 회원이 되며 이 회원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관계가 없다. 다시말하면 차후 개정될 건축사협회의 회원자격은 개인단위의 건축사 자격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공제조합은 자격증을 갖고 영업에 종사하는 영업단위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등록자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이들은 각자 동일한 출자를 하든, 차등 출자를 하든 간에, 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의 출자금을 조성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을 만들고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집행부서가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정부의 관계부처(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 법제처)를 거쳐 각료회의와 입법부를 통과하여 설립됨으로써 우리가 그간에 참여하여 왔던 복지회나, 연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복지회나 연금같은 것은 당사자들 간에 약속에 불과하며 공제조합은 법률로써 보호받는 동시에 법률로써 책임지는 조직적인 것이므로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도 된다.

우리는 공제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실 운영면이나 설계 감리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확보는 물론 건축사들의 안정된 활동, 노후의 대책까지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과 자금과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한부추진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과 배당액 등은 누적되어 영업을 포기하게 될때에는 그 당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회원간에 양도·양수가 될수 있으며, 조합에서 지불받을 수도 있다.

공제조합은 출자된 자본금의 일정비율은 회원금융으로, 일정비율은 금융 및 증권계에서 증식하게 될 것이며, 운영수수료도 수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운영비와 연구비 및 조사비, 조합의 위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재보험비가 발생할 것이며, 폐소보상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명료하게 표현하면 출자자도 회원이며 이용자도 회원들인 관계와, 정신노동으로 영업하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보이는 이익과 보이지 않는 이익을 기술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문제점

우리 조합은 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 아닌 정신노동으로 영위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회원간에 실력차도 있을 수 있다. 이 실력차는 공제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운영면에서 타회원의 지분과 연계된 보험성 운영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회원 각자가 자기 지분한도 및 자기 자산 한도내에서 책임지는 운영방식을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후자의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면 회원들도 평준화되고 조합이 위험부담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며, 자본이 증대되어 건실한 조합으로 운영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건축사협회와 공제조합의 관계

장차 건축사법 개정후 벌어질 정후들을 살펴보아 알수 있듯이, 도서등록 과정을 통하여 연금회비와 실적회비를 징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제조합이 탄생하게 되면 자연히 건축사협회와 공제조합은 공생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협회는 자격증소지자의 모임으로 될 것이며 이들중 영업하는 회원들은 공제조합에 또다시 가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사협회는 자격자들의 신상파악, 회원들간의 친목, 회지발간, 대정부건의, 자격시험관리, 회원들의 재교육, 외국과의 유대, 저작권 문제 등을 주로 담당할 것이며, 공제조합은 설계감리업의 경제활동(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대출)과 설계감리의 하자 방지를 위한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운영비도 건축사협회는 월정회비만으로 운영될 것이며, 사업비 등은 관련기업체 또는 공제조합에서 보조받아 사업을 하게 되므로 건축사협회와 공제조합은 불가분의 관계로 정립될 것이다.

당분간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실적회비 정도의 금액은 건축사회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공제조합으로 일정기간(목표자본금까지) 납부되어야 할것이며, 이 납부된 금액은 소비성 비용에서 생산성비용, 자기지분의 비용으로 전환될 것이다.

## 맺는말

공제조합의 설립 필요성은 사회 분위기나 긴설업계의 당면과제인 부실공사방지 대책면이나 우리 건축사들의 활동 입장에서 볼 때 늦출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공제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실 운영면이나, 설계감리의 질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확보는 물론, 건축사들의 안정된 활동, 노후의 대책까지도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과 자금과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한부추진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 건축사협회는 영업을 하는 건축사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공제조합에 대한 토론회,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자문들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할 수 있도록 11월 정기총회시 추진 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회장, 이사진 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의 건전한 양식으로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나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The Counterpla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과정을 중심으로—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 있어서 개방화, 국제화의 큰 파고 속에 우리 건축설계 사무소의 업무를 외국업체에 잠식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계기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전환기회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知彼知己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좌담회에서는 외국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 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볼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일시／1994년 10월 17일(월) 14:00~

□ 장소／본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이복(예문건축, 시회)

강석원(그룹기건축)

방한영(금호그룹 종합설계실)

윤병완(예일건축)

전태진(예정건축)

최찬환(서울시립대학교수)



이 복

**사회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좌담회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설계사무소가 앞으로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바,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찬 토론을 기대하며, 우선 외국업체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업체의 건축설계과정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전태진 :** 얼마전까지만 해도 설계과정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단계로 세분적으로 나누어지다가 최근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단계로

나누어지는 추세이다. 예를들면 최근 미국의 경우 Schematic Design Phase 15%, Design Development Phase 20%, Construction Document Phase 40%, Bidding or Negotiation Phase 5%, Construction Phase 20%로 공정이 대체로 정해지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작업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이 공정이 조절되고 있다. 각 Phase가 끝나면 건축주의 승인이 받게되며, 이 기간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되고, 이에따라 설계비를 청구하게 된다. 만약 건축주의 승인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주의 책임으로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 각 Phase가 끝날때마다 승인이 성립되어진다는 것인가요?

전태진 :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각 Phase마다 건축주와 구두로 이루어지고 외국의 경우 각 단계별마다 명확히 계약이 성립되어진다. 또한 건축주는 설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결정된 사항에 순수히 응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도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점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축사들은 건축주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과 성실성을 보이고, 쇠선을 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 외국에서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택할 때 문제는 없는가?

전태진 : 미국의 경우 건축사를 선정할 때 건축주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방한영 : 건축주가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대개 건축주가 사내 또는 외부 자문을 통해 발주될 건물설계의 Program 및 예산책정 등 사전준비를 한후에 과거 경력, 평판 등에 의해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처럼 현상설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전문적인 개발회사나 큰 규모의 건물을 설계시공할 때에는 설계서점이전부터 Construction Manager를 기용하여 구조, 설비 등 주요 System 등을 건축사와 협의하여 전체 Budget 및 공기일정까지 건축주를 대리하여 관리하게 한다.

윤병완 : 일본의 경우 건축사의 보수체계나 수준은 현재 우리와 비슷하지만 설계경력별 분류에서는 건축사보는 포함하지 않는 등 인적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설계 과정별 분류에서도 조사연구과정, 전기 및 설비의 기본설계과정 등 좀 더 세분화 되어있는 정도이나 설계사무소의 규모나 체계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강석원

건축사 스스로 pride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UR에 대비해서 건축사 스스로 단결하여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나켄세케이 같은 경우 일급건축사만 600여명 이상 보유하며, 500명이상 보유한 사무실도 10개가 넘는 정도이다.

사회 : 설계사무실의 규모가 모두 큰 형태를 띠고 있는가?

윤병완 : 우리와는 달리 종합건설업법 비슷한 제도가 있어 설계사무소, 주택전문·메이커설계실, 건설회사 설계실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수주내용 및 업무상황 등이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우수한 대학의 설계직 회망자의 70% 이상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안정된 직장으로 건설회사나 주택전문 회사의 설계실을 선호한다. 하지만 근래의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악화로 조직개편 등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 UR에 대해 일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윤병완 : 일본도 개방화나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미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최근 2년간 생활에서 UR에 대한 대책이나 보고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설계부문에서 우리의 경우가 그동안 너무 패쇄적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계에만 국한해 보아도 우리의 사정은 비교적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보다도 외국의 종합건설 서비스가 자금과 합쳐져 노련한 영업 공세가 우리에게 들어 올 때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방 한 영

**빠른 시일내에 상호면허개방(Reciprocal Recognition)을 통하여 초기에는 협력체제로 장래에는 자유경쟁 체제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

방한영 :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에서도 UR에 대비하여 어떻게 우리의 사업에 침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오히려 빠른 시일내 상호면허개방(Reciprocal Recognition)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지금은 선진 유명건축사들이 우리의 중요한 건축설계를 전부 독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겠지만 건축을 너무 몇가지 주목받는 Monument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보다는 초기에는 협력체제로 장래에는 자유경쟁에 의한 실력축적으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어적인 방법은 궁극적 결과를 자연하게 되는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사람의 인적자원과 능력을 생각할 때 진정한 경쟁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불란서의 경우 소규모사무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강석원 : 현재 UR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보다도 외국건축세계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란서의 경우 건축대학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건축사가 됨으로 우리와는 숫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곳에서는 우리와 달리 건축사 면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점이다. 또한 업무분야에 있어서 우리와 많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사는 기본계획만 수행하면 되며, 시공설계와 상세도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의 분담비율이 우리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질적인면에서 보다 전문적이다. 또한 건축사가 설계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작품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외국같은 경우 건축사의 숫자가 많다 할지도 쉽게 개업하지 않는 이유가 보험문제로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쌓은 후에 개업을 하게된다. 부실시공 원인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한편 허가에 있어서도 우리는 Owner와의 계약으로 설계, 감독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전기, 설비, 특수기술은 기술감리의 새로운 Section인 기술감리단을 통하여 건물허가신청시 Sign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상설계에 응모하는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응모케하고 있다. UR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유예기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Committee를 구성하여 확실한 Form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본다.

사회 :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책임분담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다.

최찬환 : 국내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몇가지 이야기 하겠다. 우선 우리 건축설계도서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면표기 요령이나 형식에 있어서 통일되어야 된다고 본다. 예를들면 마감방법, 지정색, 자기질타일이나 시방서에 이르기까지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원인은 재료개발, 재료의 특수성, 재료자체의 고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단계의 일치가 급선무이다.

정부가 KS로 재료의 성능을 보증하고 있지만, 재료자체가 설계 설계작업에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과 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하다. 우수한 디자인의 개발은 설계자의 능력과 기술에 의존되겠지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인력구조는 교육과도 연계되어진다. 현재 우리 건축사사무소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장비와 업계의 필요한 인력요구에 대한 대학교육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국제화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한 이해타산적으로 설계사무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인력의 개편 작업을 건축 3단체(사협회, 학회, 가협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정리작업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작년에 건축사 인력수급 현황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사에게 부여되는 수주량에 비해 보조원자체가 현실적으로 적게되는 가현상을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도면의 생산성에서 뒤떨어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보수요율을 똑같이 획일화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건축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호텔, 학교 등으로 전문화를 이루도록 설계업무에 대한 보험 보장제도도 준비해야 되며, 건축사가 인허가 등 부수적인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지 말고 설계본연의 업무인 디자인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방한영 : A.I.A(미국건축사협회)의 역할은 우리나라 건축사협회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표준업무 Manual, 각종 Service 계약서류, 시공계약 등의 표준 Format 등을 공급하며, National Convention과 지부(Local Chapter)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Guide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처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Lobby 활동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AIA 설계계약 서류에는 건축인허가는 건축주의 책임이고 건축가는 필요한 도서작성을 제공하여 협조를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미국의 건축학위는 최근에는 모든 Major University에서는 6년의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주므로써 Professional Degree로 인정하며, 4년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Environmental Design학사 등의 명칭으로 전문학위로 인정치 않고 있다.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Professional Degree를 얻기까지는 대개 8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이 건축이 상당히 복합적 지식이 요구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학외에도 법률, 사회, 경제, 심리학 등 많은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자면 4년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찬환 :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설계에 대한 보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한영 : 우리나라에도 Professional Malpractice Insurance가 곧 도입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를 많이 낸 사람과 무사고 운전자와의 보험료를 차등하듯이 보험료가 설계사무소의 경력(Track Record), 업무내용(Types of Building 등), 업무량(설계가격 기준으로) 등에 의해 결정되고 처음 설계사무소를 개업하는 사람이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정수되고 심할 경우에는 보험을 살 수가 없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보험 회사에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기도 한다.

사회 : 외국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본다면, 건축사를 전문화시키는 건축주가 된다. 그러면 표기방법의 표준화와 외국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국내 건축설계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강석원 : 우리나라는 도면작성시 건축자재나 공법에



윤 병 원

우리 도면의 CAD화 수준은 낙후되어 있지 않다. 사무소별로 전문화하고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특정회사의 이름과 제품을 명기할 경우, 건축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외국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국내에서는 KS라는 품질표시가 있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덴마크의 경우 오래전부터 건축사가 설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침서를 준비해 주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각 사무소마다 독특한 Style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 Number를 제외하고는 국제화하기 위해 표준화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전태진 : 우리 사무실에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으나 앞으로는 Detail Book(상세도)를 만들어 반복되어 사용되는 상세도를 모아서 도면의 참고번호로서 필요한 상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정리중에 있다. 미국의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찬환 : 건축사의 수요인력에 있어서 한쪽에서 고집하고 있는 타성이 문제이다.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제도권의 오랜관습을 배제해야 한다. 설계사무실에서 업무를 수주했을 때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비가 각각 다르다. 기본설계, 계획설계는 보수로 책정이 안되어 있으며,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계적으로 어렵고 힘이드는 실제 작업에 따라 보수요율을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의 일정한 수급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전 태 진

**기본계획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반복되는 과정을  
최소화시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

**방한영 :** 최근 조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건축과를 졸업한 수에 비해 너무 적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설계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면허제도가 사법고사를 위시하여 최소인원을 합격 시킴으로서 사회발전의 속도를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40~50%는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행사로 건축사시험 기간중 인력고갈이 생기는 문제 등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면허는 특권이 아니고 최소의 자격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회 :** 일본의 건축도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윤병완 :** 물론 캐드(CAD)가 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100% I.B.M계의 AUTO-CAD가 아닌 자국 독자 시스템에 의한 캐드 소프트(CAD Soft)가 대부분 사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물의 세분화는 자연히 전문화가 요구되어져서 학교 교수진의 전문화는 학생들이 계열화되고 회사내에서도 부분별로 전문화되어 양성되어 취약부분은 다시 사원을 대학으로 보내짐으로써,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전문화된 산학 협동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 :** 건축설계의 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건축주의 생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건축가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문제해결과 개선을 찾아야 겠다고 생각한다.

**강석원 :** 설계문제도 질적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현상설계경기가 남발되고 있으며, 국내 현상설계 경기 이전에 우리 건축사들은 너무 서비스 정신이 강하다. 우리 스스로가 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스스로 Pride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R에 대비해서라도 건축사 스스로 단결하여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태진 :** 설계과정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시 설계단계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상세도 작성 과정을 최소화시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CA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현재 미국의 많은 설계사무실에서 제도판이 없어지고 Computer Station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있어서 협회가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자료의 정리와 새로이 개발된 사항들은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용역을 주어 얻어진 자료를 회원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찬환 :** 해외 진출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설계분야이다. 따라서 해외설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내적으로 취약분야가 주택설계분야로 주거용 물량이 53%를 차지하되, 표준화된 주택물량 공급은 시정할 때이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설계문화를 창조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내 설계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전문가 집단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되리라 보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본다.

**전태진 :** 공조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A.I.A라는 조직이 있어 건축가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결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기구로서 모범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A.I.A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우 건축사협회, 건축기협회, 건축학회의 3단체가 있어 어떻게 보면 건축계가 분열된 인상을 주기도 하나, 이미 이루어진 3단체가 서로의 성격을 잘 살려서 각기 맡겨진 역할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협력하여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외국 건축도서와 차이점을 비교해볼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방한영 :** 여러가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공 품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자 및 하청업자가 Shop Drawing을 제작하지 않아 설계와 시공간의 최종 Coordination의 과정을 빠뜨리므로 생긴다고 생각되며,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강석원** : 외국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는 전부 건축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주로 Client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대다수이다. 국내, 외의 도면비교는 앞으로 이와 같은 토론회에서는 직접 도면을 준비해서 자세히 서로 비교하여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사회** : 결론이 바로 표출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제기를 통해 결론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병완** : 외국의 경우 일반 주택설계분야는 주택전문회사에서 가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상해서 만든 상품화된 주택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부분만을 예로 들어보면, 자금과 조직이 잘 갖추어진 주택전문업체에서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까지 예상 가능한 조건에 따라 각종 설계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다. 그 조건들이란 건축주의 성향(개성적, 합리적, 보수적, 절충적)에 따라 외관, 규모별, 진입로별, 평당 공사비별로 개발하여, 한 회사에서만 당장 출력해 볼 수 있는 것만 수백종이 넘는 상황이다.

지금도 우리 도면의 캐드(CAD)화 수준은 낙후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사무소가 전문화되고 연구개발의 여력을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방한영** : 건설회사의 건축설계업 진출은 각 분야마다 경쟁력 제고를 생각해 볼 때 어불성설이며,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와의 업역구별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특별업무인 단지계획, 업체선정, 설계비, 음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최찬환** : 계획, 실시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화 했으면 한다. 주택같은 경우 건축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문화의 올바른 창달을 위해서 앤리트 집단이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된다고 본다.

**윤병완** : 최근 대규모 APT단지의 설계시 마스터 아키텍트(Master Architect)제를 도입하여 마스터 플랜 중 특히 경관에 관한 사항과 섹터별로 설계를 진행하는 사무소를 콘트롤하는 역할을 원로 건축가에게 별도로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찬환** : 여러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협업을 해도 여전히 안되는 경우가 문제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최종 상품은 설계도면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고품질의 설계도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외형적으로 인력구조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과 기술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사협회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조직의 정화능력을



최 찬 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데는 전문가 집단이 입장서야 하며, 국내설계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는 인식의 전환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배양할 필요가 있다.

**전태진** :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면서 자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Licence를 가지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 경험을 쌓은 후에 Associate 또는 Partner가 된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점을 추구해야 되리라 본다.

**최찬환** : 건축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능력인정에 대한 자격제도이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우수한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차원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많은 수의 건축사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한영** : 우리나라에는 건축의 인허가과정에 각종 심의가 많이 있는데 제출자가 Presentation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엉뚱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가끔 본다. 제출자와 심의자간에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찬환** : 소규모 주택건물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능한시하고 있어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교수들도 학생들과 실무교육의 일부로 보아 실무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산학협동이 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을 하여 설계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 :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이 토본내용이 앞으로 건축설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믿는다.

# '94 북유럽 건축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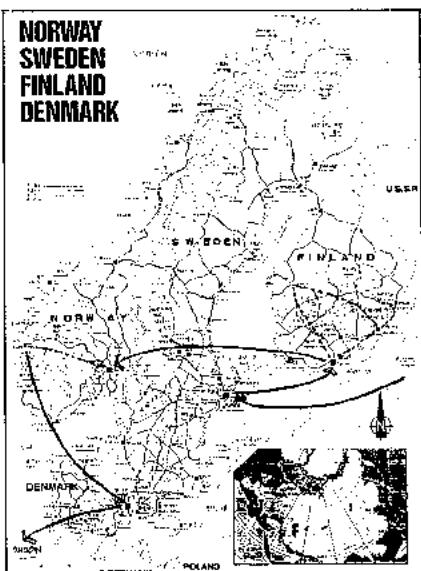
Euro-Archi-Tours '94

朴在煥/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by Park, Chae-Hwan

## 목 차

1. 여행기획
- 2 ALVAR AALTO의 작품들
3. 교회건물들
4. 에필로그



## 1. 여행기획

건축가들이 어느 도시나 특정 건물을 건축순례의 주요한 대상으로 정하여 답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달하는 건축적 특수성으로 넓은 의미로서는 「자연과 건축」 「건축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건축이념과 그곳에 담겨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현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작년(93년도) 여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 도시들과 수많은 건물들을 그룹으로 건축기행(Archi-tours) 한 바 있는 필자는 금년에는 북유럽(스칸디나비아 4개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박18일)의 일정으로 짜여진 이번 건축기행은 근대건축계의 거장 중의 한 분인 핀란드의 건축가 Alvar Aalto의 작품들을 답사함이 주목적이었으나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주변 3개국의 근대건축물과 현대건축물들도 겸하여 답사하였다.

안영배(서울시립대), 윤도근(홍익대) 두 교수 주관하에 준비되고 계획된 이번 북유럽의 건축기행은 첫 번째 방문국인 Sweden의 Stockholm을 시작으로 하여 Finland의 Helsinki, Imatra, Jyväskylä, Seinajoki, Tampere 와 Norway의 Oslo, Denmark의 Copenhagen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도 기행한 바 있던 영국의 London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London을 제외하고는

방문 대상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북유럽에 위치한 지역이기에 여행할 기회가 좀처럼 쉽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특이한 자연환경과 국민 소득이 높고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는 일반적인 사실과 함께 이를 국가들에도 개성이 특출한 현대 건축가들과 건축사적인 면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훌륭한 건물들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건축가들은 Finland에서는 근대건축의 거장인 Alvar Aalto를 비롯하여 Reima Pietila, Eliel Saarinen, Denmark에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로 유명한 Jorn Utzon과 Rodovre 시청사에서 볼 수 있는 유럽에서 가장 순수하고 극적인 기계미학을 추구한 Aage Jacobsen, 그리고 Sweden에서는 북극해 Lulea에 지하 쇼핑센터를 계획한 Ralph Erskine 등 많은 건축가들을 꼽을 수 있다.

이번 건축기행에서는 이들 건축가의 작품 이외에 건축사적 측면에서 평가 받고 있는 건물들(그룬트위그 교회 : 1918~40 건축가 P.V.J Klint)과 건축적인 작품성이 높은 건물들(숲속의 회장터 : 1935~40 건축가 Gunnar Asplund), 건축가가 아닌 장인들에 의해 지어진 헬싱키의 연립주택들과 가장 최근에 완공을 본 런던의 Liverpool Street Station에 이르기까지 근대와 현대의 건축물 약 90여 개를 답사하였다.

이들 건물들 중 Alvar Aalto의 작품들과 개성이 서로 다른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된 교회건물 몇점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 본다.

## 2. ALVAR AALTO의 작품들



알바 알토

월터 · 그로리우스를 비롯하여 후랑크 · 로이드 · 라이트  
미스 · 반델로에, 르꼬르뷔지에 등과  
같이 20세기 건축계의 Master  
Builder로서 근대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가의 한 분인 Alvar Aalto가 설계한  
작품들을 직접 답사하는 동안에는 늘  
가벼운 설레임과 흥분된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힐 수 없었다.

25세의 짧은 나이의 건축가로서  
본격적인 건축설계 활동을 시작한  
1923년부터 1976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하기까지 5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건축적 생애를 통해서 완성된  
주옥같은 작품들은 이미 작품집이나  
여러 서적과 잡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건물들이지만 아마

건축가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의 작품들을 보고 싶어하는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

월터 · 그로리우스, 미스 · 반델로에,  
르꼬르뷔지에들이 20세기초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를 건축이념으로  
하여 소위 국제주의 건축양식을 전  
세계에 만연시키면서 냉철한 논리와  
계산된 기계미, 그리고 순수한 형태의  
매스와 조화로 통일된 질서를 부여한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알바 · 알토는  
후랑크 · 로이드 · 라이트처럼 자국의  
민족성과 지방성을 추구한 유기적인  
건축물을 설계하였지만 알토는 특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휴머니티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시대에 뒤쳐지지도 않고 유행에  
얽매임도 없는 독자적인 건축가의 길을  
걸었기에 다른 거장들이 받고 있는  
건축적 평가나 존경 못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음악가 시베리우스와 함께  
핀란드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을  
받으며 화폐에도 그의 초상화가 담겨져  
있을 정도로 神格化되어 있는 그는  
건축가로서 가장 펁란드를 사랑했고  
핀란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진정한 예술가였다.

이번 펁란드에서의 건축기행은  
5박6일이라는 짧지 않은 일정으로 짜여  
있었는데(물론 이 기간 동안 알토의  
작품들만 답사한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에 산재하여 있는 그의 작품들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헬싱키시를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 몇개씩 몰려서  
위치하고 있었기에 많은 건물들의  
답사가 가능하였다.

가장 초기의 작품인 1920년대의  
근로자 회관과 무라메 교회를 비롯하여  
그의 대표적 작품중의 하나인  
1950년대의 Säynätsalo Town Hall과  
Vuoksenniska 교회 그리고 말년인  
1970년대의 펑란디아홀에 이르기까지  
18개나 되는 작품들을 답사한 것이  
숫자적으로 많기는 하였으나 한 건축가  
작품을 이렇게 많이 기행하기도 쉽지  
않은 기회이기에 피곤한 줄도 모르게  
쫓아나녔다.

핀란드에서의 답사코스는  
헬싱키시를 기점과 종점으로 하여  
Imatra → Mikkeli → Jyväskylä →  
Seinajoki → Tampere → Tapiola →  
Helsinki로 이어진 삼각형 모양의  
여정으로 이루어졌는데 답사한 알토의  
작품들을 방문지역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Imatra-① Vuoksenniska 교회(1956-58)  
Jyväskylä-① 노동자회관(1924-25)

- ② 무라메 교회(1926-29)
- ③ 교육대학(1953-57)
- ④ Säynätsalo Town Hall(1949-52)

⑤ Alvar Aalto

Museum(197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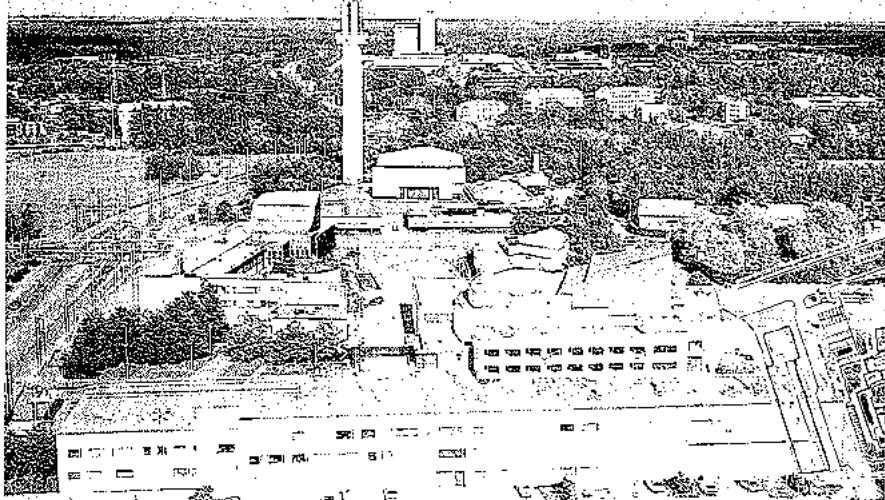
- ⑥ Town Theater(1982)
- ⑦ 중부 펑란드 민속 박물관(1959-62)

Seinajoki-① Town Hall(19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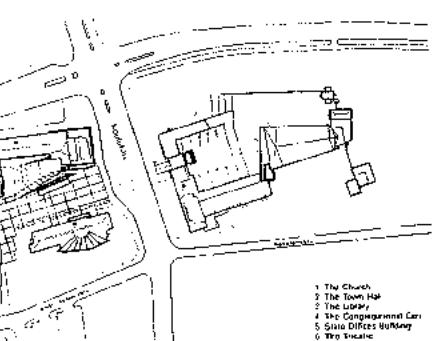
- ② Municipal Library(1963-65)
- ③ Pavochial church

(교구교회 1958-60)

Helsinki-① Rautatalo Office Building(195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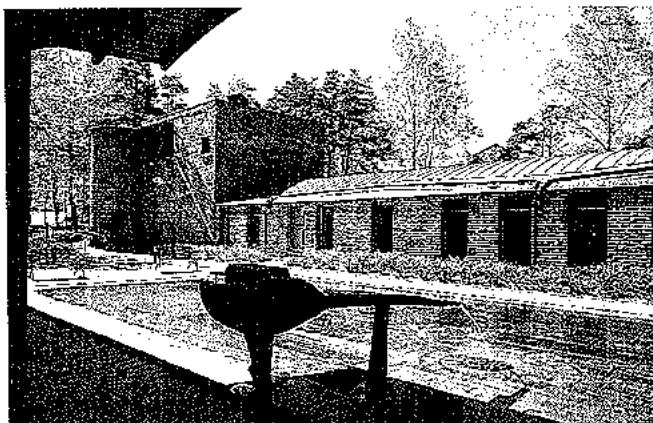


Pavochial 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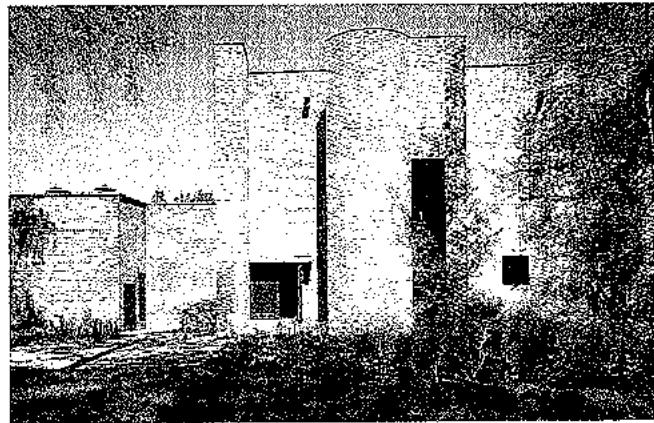


Pavochial 교회 평면도

1 The Church  
2 The Town Hall  
3 The Town Council  
4 The Congregational Center  
5 City Offices Building  
6 The Theatre



Markus 교회



Markus 교회

- ② Architect Studio(1956)
- ③ House of Culture(1955-58)
- ④ 편란드 공과대학(Otaniemi 위치 1955-64)
- ⑤ Enso Gutzeit Building(1959-62)
- ⑥ Akateeminen Bookshop(1956-69)
- ⑦ Finlandia Concert Hall and Congress Hall(1967-75)

그의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형용할 수 없는 감흥을 느끼면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주의를 기울일수록 얼른 포착되지 않았던 건축적인 요소들이 작품 구석구석에 산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보완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lvar Aalto의 작품들에 나타난  
독창적인 건축개념들을 살펴본다.

#### Image Sketch

때로는 뭉개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지만 윤곽을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몇 개의 가는 선들이 수없이 중복되게 그려진 Sketch는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은 상상력을 일으키게 한다.

Vuokseniska 교회를 비롯한 몇몇 건물의 초기 Image Sketch는 Free-hand로 자유스럽게 그린 것이지만 완성된 계획안들과 비교하여 보면 초기 구상 내용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일치되고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속의 추상적인 내용이 Sketch에 의해서 건축적인 접근이 시작되고 평면과 형태와 공간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성의 작품으로 도출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알토의 작품들이야말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예술품이라 생각된다.

모든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어 나타나는 Sketch의 표현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알토가 의도하고자 하는 상상력이 넘치는 건축언어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하겠다.

#### 직선과 사선과 곡선의 하모니

알토의 수 많은 작품들을 한데 모아 연대별로 축소하여 정리한 건물의 평면도를 들여다 보면 장방형이나 정방형 모양의 구형으로 구성되어 경직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물들은 몇개에 불과하고 많은 건물은 다양한 평면을 갖고 있다.

직선과 사선 또는 곡선들이 적당히 배합되어 조화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일그려지기도 하고 물결치는 모양이 되기도 하고 부채꼴 형태를 만들어 때로는 날카롭게 예각을 이루고 때로는 부드러운 원호를 만들어 유연성을 갖게 한다.

평면도에 있어서 벽면의 선들이 서로 평행을 이루지 않고 비뚤어지고 일그려져 있어도 실제 건축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시각적으로 말하자면 평면도는 思考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 일단 벽체들이 내부공간의 디바이더로서 세워지면 건물의 기능이나 사용상 또는 공간인식에 아무

장애적인 요소가 안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은 한편으로는 형태를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어긋나게 하고 있다.

Otaniemi에 위치하는 편란드공과대학의 본관건물은 내부강당은 곡선형태의 평면이지만 외부형태는 피라미드형의 역삼각형을 구성함으로써 긴장감과 생동감을 함께 주는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건물이라 하겠다.

때로는 많은 건물에서 천정면을 자유로이 조형하는 기법으로 불결같이 과형을 이루며 굽이치는 천정형태는 음향효과와 함께 미적요소로서도 사용되는 알토건축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다.

#### 빛과 채광방법의 다양성

어느 건축가들도 그렇게 많은 작품에서 빛의 도입을 다양하면서도 풍부하게 도입하고 있지 못하다.

답사한 많은 건물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교회(Vuokseniska 교회, Parochial 교회), 사무소건물(Rautatalo 빌딩, Enso Gutzeit 빌딩), 도서관(Seinajoki 시립도서관), 대학건물, 스튜디오, 박물관 등 건물의 다양한 기능과 용도에 관계없이 천정과 높은 벽체의 고창을 통해서 빛들이 들어오고 있다.

천정에서는 원통형이나 원추형이 무리진 형태로 또는 다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개구부를 통해서 빛이 쏟아지고 고창으로는 벽면상부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또는 불규칙한

형태로 구성된 창문을 만들어 빛을  
끌어들여 건물의 내부공간을 늘 밝고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핀란드가 북국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하절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초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오후 서너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또한  
밝게 개인 날이 많지 않기에 빛에 대한  
연구는 알토의 작품에서 중요한  
건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풍부하면서도 화사한 그렇다고 너무  
넘치지도 않는 빛의 양과 절은 건물  
내부공간에 부드러움과 명쾌함을  
주면서 이용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빛은 알토 전축의 중심적인 주제중의  
하나이며 북구 사람들의 햇빛에 대한  
동경으로 여겨진다.

**진정한 휴머니스트로서의 창조자**  
알토의 위대함중의 하나는 그가  
태어난 핀란드의 대지와 자연과 민족에  
뿌리를 박고서 그 바탕위에서 모든  
건축활동을 진행시켜 조금도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한 것과 다른 하나는  
가장 변화가 풍부한 건물형태를  
만들면서 다양한 공간을 창조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주변환경과 융합되도록  
냉철한 이성보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으로 풍성함과 여유가  
있으면서 인간을 위한 유기적인 건축을  
만들었다.

“유기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다양한  
작품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하겠으나 Louis Sullivan이 「유기적이란  
살아 있다는 것,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란 주장이나 Frank Lloyd  
Wright의 「……사고와 감정이 하나가  
되려는 발전과 같은 것이다」라는  
사상에서 이해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의 작품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실내의  
집기나 조명기구, Handnail, door  
Handle, 유리화병, 텍스타일 등  
독창적인 제품의 개발은 문화생활의  
풍요로움을 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진면을 보여주고 있다.

### 3. 교회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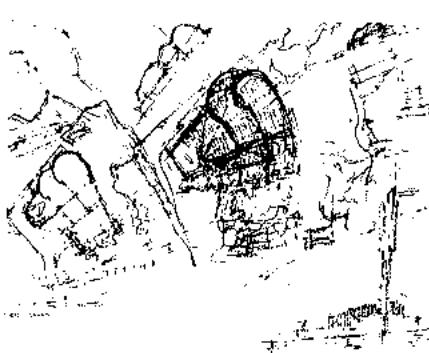
평소 교회건축에 많은 관심과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는 이번  
건축기행에서도 많은 교회건물들을  
답사할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Engelbrekts 교회와  
Markus 교회, 핀란드에서는 알토의  
작품인 Vuoksenniska 교회,  
Parochial 교회, 무라메 교회, Pietila의  
작품인 Kalevan 교회와 Hervannan 교회,  
그 밖에 암석교회와 Tapiolan 교회,  
덴마크에서는 Bagsværd 교회와  
Grundtvigs 교회, 노르웨이의  
목조교회로서는 1150년경에 세워져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Stave  
교회(Borgund 위치)그 밖에 Tampere  
대성당이나 Helsinki의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고전 양식의 교회는 고전의 모습으로  
근대와 현대에 지어진 교회는  
modem한대로 각기 특징을 갖고 있었고  
특히 현대 교회건물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교회모습을 본 것이 이번 여행에서  
얻은 수확중의 하나였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현대교회들은  
로마네스크, 고딕 또는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의 양식이나 석민지시대의  
건축과 같은 과거의 교회양식들이  
모방되어 지어진 교회들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교회건축이  
부지, 기후, 주변환경, 지역성이나  
전통성과 현 시대상에 맞는 교회의  
역할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다각도로 수용되고 충족시켜야 하기에



Vuoksenniska 교회의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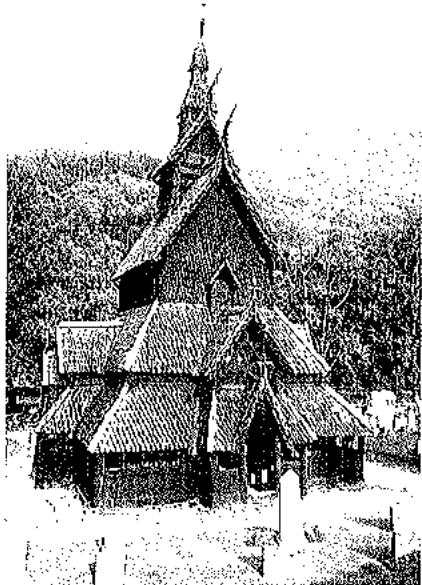
설계하는 건축가들 뿐 아니라 주관하는  
성직자들의 전취적인 사고와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에 교회건축이  
어떠한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얹매이지  
않은 이유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독창적인  
모습의 교회도 적지 않으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같지 않게 보이는  
결과도 놓게 하거나 외부에 장식된  
십자가나 간단한 형태의 종탑만 없다면  
과연 교회건물일까”하는 의구심도 갖게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느끼는  
예배공간의 경건함과 성스러운  
분위기는 크리스챤이건 아니건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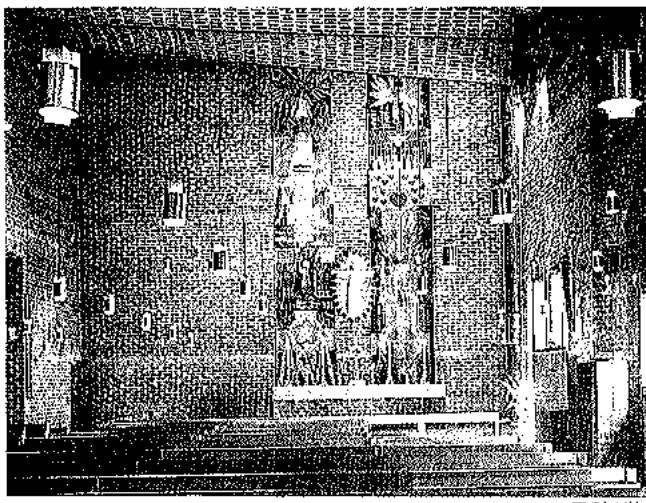
어느 특정한 양식이 있을 수 없는  
다양한 현대의 교회상은 건물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공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교회는 그 당시에  
있어 가능한 한 현대적이었다는 사실과  
과거와 현대의 유명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것은 이 모든  
교회들이 지난 시대의 어느 교회의  
양식이나 형식도 근본적으로 모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사한 많은 교회 건물중 각기  
특성있는 교회 형태와 극적이고 독특한  
내부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교회 몇개를  
살펴본다.



Stave 교회 전경



Markus 교회 내부

### Markus 교회 (1963-66)

건축가 : Sigurd Lewerentz

위치 : Stockholm (Sweden)

스톡홀롬시의 남측교외에

자작나무들과 백백하게 들어찬 숲속에 위치한 이 교회는 스웨덴에서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 현대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이번 건축기행에서 현대 교회건물로는 제일 처음 담사한 이 교회를 보는 순간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파벽돌 같은 느낌의 붉은 벽돌에 흰색의 무디고 뭉개진 것 같아 거칠게 시공된 줄눈으로 외벽면을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은 백색의 곧게 뻗은 자작나무들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주변환경과 그렇게도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건물내부 역시 모든 벽면들이 외벽과

동일한 벽돌과 줄눈모양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Box형의 예배공간에는 제단벽면위로 예수의 일생이 묘사된 Tapestry 장식이 길게 두줄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천정도 벽면과 동일 Pattern의 마감재료가 굽이치는 Vaults 형상으로 구성되어 부드러움을 주고 있다.

중정에 "mirror pond"라는 직사각형의 얇으막한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일자형의 좁고 긴 관리동 건물과 L형태의 교회와 부속용도로 쓰이는 이 교회야말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함께하는 교회로 생각된다.

### Bagsværd 교회 (1974-76)

건축가 : Jørn Utzon

위치 : Bagsværd Hovedgade

(Denmark)

시드니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Jø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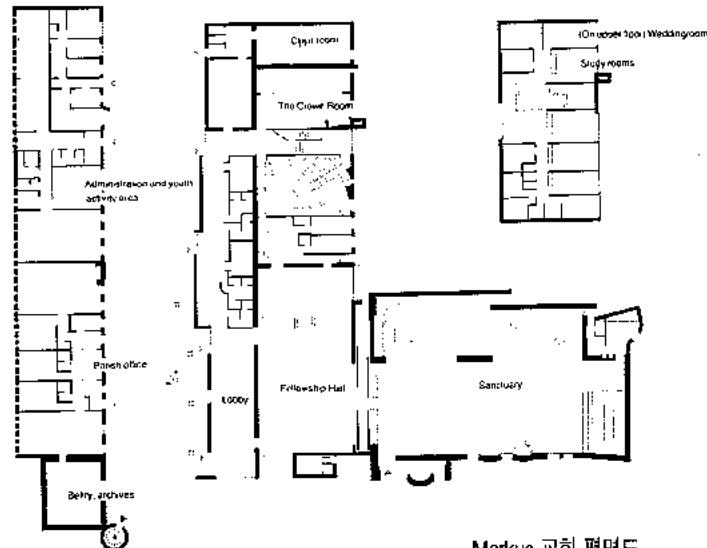
Utzon이 설계한 이 교회를 그 외관 형태만 보고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 수 없다.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중복된 쉘 형태의 청순하고 날렵하기 조차한 순백색의 조개껍질이 세워진 것 같은 강한 오페라 하우스의 인상때문일 것이다.

3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좁고 긴 장방형의 플래트한 대지위에 얼핏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싸구려 담장벽이나 쓰이는 포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이 수평으로 붙여진 벽면들과 동판과 유리로 덮힌 좁고 긴 박공지붕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흡사 꼭두창고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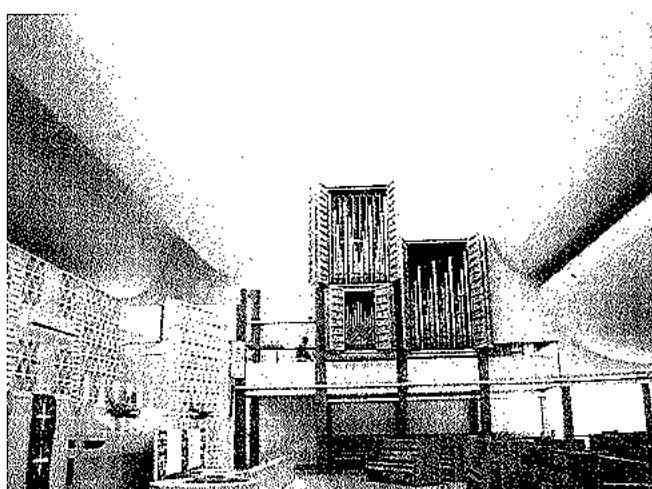
건물전면의 정원을 끼고 좌측으로 조그마한 Chapel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좁고 횡으로 긴 전실이 나타나게 되고 예배실에 들어서면 외관하고는 전혀 다른 Utzon다운 조형성의 내부공간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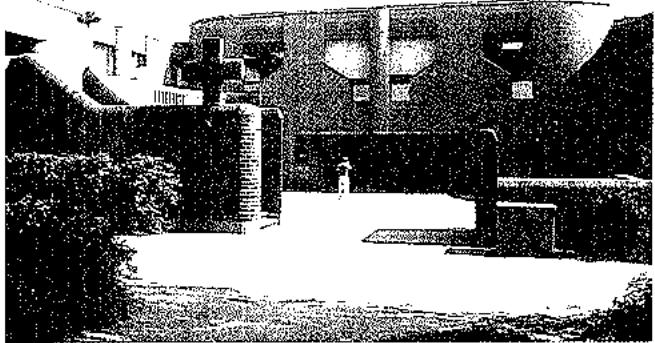
Bagsværd 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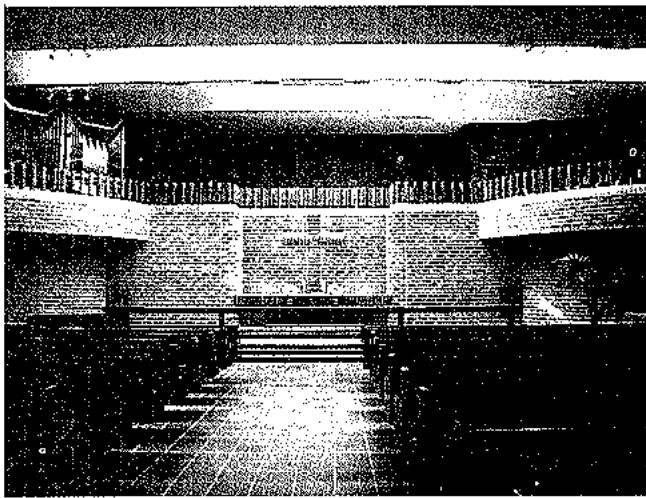
Markus 교회 평면도



Bagsværd 교회 내부



Hervanta 교회 전경



Hervanta 교회 내부

정방형에 가까운 Box형의 단순한 벽면으로 구획된 예배실내부는 천정의 형태가 높고 낮은 과도하는 곡선형의 부드러운 형상을 이루고 있어 풍부한 공간의 변화를 인식한다.

한편 신자석 상부에서 가장 높은 굽은 천정에서는 측면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기복있는 천정면을 반사하여 전면의 낮은 제단부분까지 은은하게 전달되고 있다.

높이가 낮고 수평으로 긴 제단벽면들은 X형자의 구멍뚫린 격자그릴로 구성되어 단순한 내부벽면들을 변화를 주고 있으며 온통 백색으로 마감된 천정과 벽면들은 예배공간들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예배실 못지 않게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물들과의 유기적 연결에서도 구석구석 맑고 화사함을 느끼게 된다.

본 예배실과 부속실들을 잇는 길가로

배치된 좁고 긴 3면의 복도는 도로의 소음도 차단시키면서 △형의 좁고 높은 천창에서 흘러 들어오는 햇빛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고 건물내부의 중정과 Open Space로 쓰이고 있는 다목적 홀도 사방이 막혀 있으나 천창과 연결된 부속실로 훌륭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 교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성직자 신자들)은 건물외부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생동감 넘치고 온화한 내부공간의 인식을 통해서 속세와 하느님 나라를 동시에 체험한다고 하겠다.

이 교회를 방문하여 내외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동안 성직자 한 분이 파이프 올렌으로 조용한 성가곡을 계속 연주하여 주었던 모습은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베풀어진 부언의 환영인사였음을 기억해 본다.

Hervanta 교회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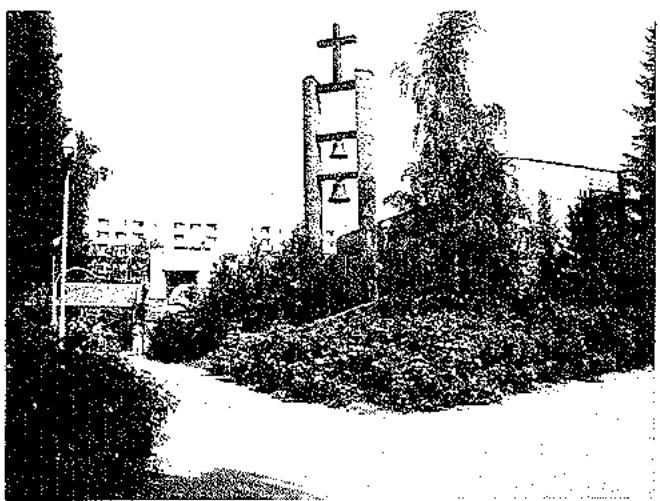
건축가 : Reima Pietila

위치 : Tampere(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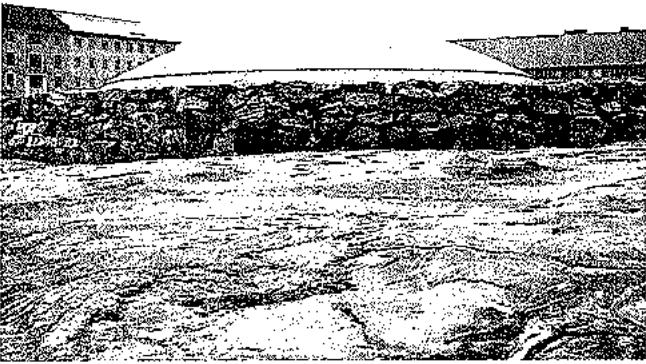
현지 guider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이 교회는 Tampere에서 Pietila 설계의 Kalevan 교회를 남사하러 가는 도중에 들르게 되었다.

핀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인구가 약 8만명 정도인 Tampere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Leisure Center로서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이 건물은 입구광장에 조그맣게 벽돌로 세워진 십자가와 본건물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2개의 독립된 붉은 벽돌로 기둥을 만든 종탑만 쉽게 발견할 수 없다면 얼핏 교회의 느낌이 들어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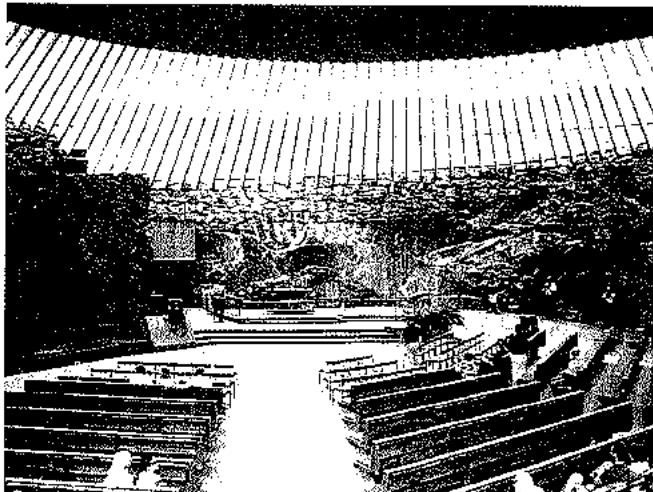
교회전면의 조그마한 Courtyard는 방문당시 정말 평화스러움과 조용함이깃들고 있었고 붉은 벽돌에 선명한 줄눈으로 마감된 외벽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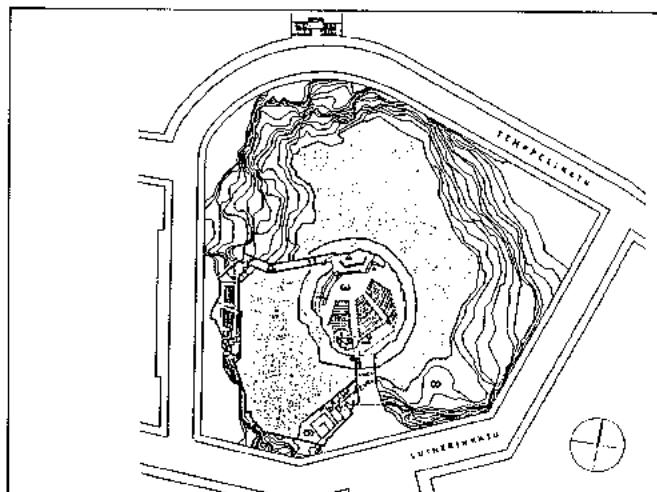
Hervanta 교회 종탑



암석교회 전경



암석교회 내부



암석교회 평면도

예배공간의 벽체 역시 외벽과 동일한 Pattern으로 마감되어 있고 외부에서와 같은 형상의 벽들로 구성된 십자가가 제단뒷벽에 부각되어 있을 뿐  
내부공간은 정말 검소하고 친근감을 주고 있다.

제단뒤 발코니층에 성가대와  
파이프オル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은 지름이 약 15cm 정도되는  
원형의 동판이 약 30cm 간격으로  
휘어진 제단벽에 따라 리드미カル하게  
배열되어 있고 제단을 중심으로  
우측벽면에 “The Burning Bush”라는  
Tapestry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예배공간의 바닥, 벽면, 천정과  
신자석 의자들이 모두 부라운 계통의  
색상으로 마감되어 밝고 화사한 느낌은  
없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에 차분히  
가라 앉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지역 사회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고 열린 교회로서 다양한 기능을

겸하여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본 받아야 할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 암석교회 (Temppeliaukio Church 1968-69)

건축가 : Timo & Tuomo Suomalainen

위치 : Helsinki (Finland)

암석교회라 하여 자칫 교외 한적한  
장소에 위치해서 바위를 뚫고  
인위적으로 만든 어둠침침한 암굴속의  
교회를 연상하였으나 실지로는  
헬싱키시의 도심에 가까운  
Temppeliaukio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저층의  
APT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3차례의 현상설계 끝에 지반이 온통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지의 특성을  
살려서 지어진 이 교회는 일년에  
50만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찾아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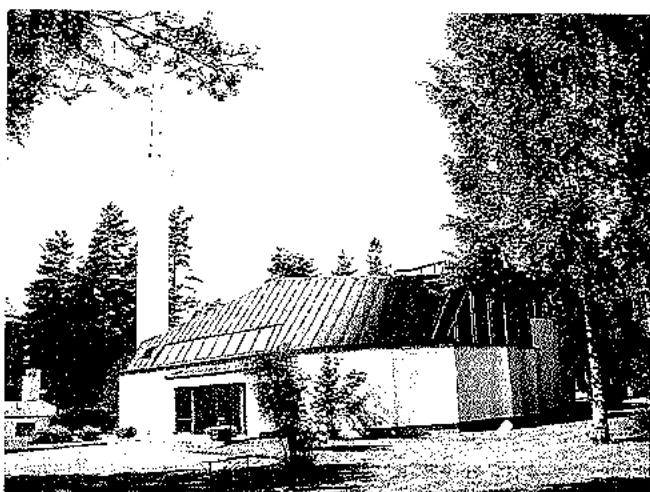
있는 헬싱키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교회는 주변의 도로보다 10여m나  
되는 높은 암석을 뚫어서 만들었기에  
내부의 5~9m가 되는 벽면들이 모두  
바위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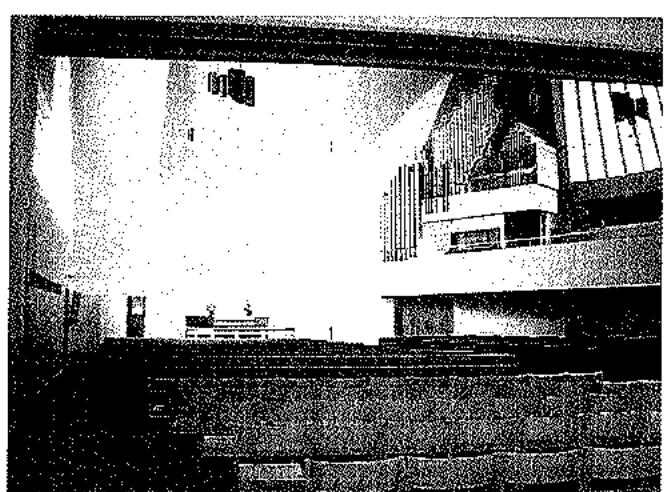
노출된 바위표면은 음향효과와 미적  
효과를 고려해서 채굴당시의  
자연스러운 노출면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부분적으로 붉게 채색된 색상  
때문에 예수그리스도의 성혈로  
물들어진 인상을 받게 된다.

특이한 것은 지붕과 천정구조로서  
180개나 되는 가느다란 콘크리트  
루바로 부채살같은 형상으로 지지되어  
있는 원형의 지붕은 동판으로 덮여있는  
중앙부분과 루바사이에 깨어진 천창을  
통해 풍요로운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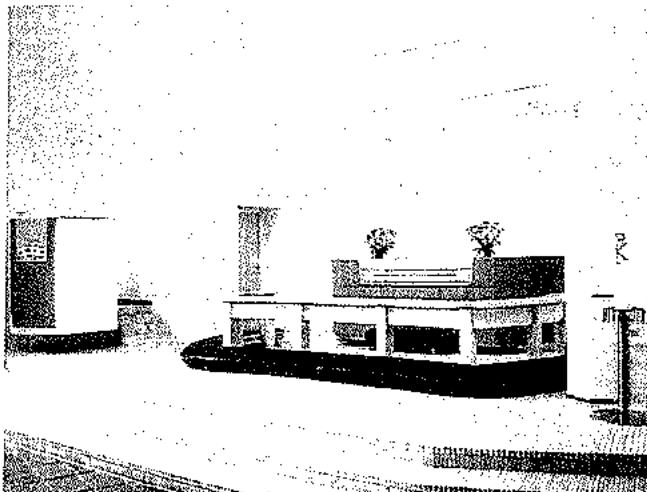
제단에는 화강암을 깎아만든 검소한  
제대와 그리스도가 수난자로서 동시에  
승리자로서 표현된 조그마한 십자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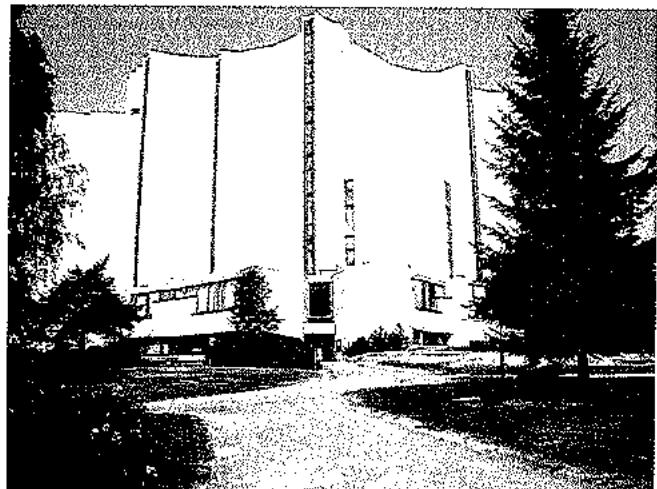
Vuokkenniska 교회 전경



Vuokkenniska 교회 내부



Vuokkenniska 교회 내부제단



Kalevan 교회 전경

있다.

750인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 교회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과 건축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있다.

#### Vuokkenniska 교회 (1956—58)

건축가 : ALVAR AALTO

위치 : Imatra (Finland)

쭉쭉 곧게 뻗은 녹색의 소나무와 자작나무들을 배경으로 하여 백색의 stucco로 처리된 외벽과 흑청처리된 동판으로 덮여있는 이 교회의 보습은 건물축서를 모서리에 힘차게 솟아있는 종탑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부인이 우아한 자태로 조용하면서 수동적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형식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기능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자유로이

구성된 건물의 형태는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건축적 언어들을 건축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교회의 압권은 아무래도 건물의 내부공간에 있다 하겠다. 부정형의 평면은 전형적인 알토의 공간질서에 따르고 있다. 3개로 분절된 부드러운 곡선형의 동측벽은 직선형의 서측(입구쪽) 벽과 매우 대조적이지만 입구홀과 예배실의 내부를 구획하는 사선의 벽체는 두 외벽의 이질성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내부는 순백색의 벽면과 같은 색상으로 곡선을 이룬 천정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고창과 천창을 통해서 쏟아지는 햇빛으로 교회내부는 밝고 역동감이 넘치는 공간에 활기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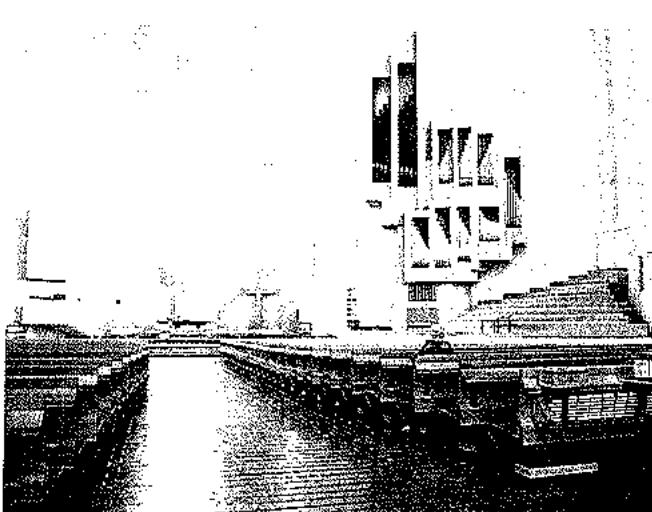
신자석 중앙 통로를 약간 비켜서 서 있는 독립된 2개의 요철기둥을 사이에

두고 직선과 곡선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전동문으로 교회내부는 3개의 공간으로 나뉘면서 제단 가까운 부분은 주예배공간으로 다른 뒷편의 두 공간은 의식에 종류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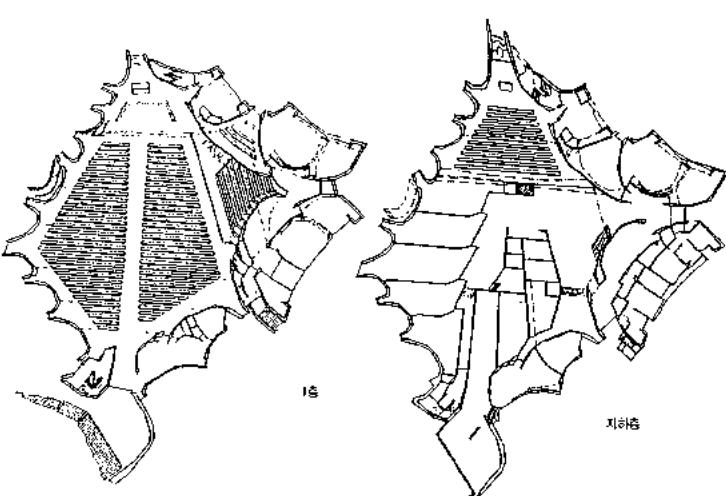
분설되어 사용되는 공간의 진입도 외부에서 출입동선부터 분리되어 다섯개나 되는 많을 출입구가 있어 별도의 어프로치들을 갖고 있다.

공간사용의 연속성과 분절 못지 않게 동측과 서측 벽체 상부에 불규칙하게 뚫린 창문들은 구획되어 사용되는 공간에도 각기 별도의 햇빛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제단 상부의 천정에서 들어오는 빛은 완만히 굽은 곡선의 벽면과 아무 장식없이 서 있는 3개의 십자가와 제단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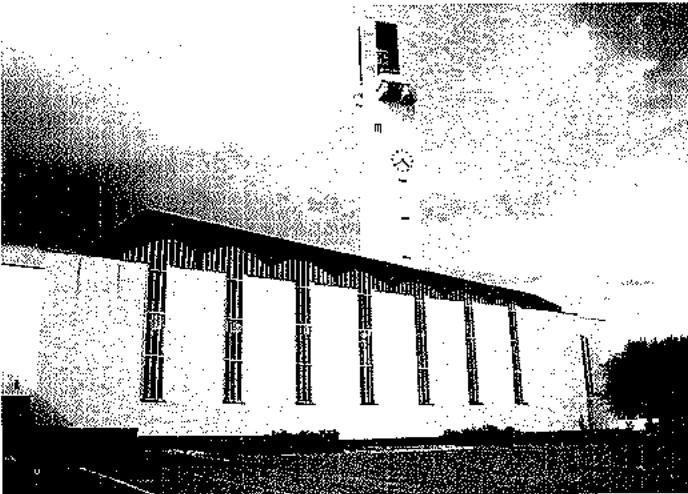
어느 구석에도 세속적이라고 생각되는 성화나 장식으로 꾸며진



Kalevan 교회 내부



Kalevan 교회 평면도



Pavochiai 교회 전경

화려함이나 현란스러움을 찾아 볼 수 없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의 구성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거처로서 충분하다고 하겠다.

거의 1시간 가까운 방문시간이었지만 하루종일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여기저기 스며있는 일토의 건축언어들을 들어보고 싶은 교회라 생각한다.

#### Kolevan 교회 (1959—66)

건축가 : Reima Pietila & Raili Paatela

위치 : Tampere (Finland)

푸르고 넓은 잔디밭을 전면에 두고 나즈막한 언덕위에 마치 중세의 고딕을 기원하기라도 하듯이 위엄있게 서 있는 이 교회는 누구든지 이 건물에 대한 첫인상으로 들어올려진 오목한 벽체들이 밀집되어 서 있는 Cluster의 힘에 압도된다고 하겠다.

외부형태를 보고서는 건물의 평면구성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교회는 십자기형의 방패모양의 평면은 외벽면이 마치 포도송이 같은 구조체(기둥)로 외부로 열린 형태가 반복되어 있고 그 사이로 좁은 창문이 뚫려 있다.

플랫트하면서 드높은 천장과 높은 벽체 사이로 좁고 길게 찢어진 창문, 흰색으로 마감된 내부공간은 신비스러움 보다는 단순하지만 응장함을 느끼게 한다.

1120석의 신자석과 115석의 합창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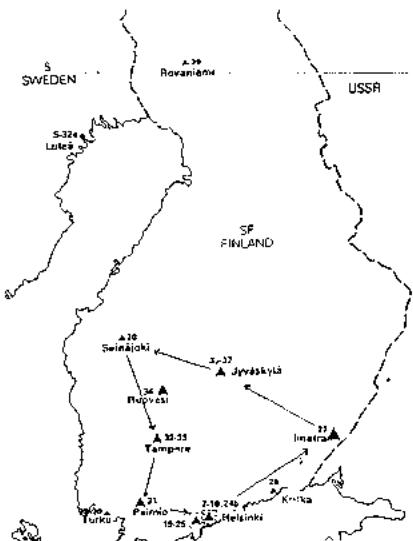
수용하는 비교적 큰 교회의 내부는 제단 옆에 엘코브 된 형태로 뒷 부분이 점점 들이 올려진 성가대와 제단 뒷 벽면의 창문에 불어 있는 목조조각품(A Bruised reed)의 장식이 조금은 드라이한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다.

#### 4. 에필로그

금년 여름 서울 뿐 아니라 온 나라가 40~50년만의 더운 여름 날씨와 며칠씩 계속된 열대야로 밤잠도 설치기 일쑤였던 시기에 출발이어서 반농담으로 서늘한 지역으로의 피서도 겸한 건축기행이라는 생각도 있었으나 막상 첫 기행자인 스톡홀름과 이어진 핀란드에서의 날씨는 셉씨 32~3를 오르내리는 몇십년만의 더위로 며칠동안은 냉방도 안된 전세 버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행계획에 몇 차례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답사건물에 미리 연락이 안되었거나, 휴가철이라 내부가 수리중이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휴무때문에 건물의 내부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지 guider의 조언으로 계획에 없던 좋은 작품들을 답사하기도하고 방문한 국가들이 여름철의 일몰시간이 거의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되기에 저녁식사 후 일정에 없는 건물의 답사나 도시 산책은 부지런한 여행자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번 여행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장섭(전 서울대) 윤도근(홍익대)  
안영배·이특구·홍대형(이상  
서울시립대) 김정재(경북대)  
이호진(건국대) 정시준(경희대)  
권산오(부산수산대) 한규봉(천일건축)  
한종인·정해상(이상 금성건축)  
김호(부림건축) 안병리(한건축) 씨와  
필자 등 대학에 계신 교수분들과  
설계사무소의 대표들이었다.

일행중 윤장섭 선생님께서는 5년전 정년퇴임을 하시어 고회에 이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룹기행 member중에서도 늘 부지런히 사진도 찍으시고 기록도 정리하시면서 다니셨던 모습은 여행을 함께 하였던 후학들에게 노건축가로서 뿐 아니라 인생의 대 선배로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시는 진솔한 면을 보여 주었다.  
전문적인 건축기행이라면 더욱 좋지만 해외여행이 업무적이던 관광이던간에 그 나라 도시들의 자연환경과 풍물들과 풍토와 수많은 건물들을 보게 되는 이유도 건축가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문가로서 많은 공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건축사들은 정기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틈을 내어 해외의 좋은 작품들을 둘러보려는 노력과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다음 기회에는 어떤 분들과 어떤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글을 맺는다.

# 정서가 결핍된 사회는 주거 환경에서

Poverty of Social Emotionality & Residing Environment

吳英治/건축사사무소 기미

by Oh, Young-Chi

우린 왜 이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인가?

만들어짐이 불가능한 것인가?

금년 여름 살인적인 더위속에 시간에 쫓기며, 쉴틈없이 일을 하고 지친몸으로 이민간 대학총창을 찾아 벤쿠퍼에 갔다. 그의 집을 방문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계획상 Cluster형으로 된 택지공간이기에 교통의 흐름이 없이 조용하다. 그리고 공기가 맑다. 숲속에 여유있는 공간이 부럽다. 엄청나게 비싼집 같지만 강남에 있는 APT. 32평 집값 정도이다. 이런 공간, 이런 주거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안성이 곱고 범죄가 없단다.

요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들, 이곳 저곳 TV좌담과 언론의 논조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거론하지만, 주거환경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성격 형성의 장이 되고, 청소년들에겐 정서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우리 주거환경은 어떤가?

고밀도를 이루며, 삶을 영위하는 모든 APT단지는 자연과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한 Box형이다. 이것은 열악한 택지 조건 때문이라고 치자. 그러면 내부 공간은 어떤가?

법적 높이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슬라브와 반자사이의 공간을 없애 한개층이라도 더 지으려고 천정을 반자틀에 의존하지 않고 윗층 슬라브에 직접 도배를 하기 때문에 코고는 소리, 소변 소리에 다음날 활기찬 작업을 위하여 깊은 잠에 폭 빠져야 함에도 뜯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우면 날카로운 감정으로 사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일종 아니면, 이종으로 군락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오던 삶의 터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으로 어느날 자고 일어나면 정남향 양지바른 앞마당을 가로막고 괴물처럼 4층 건물이 들어서니 숨통이 막히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봇된 투기꾼 극소수를 잡으려고 토초세를 도입하니 상추, 무우, 배추심던 텃밭은 조립식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알미늄새시 공장의 날카로운 절단소리에 소름이 끼치고 목공장 전기톱, 대패소리에 정신 착관이 일어날 것 같으며, 톱질할 때 나뭇가루 냄새, 칠할 때 칠냄새에 짜증은 기중되고 창고와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 새벽 단잠시간에 물건 운반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 공간에서 사는 우리들, 과연 이웃간에 오손도손 정답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곳은 주거 지역이니 좀 남을 의식해서 조심해 달라손치면 미안한 기색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니 이웃간에 싸움질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만 하다.

물론 건축법에는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대전엔 주거 전용지역은 한곳도 없고, 주거지역안에 공장, 창고, 식당 등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혼재하니 어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주거지역엔 주거만 허용하고 영업행위는 준주거 지역으로 몰아주어도 그들의 생업공간은 확보되리라 생각된다.

이젠 주택공급도 매년 8만가구 이상씩 남아돌아가 세일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이 본래의 1,2층 단독주택 군락내에 독버섯처럼 이곳 저곳 생기지 않아도 될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다세대 주택 택지조성을 하여 저밀도 주거지역을 신설해 옛부터 삶을 살아온 저층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호해줄 방법을 찾아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환경을 물려줄이 오늘날 우리의 책임일 것이다.

# 宋『營造法式』〈大木作制度〉註解(2)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金度慶/(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朱南哲/(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Do-Kyeong & Joo, Nam-Cheol

## 1-2. 桁

**樁** 其名有六：一曰閣，二曰樁，三曰桷，四曰曲枅，五曰攀，六曰拱  
造樁之制有五。

一曰華栱；或謂之杪栱，又謂之卷頭，亦謂之跳頭。  
足材栱也。若補間鋪作，則用單材，兩卷頭者，其長七十二分°。若鋪作多者，裏跳減長二分°。七鋪作以上，即第二裏外跳各減四分°。六鋪作以下不減。  
若八鋪作下兩跳偷心，則減第三跳。  
令上下跳上交互斜畔相對，若平坐出跳，杪栱並不減。  
其第一跳於檻料口外添令與上跳相應，每頭以四瓣卷殺，每瓣長四分°。如裏跳減多不及四瓣者，祇用三瓣，每瓣長四分°。與泥道栱相交，安於檻料口內。若累鋪作數多或內外俱勻，或裏跳減一鋪至兩鋪。其騎槽檐栱，皆隨所出之跳加之。每跳之長心不過三十分°，傳跳雖多不過一百五十分°。若造廳堂，裏跳承梁出樁頭者，長更加一跳，其樁頭或謂之壓跳。  
交角內外皆隨鋪作之數斜出跳一縫。栱謂之角栱，昂謂之角昂。其華栱則以斜長加之，假如跳頭長五寸，則加二分°五厘之類。後稱斜長者準此。若丁頭栱，其長三十三分°，出卯長五分°。若只要跳轉角者，謂之蝦須栱，用鼓卯到心，以斜長加之。若入柱者，用雙卯，長六分°或七分°。

二曰泥道栱；其長六十二分°。若料口跳及鋪作全用單栱造者，只用令栱。每頭以四瓣卷殺，每瓣長三分°半，與華栱相交，安於檻料口內。  
三曰瓜子栱；施之於跳頭。若五鋪作以上重栱造，即於令栱內泥道栱外用之。四鋪作以下不用。其長六十二分°。每頭以四瓣卷殺，每瓣長四分°。

四曰令栱；或謂之單栱。施之於裏外跳頭之上。外在撩檐方之下，內在算程方之下，與要頭相交，亦有不用要頭者，及屋內轉縫之下。其長

七十二分°。每頭以五瓣卷殺，每瓣長四分°。若裏跳騎樑，則用足材。  
五曰慢栱；或謂之脣栱。施之於泥道·瓜子栱之上。其長九十二分°。每頭以四瓣卷殺，每瓣長三分°。騎樑及之角，即用足材。

凡栱之廣厚并與材。栱頭上留六分°，下殺九分°，其九分°均分為四大分，又從栱頭順身量為四瓣，瓣又謂之脊，亦謂之根，或謂之生。各以逐分之首，自下面至上，與逐瓣之末，自內而外，以直尺對斜畫定，然後斫造。用五瓣及分數不同者準此。栱兩頭及中心各留坐料處，餘并為栱眼，深三分°。如造足材栱，則更加一梨，隱出心料及栱眼。

凡栱至角相交出跳，則謂之列栱。其過角栱或角昂處，栱眼外長內小，自心向外量出一材分。又栱頭量一料底，餘并為小眼。

泥道栱與華栱出跳相列。

瓜子栱與小栱頭出跳相列。小栱頭從心出，其長二十三分°，以三瓣卷殺，每瓣長三分°。上施散料。若平坐鋪作，則不用小栱頭，却與華栱頭相列。其華栱之上，皆累跳至合栱，於每跳當心上施要頭。

慢栱與切几頭相列。切几頭微刻材下作兩卷瓣。

如角內足材下昂造，即與華頭子出跳相列。華頭子承昂者，在昂制度內。

令栱與瓜子栱出跳相列。乘替木頭或撩檐方頭。

凡開栱口之法；華栱於底面開口深五分°，角華栱深十分°，廣二十分°，包檻料耳在內。口上當心兩面各開子牕通栱身，各廣十分°。若角華栱，連隱料通開深一分°。餘栱謂泥道栱、瓜子栱、令栱、慢栱也。上開口深十分°，廣八分°。其騎樑、絞昂栱者，各隨所用。若角內足材列栱，則上下各開口，上開口深十分°，連梨，下開口深五分°。

凡栱至角相連長兩跳者，則當心施料，料底兩面相交，隱出栱頭，如舍栱，只用四瓣，謂之鴛鴦交手栱。裏跳上栱同。

## 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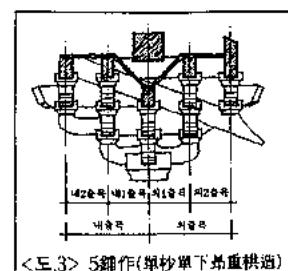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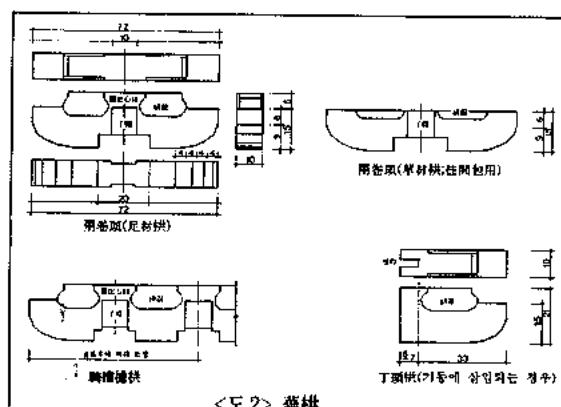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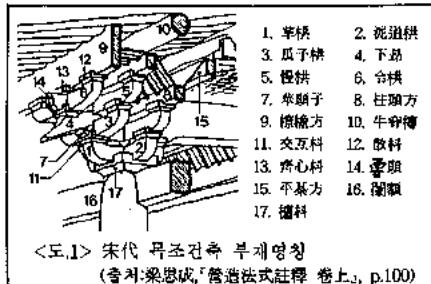
공(構)<sup>1)</sup>의 명칭은 6가지가 있다. ; 첫째 開(開), 둘째 計(緒), 세째 構(構), 네째 曲枅(曲枅), 다섯째 난(欒), 여섯째 公(構)이다.

枅을 만드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sup>2)</sup>.

- 1) 華枅<sup>3)</sup> ; 抄枅<sup>4)</sup>, 卷頭<sup>5)</sup>, 跳頭<sup>6)</sup>라고도 한다.  
足材枅이다. 補間鋪作<sup>7)</sup>에서는 單材<sup>8)</sup>를

주)

- 1) '枅'은 주두, 소로와 더불어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로, 보방향이나 도리방향으로 쟁첩되어 놓이는 方形단면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침차(檻遮)'를 '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보방향과 도리방향의 공포부재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이를 '살미(山彌)'와 '침차(檻遮)'로 구분하여 불렀다(金度慶, 『朝鮮時代 營造儀軌의 構包用語에 관한 研究』, pp.86~89,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92. 12).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도리방향과 보방향의 부재를 통칭하는 '枅'에 해당하는 용어로 '침차'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의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내용에 충실히 위해 '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註에서 보방 향으로 사용된 '枅'만을 가리킬 때에는 '살미', 도리방향의 '枅'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침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하 다른 부재용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원문의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註에 우리의 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다만 부재용어가 아닌 경우, 적당한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의 편리를 위해 가능한 한 註와 더불어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도록 한다.
- 2) 여기에서는 '枅'을 5종류, 즉 華枅, 泥道枅, 瓜子枅, 令枅, 慢枅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위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도.1>
- 3) 華枅은 5종류의 '枅'중에서 유일하게 보방향으로 사용된 '枅'으로 건물의 내외로 돌출하여 춤목을 형성함으로써 처마와 내부의 천장을 받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살미(山彌)'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도.2>
- 4) '抄'의 字典的 의미는 나무槁(木末)이며, '抄'의 字典的 의미는 '가리다(叉也)', '베끼나(踏寫)', '번역하다'이다.(張三植, 『漢韓大辭典 人字源』, p.898, p.767, 서울:삼성출판사, 1988) 「營造法式」의 여러 판본에는 '抄'와 '杪'가 반반씩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杪'는 그 字典의 의미에서 볼 때 나뭇가지 끝이 돌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華枅이 돌출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華枅을杪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杪枅'에서의 '杪'는 '杪'의 誤記이다.(徐伯安, 郭黛姮, 『宋<營造法式>述話匯釋』,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p.49, 北京:清華大學出版社, 1984) 본고에서도 근거로 한 판본에서도 '杪枅'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원래의 뜻을 살려 '杪枅'으로 바로 잡아 수록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5) '卷'字에는 '접다', '굽다(曲也)'라는 字典의 의미가 있다.(張三植, 『前揭書』, p.365) 따라서 '卷頭'는 華枅 끝부분의 형태를 둥글게 말아 올린해서 비롯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4종류의 '枅'도 단부를 둥글게 말아 옮긴 형태로 하고 있으나, 華枅만이 보방향으로 사용되어 그 단부가 전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華枅만을 卷頭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跳(조)'는 '뛰다', '건너다'를 의미한다(張三植, 『前揭書』, p.1697). 華枅은 柱心線을 중심으로 건물 내외로 돌출하여 있기 때문에 華枅을 '跳頭'라고 부르기도 한다.
- 7) 기둥과 기둥사이의 吊枋위에 놓은 '枅'으로 우리나라의 柱間(空間)에 해당하는 말이다. 「營造法式」에서는 기둥 위에 놓인 공포를 柱頭鋪作, 기둥 사이의 창방이나 평방위에 놓인 공포를 補間鋪作, 隅柱 위에 놓여있는 것을 轉角鋪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공포를 그 위치에 따라 柱心包, 柱間包(空間包), 귀포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하 본고의 번역문에서는 柱頭鋪作, 補間鋪作, 轉角鋪作을 각각 주심포, 주간포, 귀포라는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鋪作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의 <總鋪作次序>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8) '足材'와 상대적인 개념의 용어로,材위에 梁를 올려놓지 않은 것을 '單材'라 한다. 즉 높이가 15分인 '枅'이다.<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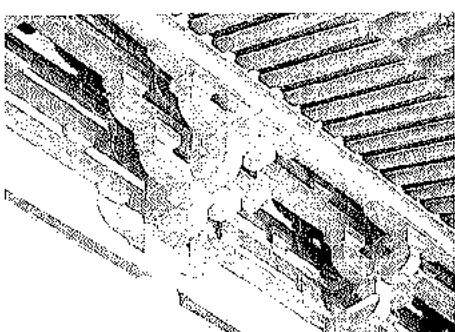


사용한다<sup>9)</sup>. 兩卷頭<sup>10)</sup>인 경우에는 그 길이를 72분으로 한다. 鋪作數<sup>11)</sup>가 많은 경우에는 裏跳<sup>12)</sup>의 길이를 2분 줄인다. 七鋪作 以上인 경우에는 내외의 제2출목 길이를 4분 줄인다. 六鋪作 以下에서는 그 길이를 줄이지 않는다. 八鋪作으로 아래 두 층의 출목선상을 偷心<sup>13)</sup>으로 한 경우에는 제3출목의 길이를 줄여 2출목과 3출목선상의 交互斜<sup>14)</sup> 외면 연장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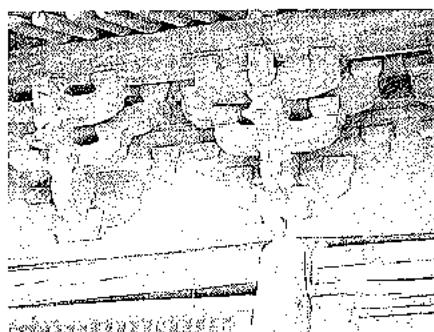
서로 접하도록 한다. 華棋을 平坐<sup>15)</sup>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는 줄이지 않고, 第1출목을 樞料口<sup>16)</sup>밖에 첨가하여 제2출목과 부합되도록 한다. 華棋머리는 四瓣卷殺<sup>17)</sup>하며, 瓣의 길이는 4분으로 한다. 내출목에 사용된 華棋의 길이가 너무 짧아 4瓣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3瓣을 대신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瓣의 길이는 4분으로 한다. 樞料口 안에서 泥道棋<sup>18)</sup>과 직교하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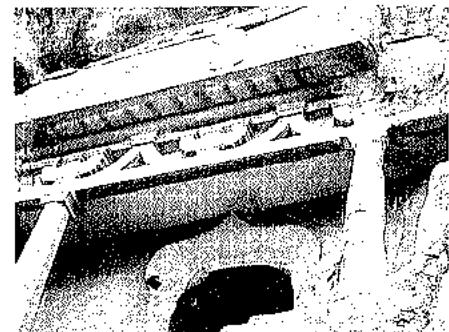
- 9) 華棋은 주심포에서만 足材로 하고 주간포에서는 單材로 한다. 이는 중국건축에 있어서 공포구성의 발전단계, 즉 우리말로 주심포형식에서 다포형식으로 변화하는 공포형식의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때까지만 해도 주간포보다는 주심포가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도리방향이 아닌 보방향의 棋만을 足材로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공포발전단계에서도 침차보다 살미가 먼저 상하부재가 맞닿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0) 華棋이 内外로 돌출하여 그 형상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내외의 華棋단부를 모두 '卷頭'形(우리말로는 麻頭形)으로 한 것을 말한다.<도.2>
- 11) 『營造法式』에서 鋪作數는 「출목수+3」에 의해 쉽게 계산된다. 예를 들면, 2출목으로 된 공포를  $(2+3=)5$ 포작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도.3><사진.1, 2> 이렇게 鋪作數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總鋪作次序>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12) '跳'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樞料(주두)로부터 총총히 돌출하여 나온 華棋 또는 昂을 의미하는 말로 樞料위로 중첩되어 사용된 보방향 부재의 단의 수를 의미한다. 둘째 우리말의 出目을 의미하며, 내부로 돌출한 것을 裏跳, 외부로 돌출한 것을 外跳라 하는데, 각각 우리말의 内出目, 外出目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의 번역문에서는 '跳'를 상황에 따라 적당한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도록 한다.
- 13) 華棋 혹은 昂頭上의 출목선상(가장 바깥의 출목선상은 제외)에 침차를 엿지 않은 것을 '偷心'이라 한다. 반면에 각 출목선상에 침차를 엿은 것을 '計心'이라 한다. 공포의 발전단계를 볼 때, 偷心은 計心보다 선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計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重棋造'로 출목선상에 한 층의 瓜子棋을 사용하고 그 위에 다시 慢棋을 한 층 올린 것이나 주심선상에 泥道棋을 사용하고 그 위에 다시 慢棋을 사용한 것, 즉 하나의 주심선상이나 출목선상에 침차를 2重重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층의 습棋만을 사용한 것을 '單棋造'라 한다. 즉 單棋造는 하나의 주심선상이나 출목선상에 하나의 침차만을 사용한 것이다.<도.4>
- 14) 斜는 우리말의 '주두'와 '소로'의 총칭이다. '交互斜'는 華棋이나 昂의 단부에 사용되는 조그마한 소로(斜가 소로만을 가리키는 경우 許에서는 '소로'라는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한다.)로 그 위에 침차나 장허가 놓이는 경우에 사용되는 소로이다. 이에 대해서는 <斜>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15) 地面위나 중층건물의 하층 위에 상층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棋과 斜를 사용하여 평평한 臺를 만드는데 이 臺를 '平坐'라 한다. 平坐에 대해서는 <平坐>항목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16) '樞料'는 우리말의 '주두'를 의미하며, '口'는 그 위에 棋을 얹기 위해 판 흠, 즉 우리말의 '갈(𦗔)'을 의미한다.
- 17) '권쇄(卷殺)'는 깎아낸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棋의 머리, 즉 단부를 둥글게 깎아 말아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깎아내는 면은 완전한 곡선이 아니라 몇 개의 연속된 斜線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瓣'이라 한다. 이와같이 棋의 단부를 깎아내는 것을 만들어지는 斜線의 수에 따라 구분하여 '×瓣卷殺'라고 한다. 棋의 단부를 깎아내는 기법에 대해서는 주43), <도.12>를 참조하시오.
- 18) 다음의 2)泥道棋 항목을 참조.



(사진.1) 산서대동 화엄사 박가교장전 주심포



(사진.2) 산서 대동 선화사 산문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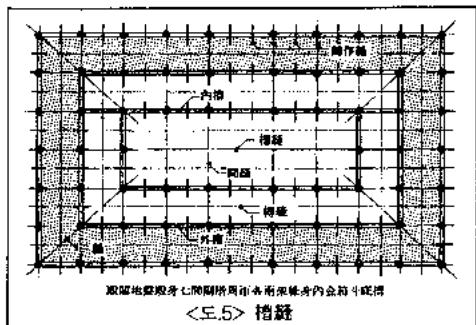
(사진.3) 산서 태원 천룡산 北齊식굴

결구한다. 鋪作數가 많은 경우에는 内外의 鋪作數를 같게 하거나, 内出目數를 1~2출목 줄인다. 騎槽檣棋<sup>19)</sup>은 출목수에 따라 檣의 길이를 길게 한다. 각 출목의 길이는 그 중심간격이 30분을 넘지 못하며, 출목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전체길이는 150분을 넘지 못한다<sup>20)</sup>. 廳堂을 만들 때 내출목이 보를 받게 되는 경우 檇頭<sup>21)</sup>를 돌출시킨다. 이 때, 그

榰頭의 길이는 2출목의 길이로 하는데, 이 檇頭를 墓跳<sup>22)</sup>라 한다. 귀포의 内外로는 鋪作數에 맞추어 대각선 방향으로 1縫<sup>23)</sup>을 돌출시킨다. 이 때 이것이 檇이면 角棋<sup>24)</sup>, 崑이면 角昆<sup>25)</sup>이라 한다. 角棋의 길이는 華棋의 길이에 斜長<sup>26)</sup>을 더 한다. 華棋의 길이가 5寸일 때, 角棋에 더해주는 길이가 2寸5厘<sup>27)</sup>인 것과 같은 級이다. 이후 斜長이라 부르는 것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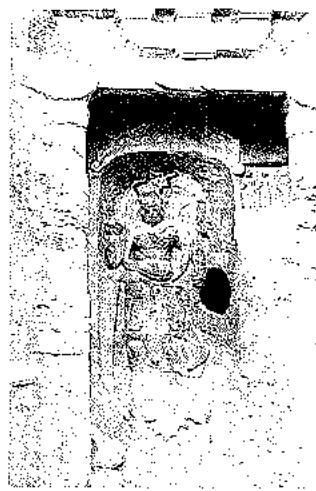
- 19) 檇包의 중심을 건물의 정면에서 보아 橫으로 연장한 선을 '柵'라 하며, 槽위에 놓인 것을 '騎槽'라 한다. <도.5> '騎槽檣棋'은 平坐鋪作을 제외한 鋪作에의 제2단부터 그 이상의 각 층에 사용되는 살미로, '槽' 위에 橫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불여전 명칭이다. 단, 제1층에 사용된 살미는 騎槽檣棋이라 하지 않는다. 騎槽檣棋의 길이는 출복수, 内외위치 여부에 따라 그 길이를 다르게 한다.<도.2>
- 20) 이 규정에 의해 볼 때, 鋪作數에는 한계가 있었던 듯 하다. 그리고 『營造法式』에 나온 예에 의하면 8鋪作을 넘는 鋪作이 없다. 8鋪作은 5출목으로, 1출목의 중심간격이 30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각 출목의 최대길이인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길이가 150분(5출목×30분)이 된다. 따라서 『營造法式』에서는 鋪作의 최대 출복수를 5출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鋪作의 출복수와 각 출목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鋪作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1) 檇두(榰頭)는 方形단면으로 된 부재의 단부가 돌출한 것으로 아랫면을 조금 깎아내어 입면상 단부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만든 형식의 부재이다.<도.6>
- 22) 보를 받기 위해 내부공포의 최상층 소로위에 보방향의 부재를 하나 더 올려, 길이를 길게 한 부재를 사용하는데 이 부재를 '암조(礎跳)'라 한다. 여기에서 '榰頭'는 부재 머리의 형상에 따른 명칭이고, '礎跳'는 보를 밑에서 떠받는다는 구조적 기능에 따른 명칭이라 할 수 있다<도.6>.
- 23) '봉(縫)'은 '槽'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각 檇包에 있어서 살미가 중첩되어 놓이는 방향, 즉 건물 정면에서 보아 전후로 이어진 각 檇包의 중심선을 말한다. 귀포에서는 대각선 방향, 즉 角棋이나 角昆이 중첩된 선이다. 또한 기둥을 연결한 선을 柱縫, 도리를 연결한 선을 横縫 등이라 하듯이 부재가 중첩된 선을 縫이라고도 한다. <도.5>
- 24) 귀포에 45°방향으로 사용된 살미로, 우리말의 '限人'에 해당하는 부재로 볼 수 있다.<도.16><사진.7, 8>
- 25) 귀포에 45°방향으로 사용된 昆이다.<도.16><사진7, 8>
- 26) 원래의 길이의 0.41倍이다. 즉 정사각형에 있어서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의 1.41倍로 斜長을 1.41倍로 보아야 하나, 원문에 사용된 斜長은 그 해석상 0.41倍로 취급해야 의미가 옳게 파악된다.
- 27) 원문에는 2分5厘로 되어 있으나 이는 2寸5厘의誤記이다. 본고의 원문에서도 2寸5厘로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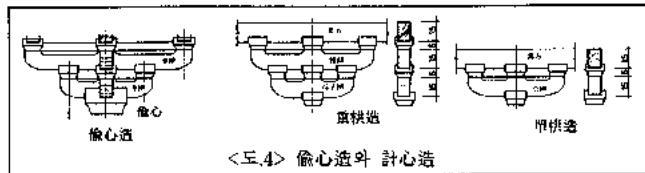
<도.5> 檇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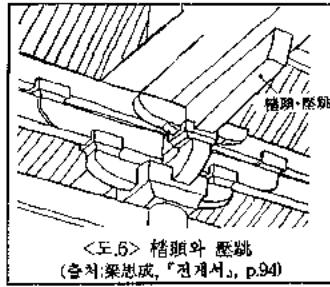
<사진.4> 산서 태원 천룡사 北齊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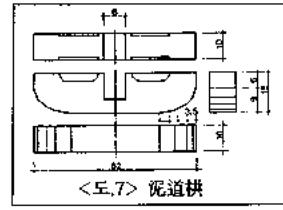
<사진.5> 화북 남향당산 석굴



<도.4> 偷心造와 計心造



<도.6> 檇頭와 矩跳  
(출처: 梁思成, 『전개서』, p.94)



<도.7> 泥道拱

이에 따른다. 丁頭棋<sup>28)</sup>은 그 길이를 33분으로 하고, 卯<sup>29)</sup>의 돌출길이는 5분으로 한다. 귀포의 내출목에 사용된 丁頭棋을 蝦須棋이라 한다. 蝦須棋은 鼓卯가 기둥의 중심에 이르도록 하고, 그 길이는 丁頭棋 길이에 鎚長을 더한 것으로 한다. 丁頭棋이 기둥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雙卯<sup>30)</sup>를 사용하며, 그 길이는 6분내지 7분으로 한다.

2) 泥道棋<sup>31)</sup> ; 길이는 62분으로 한다. 斜口造<sup>32)</sup>나

(주)

28) 華棋의 반쪽 모양을 지닌 棋으로 한쪽은 華棋의 卷頭形(翹頭形)을 갖추어 華棋과 같은 출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한쪽은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부를 만들어 기둥에 까워 넣는 경우로, 이 때에는 상부에서 기둥과 결구되는 수평材를 보강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보아지와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도.2> 또 하나의 형식은 보 위나 斜棋에 사용되는 형식으로 卷頭의 반대편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잘라버린다.

29) '卯'는 우리말의 '장부'에 해당한다.

30) 두 줄기로 된 장부이다.<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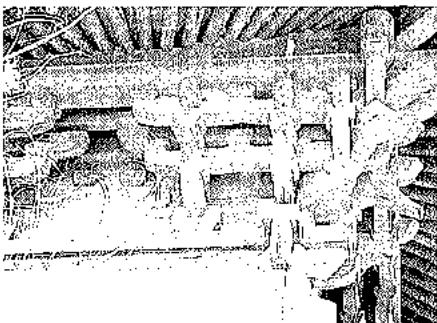
31) 주두위, 즉 柱心線上에서 살미와 직교하여 결구되는 첨차로, 주심선상에 첨차를 두 단 사용하는 경우에 아랫 단의 것을 泥道棋이라 한다.(윗단의 것은 慢棋이라 한다.) 이는 우리말의 柱心小簷(小頭工)에 가장 가까운 용어이다. 그러나 柱心線上에 첨차를 두 단이 아닌 한 단만 사용하는 경우, 이 부재는 슬虹桥이라 한다. 즉 泥道棋은 重棋造에서만 사용된다.<도.7>

32) 주두 위에 하나의 살미를 두고 그 제1출목선상에 소로를 놓아, 이 소로로 하여금 檩檻方(장방형의 단면으로 된 외목도리로 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을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出口은 있으나 出目첨차를 사용하지 않고 柱心첨차만을 사용한 포작의 일종(營造法式)에서는 이를 鋪作으로 취급하지은 않고 있다.)이라 할 수 있다. 斜口跳를 鋪作의 개념으로 보면 1출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4鋪作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용된 부재가 3단(櫑科, 梁頭, 紗方頭) 뿐이므로 완전한 4鋪作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이 斜口跳에서는 柱心線上에 첨차가 하나밖에 없으므로(즉 單棋造) 이 柱心첨차는 泥道棋이 아닌 슬虹桥으로 하는 것이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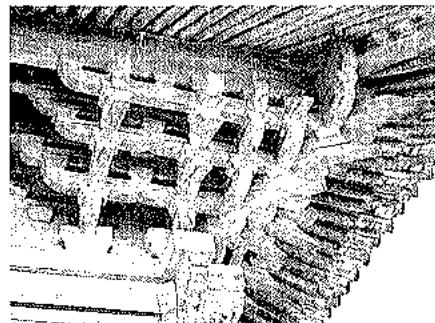
33) 주13), <도.4> 참조

34) 架包에 있어서 柱心線上과 가장 바깥의 出目線上을 제외한 각 出目線上에 華棋과 직교하여 결구되는 첨차로, 하나의 出目線上에 두개의 棋을 사용하는 重棋造에서 아랫 단의 첨차만을 瓜子棋이라 한다.(윗 단의 것은 慢棋이라 한다.) 즉 瓜子棋은 우리말의 出目小簷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瓜子棋은 4鋪作까지의 공포에서 1출목밖에 형성되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않고, 5鋪作, 즉 2출목 이상의 공포에서, 각 출목선상이 重棋造로 구성된 경우에만 사용된다.<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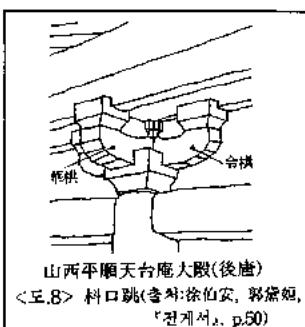
35) 주13), <도.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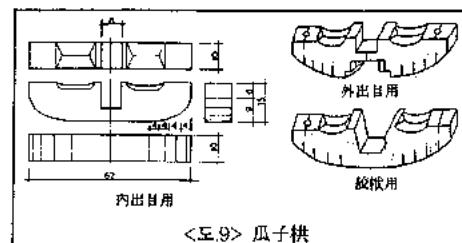
(사진.7) 산서 대동 선화사 산문 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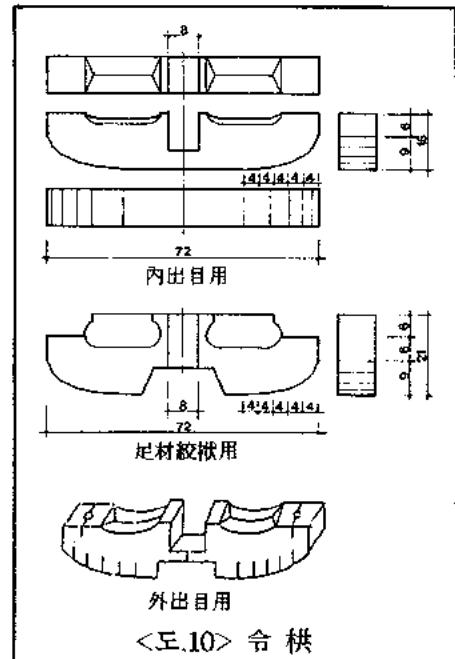
(사진.8) 산서 대동 선화사 삼성전 귀포



山西平順天台庵大殿(後唐)  
<도.8> 斜口跳(출처:徐伯安, 郭黛姮,『전기서』, p.50)



<도.9> 瓜子棋



<도.10> 슬虹桥

單棋造<sup>33)</sup>만을 사용한 鋪作에서는 슬虹桥만을 사용한다. 泥道棋 머리는 四瓣卷殺하며, 瓣의 길이는 3분半으로 한다. 櫟科口 안에서 華棋과 직교하여 결구한다.

3) 瓜子棋<sup>34)</sup> ; 華棋머리위에 설치한다. 5鋪作이상의 重棋造<sup>35)</sup>인 경우에는 슬虹桥 안쪽, 泥道棋 바깥쪽에 설치한다. 4鋪作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길이는 62분으로 한다. 瓜子棋머리는 四瓣卷殺하며, 그 瓣의 길이는 4분으로 한다.

4) 令棋<sup>36)</sup>; 單棋<sup>37)</sup>이라고도 한다. 內外의 華棋머리 위에 설치한다. 外部에서는 檻檐方 아래, 内部에서는 算程方<sup>38)</sup> 아래에 위치한다. 要頭<sup>39)</sup>와 직교시켜 - 要頭와 교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살내의 滾縫<sup>40)</sup> 아래까지 이르도록 한다. 길이는 72분이다. 每頭는 五瓣卷殺<sup>41)</sup>하며, 每瓣의 길이는 4분으로 한다. 내출목에서 보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足材를 사용한다.

주)

36) 건물 內外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出目線上, 즉 外部로는 檻檐方 아래, 内部로는 算程方 아래에 위치하여 이들 부재를 받는 첨차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쇠두와 직교하여 결구되지만 쇠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심선상이 重棋造가 아닌 單棋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기에 사용된 첨차 '行工', 또는 '행공첨차'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行工'은 소위 翼工系構包의 柱心線上에 사용된 첨차를 의미하는 용어(金度慶, 『前揭書』, pp.91~92)이므로 ' 습棋'을 '行工'이나 '行工 雜述'로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도.10>

37) 습棋은 가장 바깥의 출목선상에서 사용되는데, 이 때에는 단 하나의 첨차만을 사용한다. 또한 斜口跳나 單棋造에서 柱心線上에 사용되는 첨차의 수도 단 하나 뿐이다. 이와 같이 습棋은 하나의 柱心, 또는 출목선상에서 홀로 사용되므로 '單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38) 構包의 내부에서 습棋위에 위치한 방형단면의 긴 부재로 平棟(우물천장을 가설하기 위한 반자를)가 있는 경우는 平棟方이라 하고, 平棟가 없는 경우는 算程方이라 한다.

39) 쇠두는 습棋과 직교하여 사용되는 보방향의 부재이다. 그 단부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三盃頭와 비슷한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다른 형태로 된 것도 있다.<도.1> 이에 대해서는 뒤의 <爵頭> 항목에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한다.

40) 주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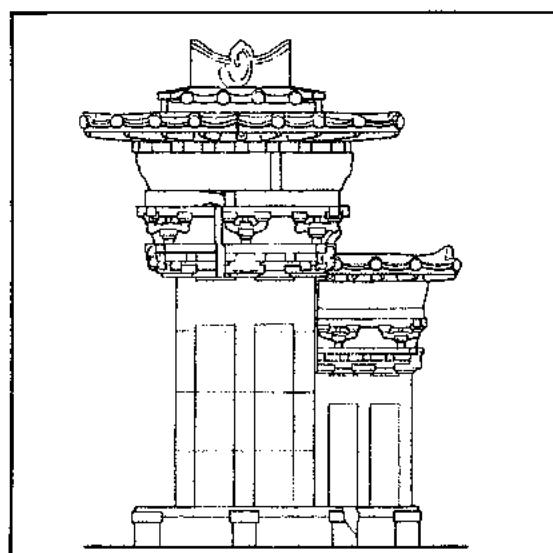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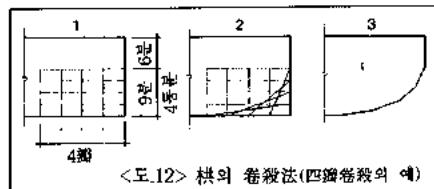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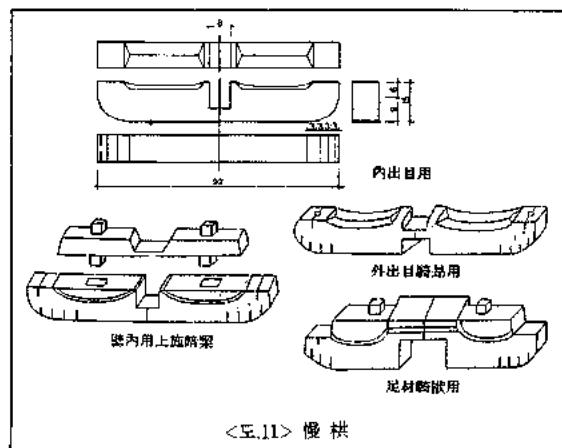
41) 華棋, 泥道棋, 瓜子棋, 慢棋은 모두 四瓣卷殺(때에 따라서는 三瓣卷殺하는 경우도 있음)하는데 오직 이 습棋만을 五瓣卷殺하는 것은 습棋이 외관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構包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첨차를 가장 장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향과 부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2) 慢棋에 대한 항목은 본고에서 참조로 한 판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梁思成의 『전개서』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慢棋은 柱心線上과 각 出目線上(가장 바깥의 출목선상은 제외)에 첨차를 두 단으로 놓는 重棋造로 되어 있는 경우, 상부에 놓인 첨차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주심대첨(大頭工)'과 '출목대첨'의 총칭, 즉 '大膽'을 의미한다.<도.11>

5) 慢棋<sup>42)</sup>; 脣棋이라고도 한다. 泥道棋과 瓜子棋 위에 놓인다. 그 길이는 92분이다. 每頭는 四瓣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3분으로 한다. 보위에 놓이거나 귀포에 사용될 때에는 足材로 한다.

棋의 높이와 너비는材와 같다. 棋의 端部는 上部 6분을 제외한 下부 9분을 깎아낸다. 그 9분을 4等分하고, 下面을 端部에서부터 중앙쪽으로 나누어



(출처:Liang Ssu-ch'eng,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p.28)

四瓣으로 삼는다. 瓣은 서(脅), 정(帳), 생(生)으로 부르기도 한다. 桁 단부를 아래에서 위로 4등분한 점과 下面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등분한 점을 賈尺으로 연결한 선을 따라 잘라 내어 만든다<sup>43)</sup>. 5瓣을 사용하거나 瓣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한다. 桁의 양단과 중앙에 각각 斜가 놓일 자리를 만들고, 이 나머지 부분에 桁眼<sup>44)</sup>을 만드는데, 桁眼의 깊이는 3분으로 한다. 足材 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桁에 다시 1梨를 더하고, 心料 및 桁眼을

隱出한다<sup>45)</sup>.

귀포에서 桁이 서로 교차하여 돌출하는 것을 列棋<sup>46)</sup>이라 한다. 列棋이 角棋이나 角昂과 교차하는 곳에서 桁眼은 바깥쪽이 길고 안쪽이 짧은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1材만큼 길게 한다. 또한 桁의 단부는 여기에 놓일 소로의 밑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小眼<sup>47)</sup>으로 만든다.

泥道 桁은 華棋과 出跳相列한다<sup>48)</sup>.

주)

43) 桁의 단부를 卷殺하는 방법, 즉 圓弧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개의 연속된 직선으로 斜切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그 순서를 <도.12>에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桁의 단부를 卷殺하는 기법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漢代의 石闕<도.13>, 北齊의 天龍山석굴<사진.3,4>이나 남향당산석굴<사진.5> 窟檐에 있는 공포부재 등에서도 그 세부적인 기법은 다르지만 다양한 卷殺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의 벽화고분에서 桁의 단부를 둑글게 처리한 수법을 볼 수 있다.(張慶浩,『韓國의 傳統建築』, p.76, 서울:문예출판사, 1992)<도.14> 또한 통일신라시대 유적인 안암지에서 발견된 4개의 첨차는 그 단부에 모두 『營造法式』의 규정과 비슷한 형태의 卷殺을 하고 있다.(張慶浩,『前揭書』, pp.157~158)<도.15> 따라서 桁의 단부를 둑글게 하거나 『營造法式』의 규정과 같이 卷殺하는 수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卷殺법은 도구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수법에 대한 연구는 목조건축과 그 가공수법의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한국과 중국건축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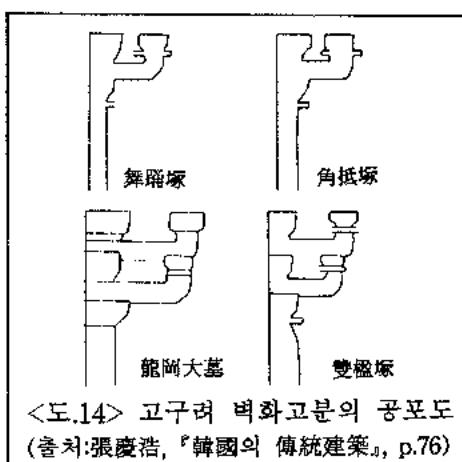
44) 桁眼은 桁兩端과 중앙의 상부에 小累를 없힐 자리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 부분을 둑글게 파내어 장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張起仁,『한국건축대계IV -한국건축사전』, p.120, 서울:보성문화사, 1991)

45) 心料는 齋心料의 약칭으로 <桿> 항목에서 자세하게 나루도록 한다. 또한 “足材 桁을 사용하는 경우 心料를 隱出한다”라고 한 것은 소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소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소로의 모양을 浮彫한다는 것을 말한다.<도.1> ‘隱出’은 浮彫의 의미이다. 이렇게 桁의 중앙에 心料를 부조하는 수법은 우리나라의 鳳停寺大雄殿 공포에서도 그 예가 보이고 있다.<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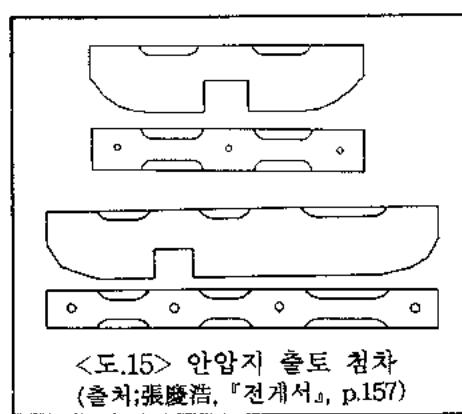
46) 귀포는 건물의 정면과 측면이 전환되는 위치이므로 정면에서 보아 도리방향의 부재, 즉 泥道 桁, 瓜子 桁, 慢 桁, 습 桁은 측면에서는 외부로 돌출하여 華棋, 小 桁頭 등이 된다. 또한 귀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桁이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귀포에 사용된 桁은 주심포나 주간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桁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구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列棋으로 구분한다. 즉 귀포에 있어서 45°로 놓인 부재인 角 桁과 角昂을 제외한 모든 桁을 列棋이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귀포의 주심선상과 출목선상에 사용된 도리방향의 첨차를 左右隊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金度慶,『前揭書』, pp.94~95)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도.16, 17><사진.7, 8>

47) 桁眼이기는 하지만 角 桁이나 角昂과의 교차로 인하여 桁眼의 길이가 일반적인 桁의 桁眼보다 짧기 때문에 불인 명칭인 듯 하다.

48) 귀포를 정면에서 보아 泥道 桁에 해당하는 부재는 측면에서 보면 華棋이 된다. 이는 4鋪作拂昂造를 제외한 重 桁造로 구성된 모든 귀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列棋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列棋으로는 4鋪作拂昂造에 사용되는 泥道 桁과 華頭子의 出跳相列, 그리고 斜口跳나 單 桁造에 사용되는 舒 桁과 華棋, 下昂을 사용한 單 桁造의 鋪作에 사용되는 舒 桁과 華頭子의 出跳相列을 들 수 있다.<도.16, 17>



<도.14> 고구려 벽화고분의 공포도  
(출처:張慶浩,『韓國의 傳統建築』,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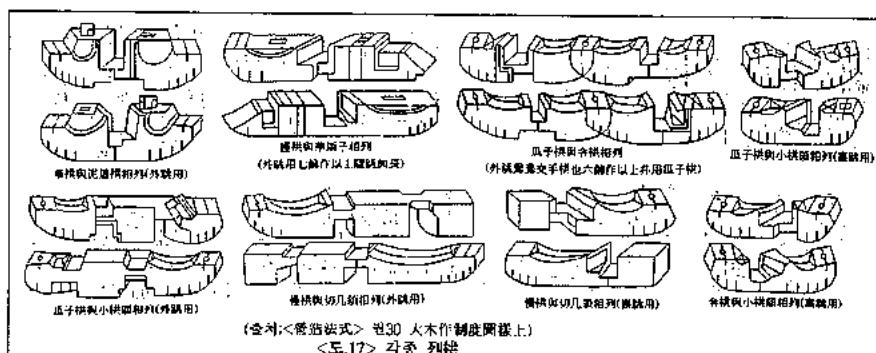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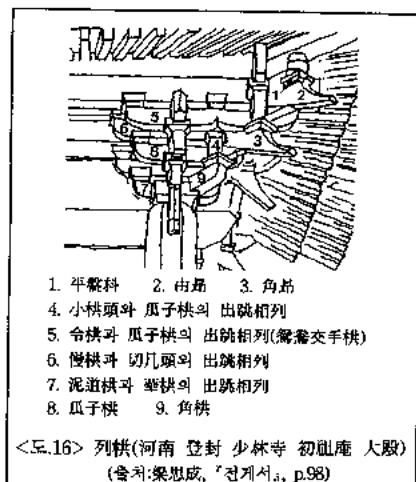
<도.15> 안암지 출토 첨차  
(출처:張慶浩,『전개서』, p.157)

瓜子棋은 小棋頭<sup>49)</sup>와 함께 出跳相列한다<sup>50)</sup>. 小棋頭가 중심에서 돌출한 길이는 23분으로 한다. 小棋頭는 三瓣卷殺 하는데, 每瓣의 길이는 3분이다. 小棋頭 위에는 散料<sup>51)</sup>를 설치한다. 平坐鋪作에서는 小棋頭를 사용하지 않고 華棋頭와 더불어 相列한다. 그 華棋 위에 令棋에 이르기까지 棋을 중첩하는데, 每跳의 中心위에는 쇠두를 둔다.

慢棋은 切几頭<sup>52)</sup>와 相列한다<sup>53)</sup>. 切几頭는 材의

주)

- 49) 귀포에서 瓜子棋이 角棋이나 角昂을 지나쳐서 뛰어나오게 되는데 이 뛰어나온 머리 부분을 小棋頭라 한다. 瓜子棋보다 월씬 작은 棋頭를 지닌기 때문에 小棋頭라 하는 것이다.
- 50) 주심포나 주간포에서 瓜子棋이 사용되는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사용되는 列棋의 한 형식이다. 즉 귀포에서 전면에 사용되는 瓜子棋은 축면에서 볼 때, 角棋이나 角昂과 교차하여 외부로 돌출하게 되는데, 이 돌출하는 부분이 華棋의 길이보다 짧은 小棋頭로 돌출하게 된다. 따라서 瓜子棋은 華棋이 아닌 小棋頭와 出跳相列한다고 하는 것이다.<도.16, 17>
- 51) 泥道棋, 瓜子棋, 慢棋, 令棋의 涵端에 설치하는 소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料>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52) 切几頭는 돌출한 머리부분이 소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窄아 棋의 단부와 같이 깎아내지 않은 것을 말한다. 切几頭는 일반적으로 ‘入瓣’ 또는 ‘兩卷瓣’의 형식으로 한다.(徐伯安, 鄭薰姪, 『前揭書』, p.55)<도.18>
- 53) 列棋중에서 외부로 출목을 형성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이다. 즉 전면에서 보아 慢棋이 축면에서는 角棋이나 角昂을 지나쳐 외부로 돌출하지 않고, 角棋이나 角昂과 교차하기 바로 전에서 단부를 절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切几頭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列棋으로는 慢棋이 華棋과 出跳相列하는 경우(이때는 慢棋이 角棋이나 角昂과 교차하여 외부로 華棋의 길이나 형태로 돌출한다.)와 慢棋이 華頭子와 出跳相列(앞의 예와 같으나 그 위에 下昂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華棋의 단부를 華頭子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경우가 있다.<도.16, 17>
- 54)原本에는 ‘面卷瓣’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面’은 ‘兩’의 誤記로 ‘兩卷瓣’으로 해야 한다. 이는 앞의 주)에서 切几頭의 단부를 처리하는 수법과 관계된다.
- 55) 下昂을 사용한 공포에서 下昂을 받기 위해서 그 아래에 위치한 華棋의 단부를 下昂의 경사에 맞추어 질라내고, 그 하부를 兩卷瓣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飛昂>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 56) 귀포의 가장 바깥 출목선상에 형성되는 列棋으로 앞의 세 가지 列棋과는 다른 구성을 한다. 즉 相列하는 두 개의 棋이 모두 橫棋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여기에서 외부로 돌출하는 棋이 華棋이 아닌 瓜子棋의 길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列棋의 계열로 瓜子棋 대신 小棋頭나 切几頭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도.16, 17>
- 57) 우리말의 도리받침장례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58) 棋口는 棋과 棋을 결구하기 위하여 판 흠이다.
- 59) 이 규정에서 華棋은 옆을 장으로 합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건축에서 華棋과 같은 부재인 山彌를 옆을 장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아랫 부분을 微刻하여 兩卷瓣<sup>54)</sup>으로 한다. 轉角鋪作이 足材로 된 下昂造인 경우에 慢棋은 華頭子<sup>55)</sup>와 더불어 出跳相列한다. 華頭子는 昂을 받는 것으로 昂制度內에 있다. 令棋은 瓜子棋과 더불어 出跳相列한다<sup>56)</sup>. 替木<sup>57)</sup>머리나 檻檻方 머리를 받는다.

棋口<sup>58)</sup>를 만드는 방법 ; 華棋은 아랫면에 흠을 파는데<sup>59)</sup>, 높이는 5분, 角華棋인 경우는 10분, 너비는

20분으로 한다. 이 안에 包樑科耳<sup>60)</sup>가 있다. 이 흄 상부의 중심 양면에는 子牘<sup>61)</sup>을 파서 이와 결구되는 棱의 몸체를 끼우도록 한다. 子牘의 폭은 10분, 角華棟인 경우에는 隱科<sup>62)</sup>를 連하여 通開한다. 깊이는 1분으로 한다. 이외의 棟, 즉 泥道棟, 瓜子棟, 慢棟, 慢棟은 부재上面에 흄을 파는데, 그 깊이를 10분, 너비를 8분으로 한다. 棟이 보위에 놓이거나

昂이나 보와 교차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적당히 흄을 판다. 귀포에서 足材를 사용한 레거는 그 上下에 각각 흄을 파내는데 상면의 흄은 깊이를 10분으로 하고, - 梁와 접한다. - 하면의 흄은 깊이를 5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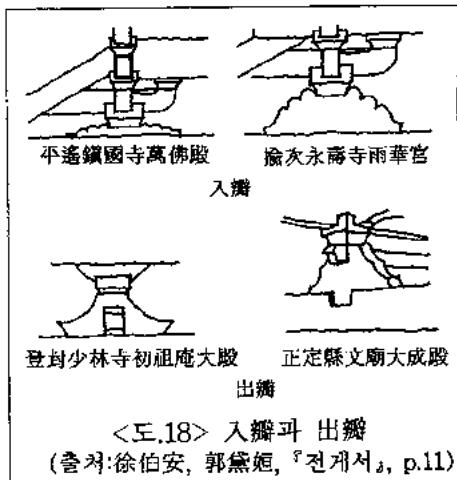
棟이 귀포에 사용되어 두개의 棟이 길게 붙어 있을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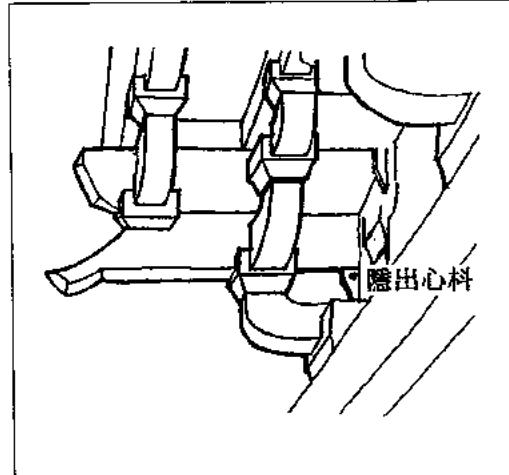
60) 우리 말의 '알통'에 해당하는 용어로 자세한 내용은 뒤의 <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61) 華棟의 중심 양면을 1分°씩 깎아 그 폭을 8分°이 되게 하여 이와 결구되는 첨차(泥道棟, 瓜子棟, 慢棟, 令棟)에 낸 8分°의 흄과 맞물리게 하는 것으로 첨차의 몸체가 華棟의 흄에 물리게 함으로써 華棟과 첨차의 결구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결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도.2>

62) 棟, 梁, 方 등의 부재 위에 隱出한 料 모양의 얇은 浮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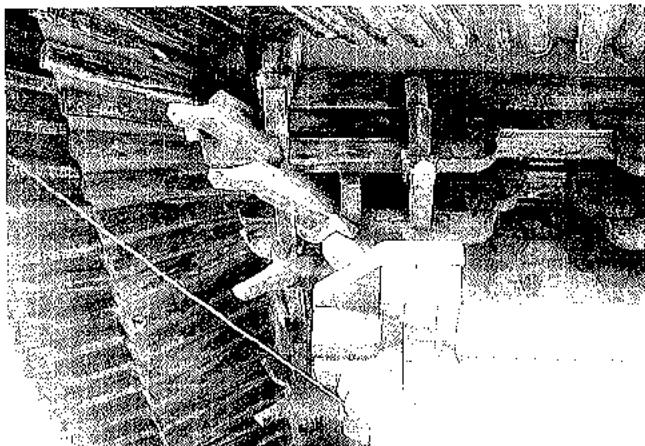


<도.18> 入瓣과 出瓣  
(출처:徐伯安, 郭黛姮, 『전개서』,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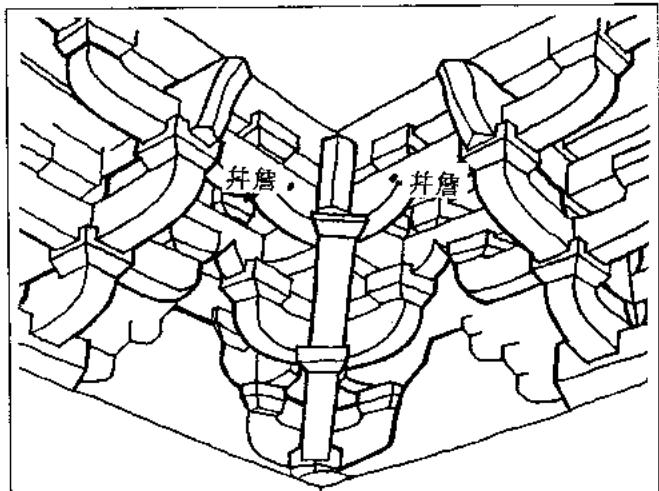


<도.19> 鴛鴦交手栱

〈사진.6〉 봉정사 대웅전 공포의 운출심두



〈사진.9〉 안동 봉정사 대웅전 귀포



〈사진.10〉 봉정사 대웅전 내부 귀포

때에는 그 중심에 斜를 설치하고, 斜아래의 양면을 서로 교차시켜 桁의 머리를 隱出한다. 이 때에는 令拱도 四瓣을 사용한다. 이를 鴛鴦交手拱<sup>63)</sup>이라 한다. 内出目에 사용된 桁도 마찬가지이다.

이상 『營造法式』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桁과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전통목조건축의 용어와 비교하여 <표.1>에 나타내었다.

<표.1> 『營造法式』의 桁

종 류	길 이	卷 殼	瓣 長	다른명칭	사 용 위 치	한 국	비 고
華 桁	72分°	4瓣卷殺	4 分°	杪桿, 卷頭, 跳頭	보방향, 足材桿을 사용 주간포에서는 單材를 사용	山彌	角桿, 角昂, 丁頭桿
泥道桿	62分°	4瓣卷殺	3分°半	-	柱頭위에서 華桿과 직교하여 결구 重桿造에서만 사용	柱心小詹(小桿頭)	斜口跳, 單桿造에서 는 令桿을 사용
瓜子桿	62分°	4瓣卷殺	4 分°	-	出目線上에서 華桿과 직교하여 결구 5鋪作 이상의 重桿造에서만 사용	出目小詹	4鋪作이하에 사용하지 않음
令 桁	72分°	5瓣卷殺	4 分°	單桿	內外出目의 最外端 出目線上에서 쇠두와 직교하여 결구. 주심선상이 單桿造인 경우에도 令桿을 사용.	해당하는 적합한 용어 없음.	裏跳騎桿인 경우에 足材 사용
慢 桁	92分°	4瓣卷殺	3 分°	腎桿	柱心線上, 出目線上에 놓인 두 단의 첨차중 상부에 놓인 것으로 華桿과 직교하여 결구 重桿造에서만 사용	大詹	騎桿, 轉角鋪作인 경우에 足材 사용

### < 참고문헌 >

- 國土開發研究院, 『營造法式(二)』, 1989  
 國土開發研究院, 『營造法式(一)』, 1984  
 金度慶, 『朝鮮時代 营造儀軌의 桁包用語에 관한 研究』,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92  
 徐伯安, 鄭熙炳, 『宋<營造法式>述語匯釋』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北京:清華大學出版社, 1984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梁思成, 『中國建築資料集成』, 臺南:成功大學建築系, 1969  
 李誠, 『營造法式』,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68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서울:문예출판사, 1992  
 張起仁, 『한국건축대계IV-한국건축사전』, p.120, 서울:보성문화사, 1991  
 張三植, 『漢韓大辭典 : 大字源』, 서울:삼성출판사, 1988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서울:일지사, 1988  
 Liang Ssu-ch'ong,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4

주)

63) 두개의 桁을 길이방향으로 겹쳐서 하나의 몸으로 만든 것을 鴛鴦交手桿이라 하며, 이 두개의 桁이 교차되는 부분에는 桁의 머리를 隱出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귀포의 외출목선상에 있는 左右隊중에는 두개의 부재를 연속 시켜 하나로 처리한 수법이 있고<사진.9> 내출목선상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한 并詹<사진.10>이 있다.

# 실크로드 건축기행

Architectural Ruins of the Silk Road Regions

金慶坤/동아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by Kim, Sung-Kon

오랜 실크로드의 역사속에 음식의 기호품을 위시해서 향료, 비단, 보석등이 동서교역의 주요한 대상이었고 또한 예술이나 종교등도 전파되는 통로였다. 그런데 건축에 있어선 중국에서 자중해까지 하나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리엔트로 표현되는 서방아시아와 유럽은 지중해란 공유영역을 통해 깊숙한 관계가 있었으나 서방아시아와 동부아시아인 중국과는 별다른 연계성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럽문명의 원류가 되는 그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도덕의 양식과 열주형식이 전래되고 로마는 동방으로부터 아치구조를 전수받고 다시 펜덴티브(pendentive)구조에 의한 둔 구조법도 이어받아 위대한 로마 건축을 대성시킬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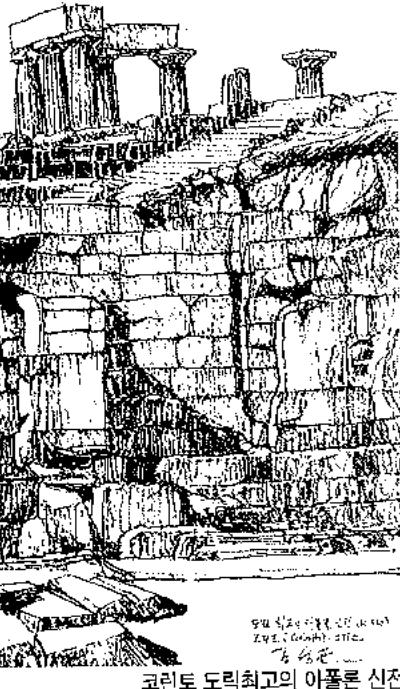
그리고 훌륭한 건축적 성공을 거둔 시산 페르시아 건축은 이슬람의 건축적 지주가 되면서 이슬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지중해 세계는 물론이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고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서역까지 뻗쳤으나 그 이상의 전진은 없었다. 이것은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강한 중국으로선 중국이외의 나라나 민족을 대개 미개한 야만으로 취급하고 멸시하였기에 건축은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중국의 일반건축에서 초기의 목조양식에서 벽돌조로 전환한 것이나 주거건물에서 가운데에 마당을 두는 사합원(四合院)이나 천정(天井)으로 표현되는 중정을 눈것 등은 오리엔트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 2. 실크로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 B.C 484~425)가 쓴 역사란 책에는 기원전 7세기에 흑해북녘에 살고 있던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족에 의한 고도의 금속문명이 중국의 천산(天山)기술의 사카족에게 까지 전파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래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고대교역로(古代交易路)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중국에서 서역(西域)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및 지중해로 이어지는 큰 통로이며 또 하나의 통로는 시기는 좀 다르지만 지금의 인도에서 페르시아를 지나 지중해로 잇는 통로도 포함된다.

근래에 널리 통용되는 실크-로드(Silk road)란 말은 19세기말(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벤(F. Richthofen)의 저서 「중국」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중원에서 서역에 이르는 길을 비단이 운반되었던 사연으로 비단길(Seidenstrassen : 독일어)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란 말은 동서양의 고대세계를 잇는 통로란 뜻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중국에선 쓰추어지루(絲綢之路)로 통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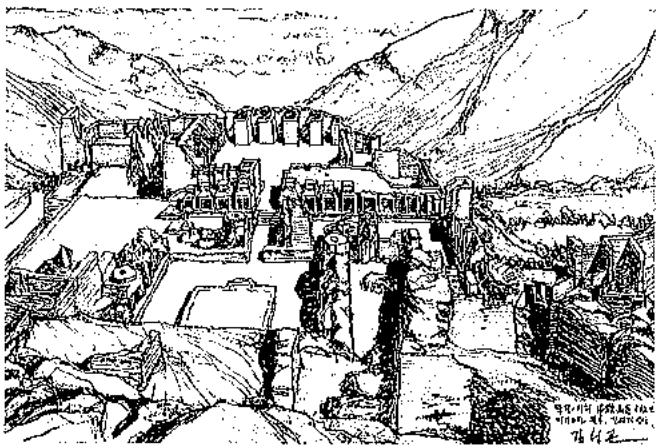
오아시스의 길 실크-로드의 활발한 동서교역은 중국의 한무제가 서역의 흉노를 평정하던 기원전 150년대 부터 인것 같다. 이때부터 후한(後漢 : AD 25~AD 220)이 멸망한 때까지의 약 350년간이 1차 번영기(B.C 150~AD 200)가 된다. 이때 파마르고원 서편의 중앙아시아는 발티아 제국(Partia : B.C 248~AD 226)이 있었고 유럽은



코린토 도릭최고의 아폴론 신전

## 1. 서론

인간이란 그들 나름대로의 집단이 우연히 서로 만나거나 또는 한데 얹히는 속에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었다. 비단이나 종이가 그렇고 유리나 청동주조의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선양 또는 기술의 경우도 결코 격리되어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높은 곳의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 속에 응축된 힘에 따라 다른 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나 기술이 흘렀던 주요한 통로가 실크로드(Silk road)가 아니었던가 싶다.



탁티-바히 불교 산사의 전경



페르세포리스의 고대 페르시아 궁궐 유적

지중해세계를 장악한 로마 제국(Roma : B.C 509~AD 330)이 있었다. 이 시기에 기록된 내왕 인사로는 전한의 장건(張騫 : B.C 138~126)은 월지국에 다녀왔고 후한의 감영(甘英 : AD 97년 출발)은 로마로 파견되었으나 지중해 연안(현재의 시리아)에 이르렀고 AD 166년에는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大泰王 安敦)의 사절이 왔던 것이다. 특히 B.C 2년(AD 67년 설도 있음)에는 불교도 이 길을 따라 서역(중국)으로 들어 왔던 것이다.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三國), 육조(六朝), 수(隋) 등으로 이어지는 약 400년간(AD 200~600)은 국내의 분쟁과 혼란으로 내왕이 침체된 공백기라 할 수 있다. 7세기에 들어 중국대륙을 통일한 당(唐 : 618~907)의 출현으로 서역통로가 다시 개통되었다. 실크-로드는 다시 활기를 찾고 약 300년간의 2차 번영기(AD 600~900)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내왕했던 인물로는 현장법사(玄奘 : 629~645)가 인도여행을 마치고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펴냈다. 651년에는 이슬람(Islam) 사절이 들어옴에 따라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서역문화의 문화유입이 활발했으며, 716년과 720년에는 인도의 불승(佛僧)이 장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751년에는 다拉斯 전투에서 고선지(高仙芝)의 군대가 이슬람군에게 패배 당할 때 포로가 된 제지(製紙) 기술자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 종이 제조법이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국내는 다시 분열되고 오대십국(五代十國),

북송(北宋), 남송(南宋), 금(金) 왕조로 이어지는 약 350년간의 침체기를 맞았다. 13세기에 들면서 몽골족의 대부분으로 중국대륙과 서방아시아 전역을 그들의 영토가 된 사상 최대의 대제국이 건설되고 약 200년간(AD 1250~1450)은 실크-로드의 안전이 보장되고 또한 동서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3차 안전기) 이 시기는 원(元 : 1271~1368)이 포함된 몽골제국(1206~1391)과 명(明 : 1368~1644)의 초기가 해당된다. 1246년에는 로마교황의 사절이 들어오면서 가톨릭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베네치아인 마르코·폴로(Marco Polo : 1254~1324)가 대도(大都 : 지금의 북경)에 다녀가서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을 펴내면서 아시아의 여러 모습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세력이 먼저 소멸되고 중앙아시아의 티무르제국의 황금기가 종료되었다. 유럽에선 1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le : 지금의 Istanbul)까지 1453년에는 오스만-터키에게 함락되고부터는 실크-로드는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 뒤이어 1498년 바스코-다마의 인도양 항로의 발견에 의해 더 이상 고된 육로보다 경제적인 해로에 의한 교역이 시작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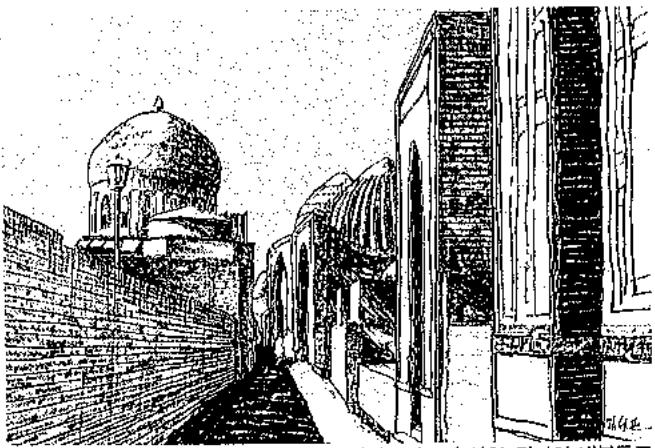
### 3. 동서의 역사세계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사는 흔히 동양사와 서양사를 합쳐버린듯 그런

체제로 서술된 것이 대반이다. 이런 체제로 시작된 세계사는 동양과 서양을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고 해석하다가 중국에는 유럽이란 서양우위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서양이란 유럽대륙은 기독교 문화권으로서 일원세계(一元世界)로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동양이란 아시아 대륙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다원세계(多元世界)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폐상적으로 단순히 어떤 시각에서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시아와 유럽은 그 면적에 있어서도 4:1이고 인구도 같은 수준이다. 특히 기원전 1500년을 기준으로 그의 역사를 보면 아시아의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및 메소포타미아문명도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나 유럽은 아직 역사의 장에도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세계가 역사에 나타난것은 이보다 1000년이 늦은 기원전 500년경이다. 그리고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중 3개가 아시아에 있으나 유럽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비유럽지역에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다원세계인 아시아를 하나로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풍토적인 시각에서 아시아를 습윤아시아(Wet Asia)와 건조아시아(Dry Asia)로 대별하면서 동양(東洋 : 동부아시아)과 중양(中洋 : 서부아시아)과의 민족문화권으로 양분시킨 학설도 있다. 이것은 아시아대륙을 중국문화를 중심한 동양과 이슬람문화권의



사마르칸트의 사하-진디의 내부통로



터키 카파토키아의 암굴 수도원

중앙으로 이원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도아(印度亞) 대륙이 송두리째 제외된 모순이 있다.

7세기 당(唐)의 구도승 현장(玄奘)은 인도 유학중 인도의 지리관(地理觀)을 터득하고 돌아왔다. 그의 저서 대당 서역기에는 인간세계(아시아대륙)를 동서남북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쪽은 인주(人主)의 나라 중국, 남쪽은 상주(象主)의 나라 인도, 서쪽은 보주(寶主)의 나라 페르시아, 북쪽은 마주(馬主)의 나라 흉노(匈奴)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현재의 시각에서도 매우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북쪽 마주의 나라는 유목민의 활동무대이며 근세에 들어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비중이 쇠퇴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3개권 제안의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3개권은 같은 대륙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각각 이질적인 것이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권역의 경계지대가 협준한 산악아니면 사막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그의 첫째 원인이다. 따라서 상호교류의 어려움이 심각했던 것이고 혼난한 실크로드의 유일한 통로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3개권은 동방아시아권, 남방아시아권 및 서방아시아권이 된다. 동방아시아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권이고 불교권이며, 남방아시아권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권이고 힌두교 승상지역이다. 서방아시아권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를 중심한 오아시스문화권이고 이슬람교권이다. 동방과 남방아시아권은 습윤(濕潤)지대로서

같은 농경문화권이지만 민족문화권에서는 남방아시아권은 건조(乾燥)지대인 서방아시아의 오아시스문화권과 연결된다.

동양과 서양(유럽문화권)과의 연결은 소아시아와 지중해였다. 지중해는 동양과 서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도 연결되는 손쉽고 편리한 통로였다. 사람과 물자의 교류만이 아니고 건축에서도 그의 구조기술이나 장식수법도 전달되었다. 고대사회에서 서양은 서방아시아를 통한 동방이나 남방아시아로부터 내륙 실크로드에 의한 문물의 교류가 빈번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동서교류의 경로이고 중계지로서 서방아시아는 활기를 떠면서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이 때의 서방아시아의 이슬람문화권은 황금기를 맞으면서 동서양의 역사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드높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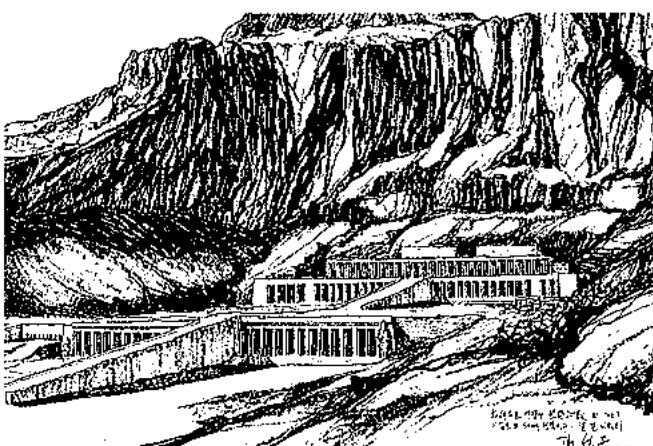
그러나 15세기에 들면서 동방항로의 개척으로 서양은 서방아시아를 거치지 않고 벗길따라 남방아시아(인도)나 동방아시아(중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내륙지향적이던 도시입지가 점차 해안도시의 탄생으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안전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바다의 통로개설은 실크로드의 소멸과 서방 아시아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것은 서양에선 가장 가까웠던 이웃이 가장 먼 남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창세기(創世期)이래 동양과 서양은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살아왔다. 이 대륙은 거대한 것으로서 동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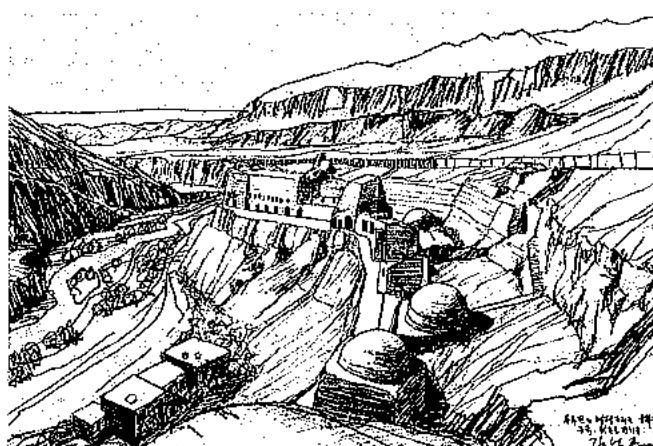
아침일때 서쪽은 한밤중이다. 한쪽이 밝을 때 다른쪽은 어둠속이다. 또한 한쪽이 황금기일 때 다른 쪽은 암흑기였다. 함께 밝거나 함께 황금기를 맞은 적은 없었다. 한쪽이 기(氣)를 얻을 때 다른쪽은 멸(滅)이 닥치는 것처럼 짓궂은 역사가 지니는 고저현상(高低現象)의 속성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족과 국가이다. 각 민족에게 뿌리가 있는 것과 같이 국토에도 뿌리가 있다. 올바른 뿌리찾기는 참된 역사를 밝히는 요체가 된다. 근래와서 유럽은 모든 면에서 뿌리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게는 가문의 계보 찾기에서부터 크게는 국가나 민족, 그리고 문화의 맥락에 이르기까지 활발하다. 유럽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뿌리찾기에서 그리스를 그들의 뿌리로 귀착시켰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분에 넘치는 승화로 그들 스스로의 위대함을 과시하려 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굴된 볼품 없는 향아리 하나도 빼짐없이 그 무수 높다란 예술성을 드높이며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상의 편견은 동서양 연구에 커다란 혼란을 가중시킨다. 역사가 아닌 왜곡된 자료만의 연구로서 편견에 가득찬 왜곡된 결과만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깔려있기에 서슴없이 짤라내기도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은 참으로 못 미땅하다. 비뚤어진 것을 안 이상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고 해도 왜곡된 기록이 아닌 참된 역사를 밝혀야 될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세계관적인



델·엘·바하리의 하셔스트 여왕의 장제신전



트루판의 베제크리크 전경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연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 4. 유럽건축의 원류

민족이나 문화의 근원적인 뿌리를 무시한 채, 근세에 들어와서 유럽의 역사가들이 지중해를 유럽의 전유물로 한 연장선상에 그리스를 올려놓고 고대의 찬란했던 동방세계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대립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중해는 자고로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삼대륙과 연관짓는 역사영역이었다.

그리스는 민족이나 언어계통이 다른 고대 미노아(크레타) 문명을 그리스와 연결시킴으로써 일찍부터 고대 동방제국과 대등한 관계로 이어나가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유럽문명의 원천으로 대단히 주요한 입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는 동부 지중해의 북녘에 있는 작은 나라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가 처음으로 역사의 장에 등장된 것은 기원전 14세기의 일이고 이때는 이미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아나 고 바빌로니아, 소아시아의 헛타이트와 지중해의 크레타도 소멸되고 난 다음의 시기이다.

그리스 문명의 원류는 크레타이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약 500년간 미노아 문명은 황금기를 맞았던 것이며 예술이나 건축에 비범한 재능이 넘쳤다. 일찍이 그리스 본토까지 그들의 손이 미쳤으며 그리스는 여기서부터 예술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크레타를 정복하고 지중해 활동을 승계받은 뒤 소아시아나 이집트와의

교역이 시작되었다. 교역과 더불어 고대이집트에선 도릭(Doric)양식과 열주(列柱)형식이 도입되고 소아시아선 이오닉(Ionic)양식을 도입시켜 그리스 건축의 기초를 다졌다. 이집트의 테베의 나일강 서안의 하셔스트 여왕의 장제신전 전면에 있는 열주형식의 주랑(柱廊)과 돌기둥은 그리스의 도릭양식의 원형이다. 주두(柱頭)나 주신(柱身)도 같고 초반이 없는것 까지도 같다. 이 장제신전의 건립연도는 BC 1501년이다. 소아시아(현 터키)의 옛 헛타이트의 수도

보가스코이(Boghasköi) 궁전의 동편 암벽에 투드라히아 4세의 조각물이 있다. 여기에 이오닉 양식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헛타이트에서 이미 이오닉의 기둥을 썼음을 반증하고 있다.(BC 15세기경의 조각)

그리스보다 약간 시대를 뒤로 하고 있는 로마에 있어서 그의 선주민(先住民)이었던 에트로스칸(Etruscan)은 동방의 소아시아(예게연안의 트로이 지방)에서 기원전 10세기경에 이주해온 민족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이미 동방에서 아치(arch)나 볼트(vault)의 구조기법을 습득하였던 것으로 이 기법은 로마인에게 전수되고 이 구조는 로마건축의 기초가 되었다. 아치나 돔구조에 의한 거대한 건조물의 구축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는 또한 대로마 건설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일설에 따르면 기원전 1250년경 트로이 함락시 아이네이아라는 왕족이 탈출에 성공하여 혜협을 건너 마케도니아로해서 에게해의 크레타섬을 지나 시시리섬으로 가서

이탈리아로 갔다고 한다. 그의 자손이 바로 로마건국의 아버지인 로무르스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나 로마도 그들의 주요한 줄기가 되는 건축요소는 동방에서 전래된 것이며 그들이 동방에 전파시킨 것은 작은 가지나 잎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나 헛타이트에서 전래된 도릭이나 이오닉 양식의 기둥과 열주형식을 더욱 예술성 높은 걸작품을 만들었던 그리스인의 지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로마도 동방의 아치구조를 활용하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대로마를 건설시킨 열의는 놀랄만한 일이다.

고대의 동방적 요소가 깊숙이 그리스나 로마 건축에 깔려 있으나 중세나 근세에 서로 오고간 혼적은 찾을 길이 없다. 예를 들면 1829년까지 400여년간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에는 오스만적인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역사적으로 흡이 있는 것은 깨끗이 없애는 유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에는 2000년이 넘는 유적은 있으나 200년전의 유적은 없으며 역사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어두운 역사는 아예 잘라버리기에 역사는 역사가가 만든다는 말이 적중되는 나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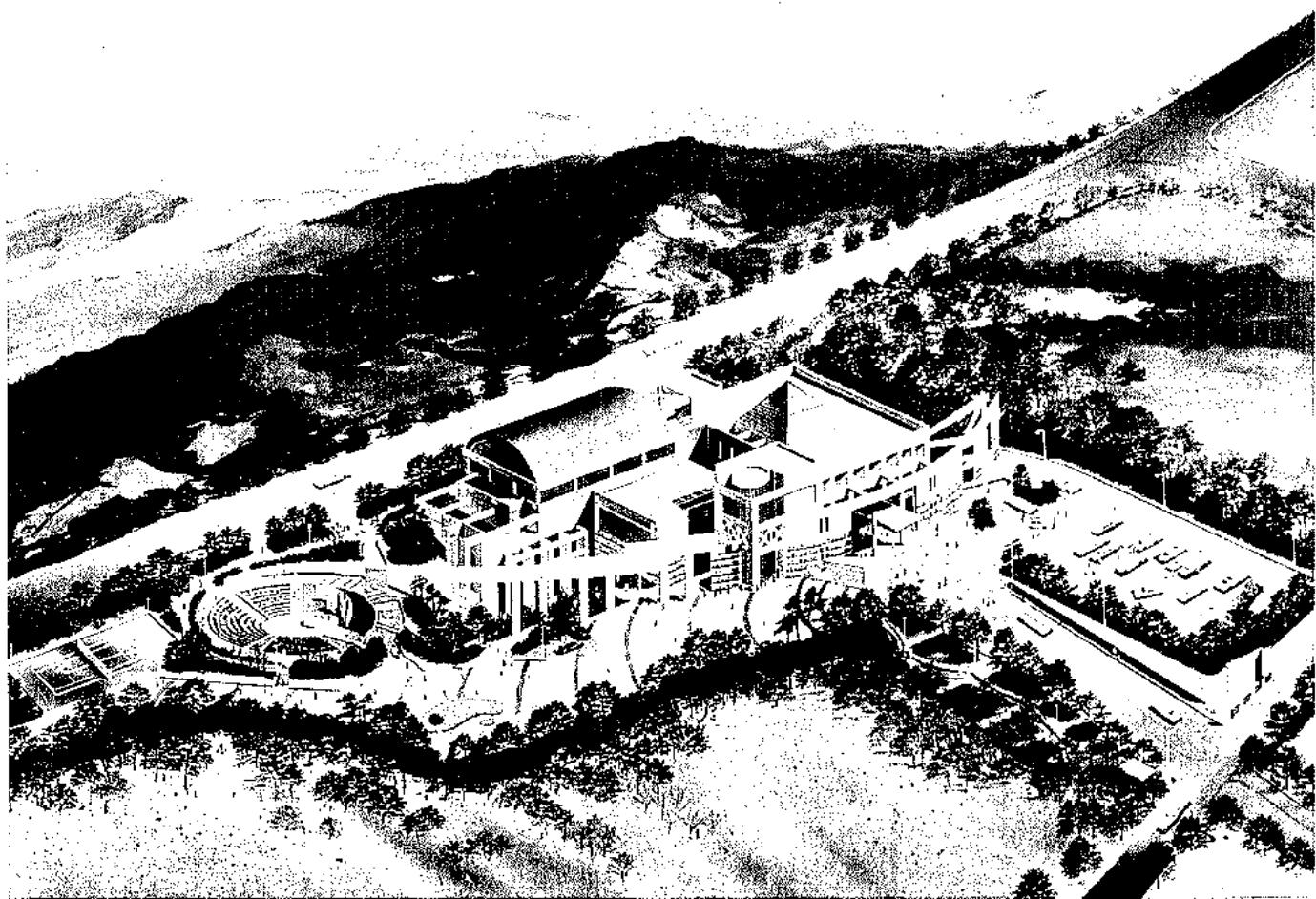
주 : 지금 현지에서 볼수 있는 실크로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익혀진 모습이란 퇴색되거나 사라져 버렸다. 이런 속에 몇 개의 자취와 가닥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닥들을 스케치에 담아 실크로드-드로잉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 서울전시 : 예술의 전당 미술관(11.2~11.10)
- 부산전시 : 국제산문 문화센터(11.28~12.3)

## 검단복지회관

김포군에서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창달 그리고 체력향상을 위해 복지회관건립 현상설계를 응모한 결과 지난 10월 5일 진우종합건축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총 8개사무소에서 응모한 이번 설계 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종합건축동영건축안과 대도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감도



위치 /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산 147번지

부지면적 / 약 12,056m<sup>2</sup>

부지조건 / 도시계획구역, 준주 거지역

건축면적 / 1,723.03m<sup>2</sup>

연면적 / 4,266.52m<sup>2</sup>

건폐율 / 14.29%  
용적률 / 2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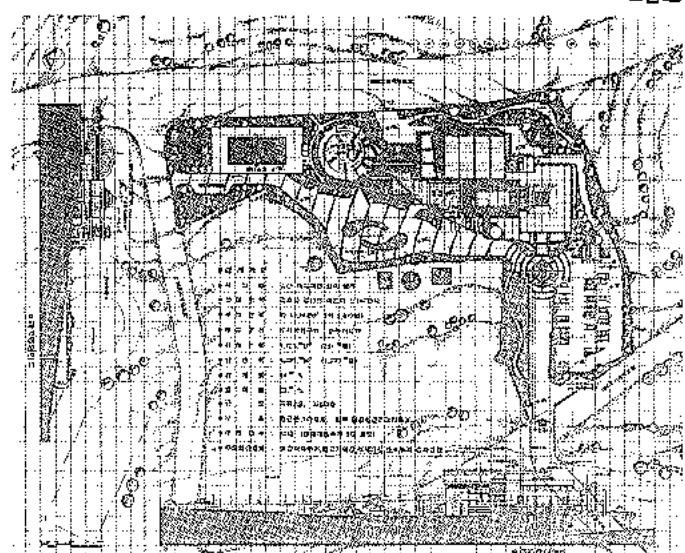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  
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50대(장애인용 주차  
2대 포함)

주요외장재료 / 화강석혹두기,  
물갈기마감, 석  
제타일, 불소수  
지 철라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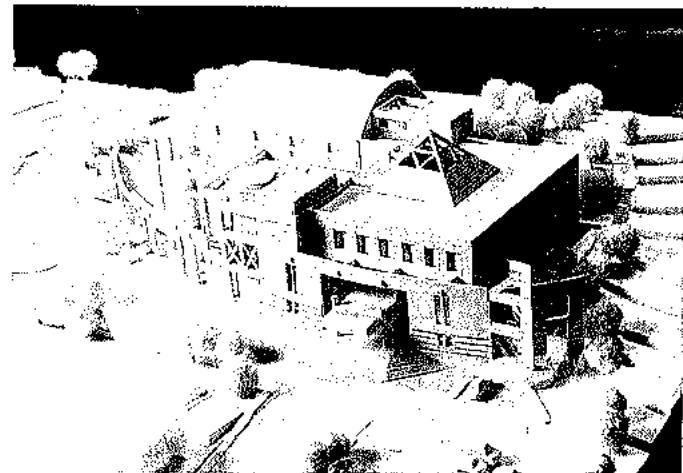
설계담당 / 지영호, 권오정, 김  
미숙, 김용균, 원명  
숙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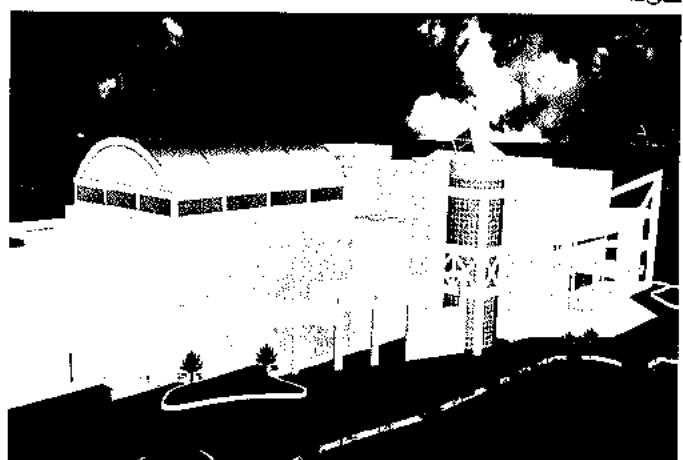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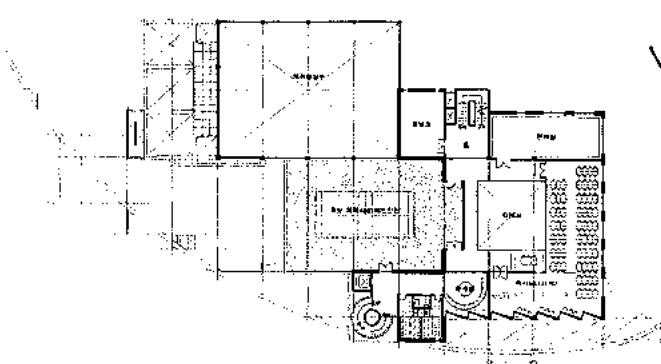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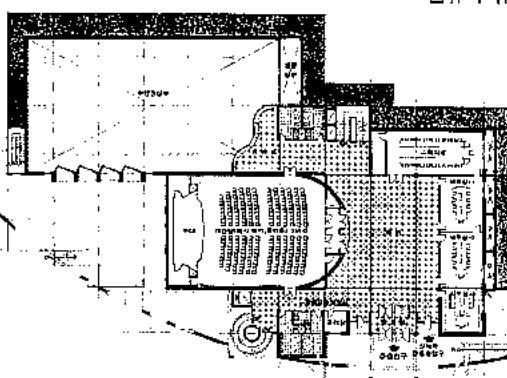
컴퓨터시뮬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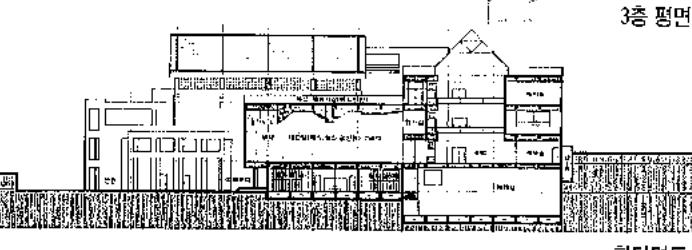
컴퓨터시뮬레이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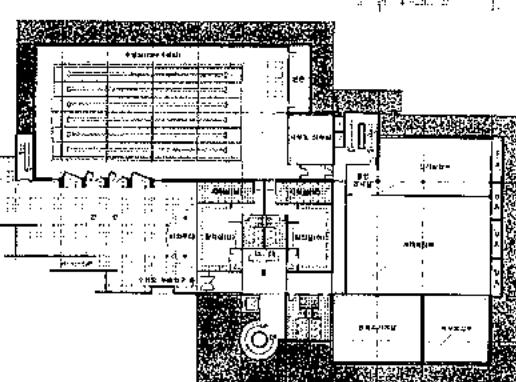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 □ 계획의 목적

- 근로자들의 휴식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계획
-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로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의 형성
-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동선 계획
- 장래 김포군과 겹단지역의 발

전 성장에 따른 확장 및 증축 계획

- 밝고 활동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조형성
- 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연계성

####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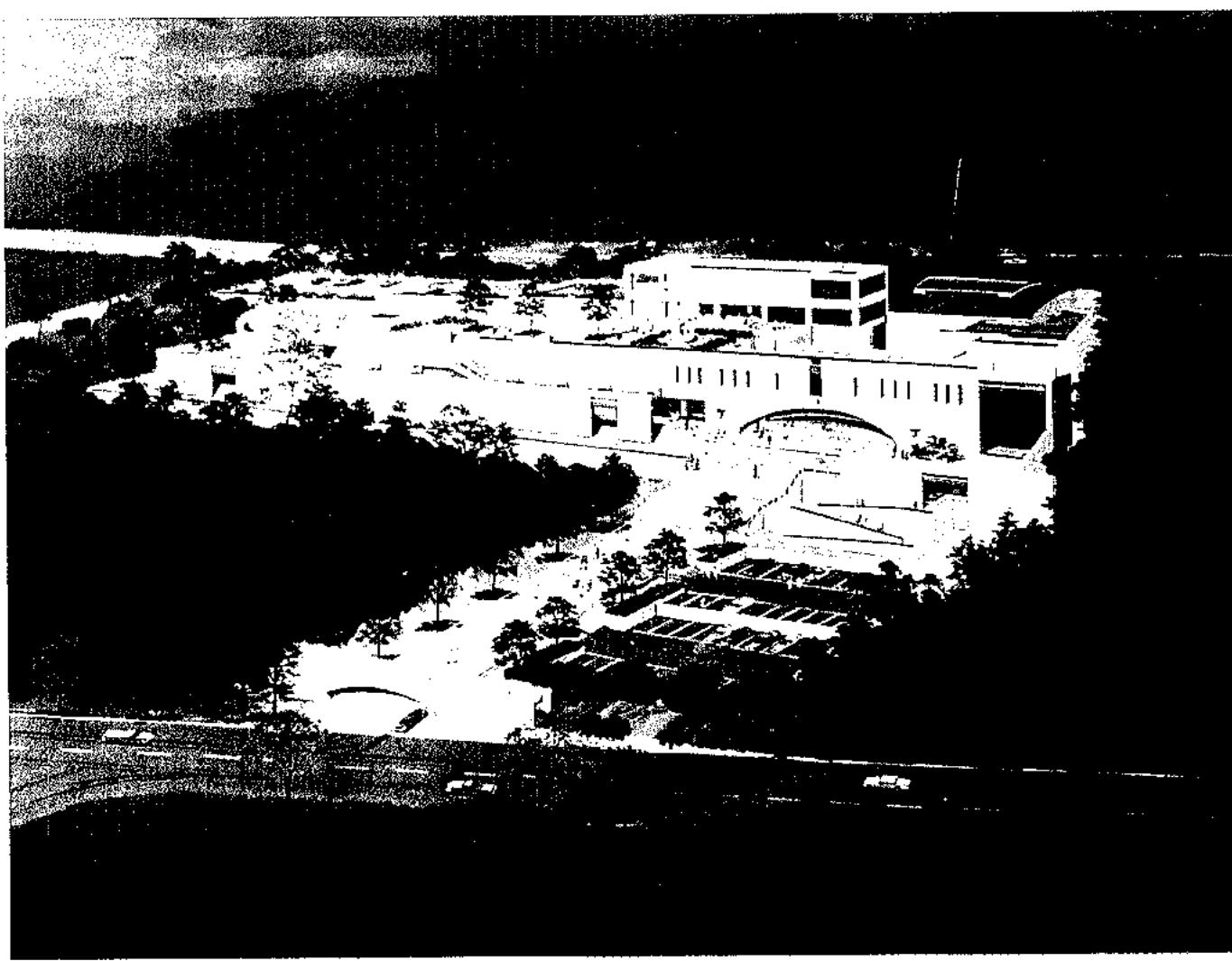
- 대지축에 따른 순응적 배치계

획, 장래확장,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적 공간배치

- 체육시설의 상징적 이미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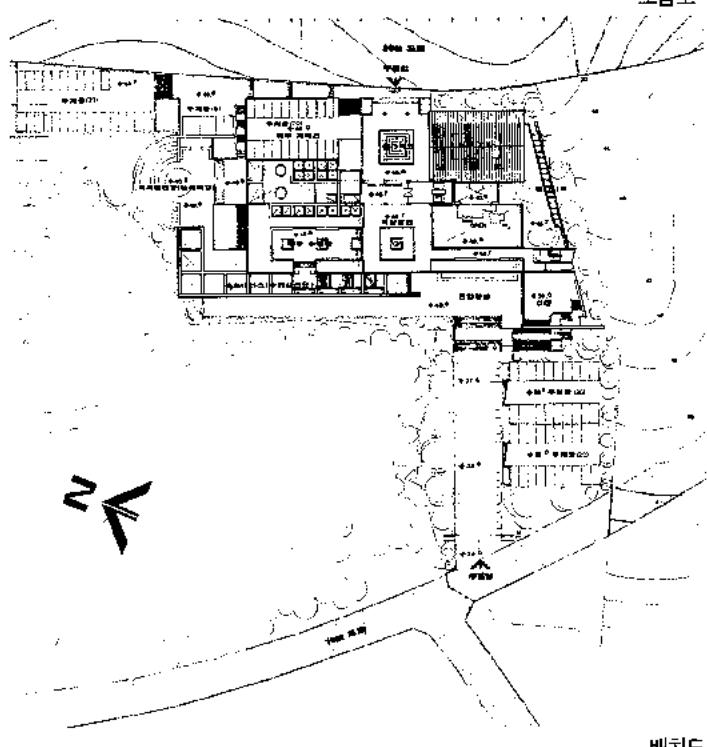
-옥외 체육시설확보에 의한 군민 생활체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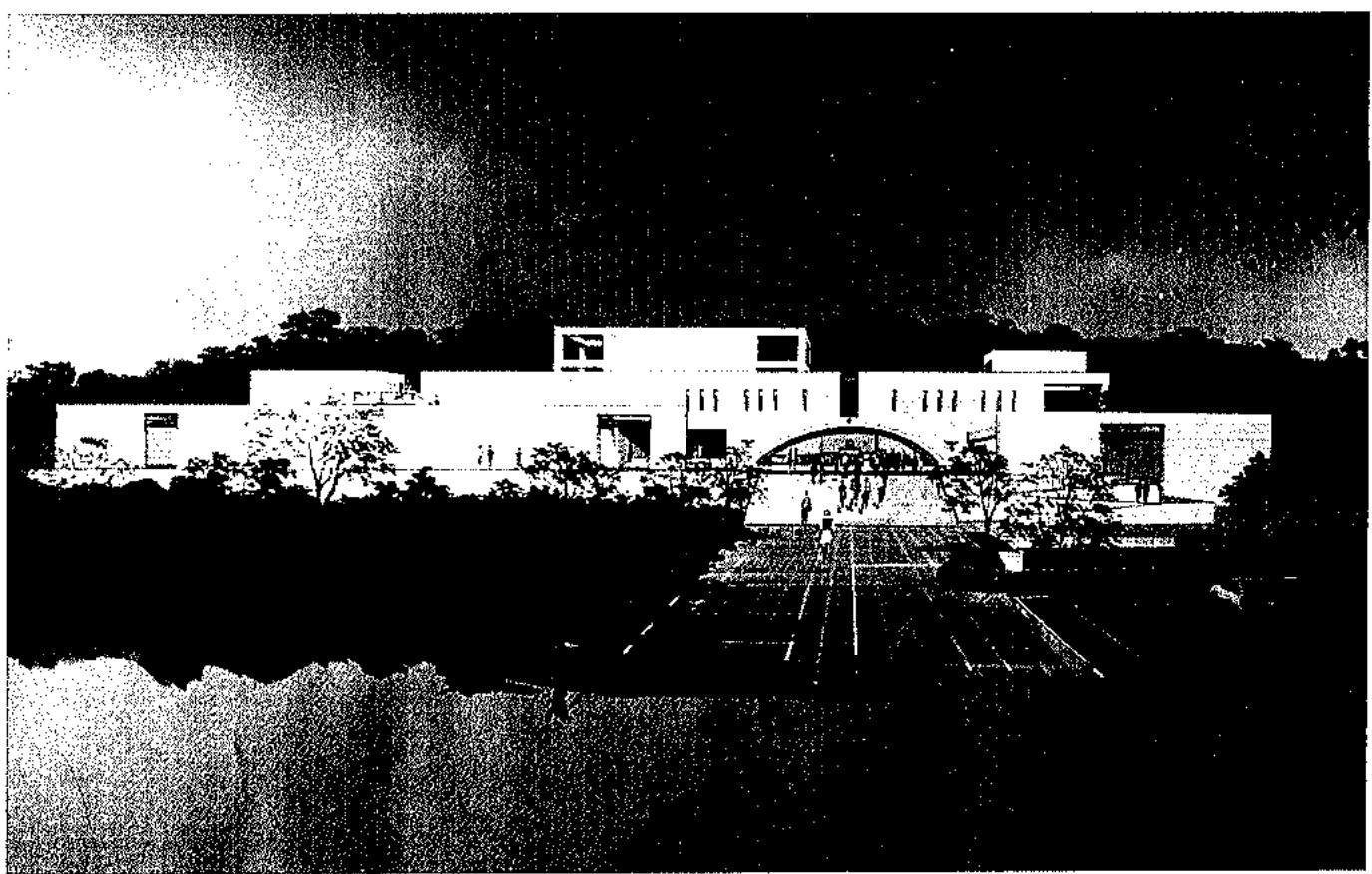
- 전통성과 미래지향적인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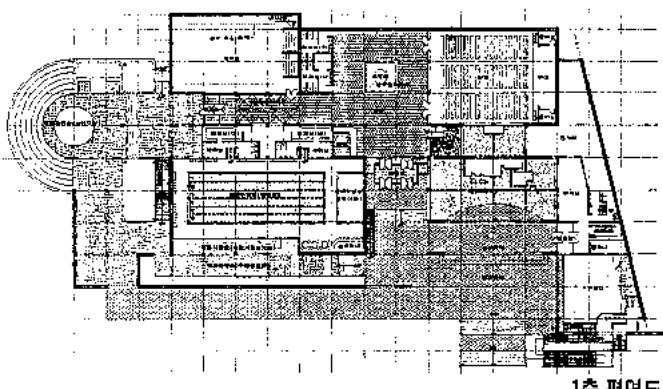
동영종합건축  
(대표 이명규)

위치 / 경기도 김포군 첨단면 바  
전리 산 147  
대지면적 / 12,056m<sup>2</sup>  
지역·지구 / 주주거지역  
건축면적 / 3,004.8m<sup>2</sup>  
연면적 / 4,464.12m<sup>2</sup>  
건폐율 / 24.92%  
용적률 / 30.0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일부 철  
골 트러스(자봉)  
주요외부마감 / 화강식 흑두기  
및 벼너마감+  
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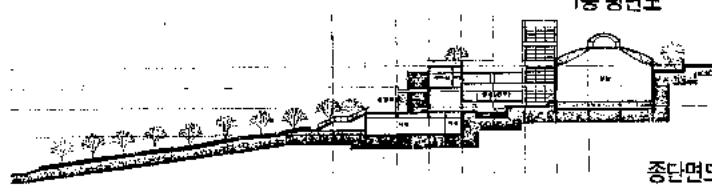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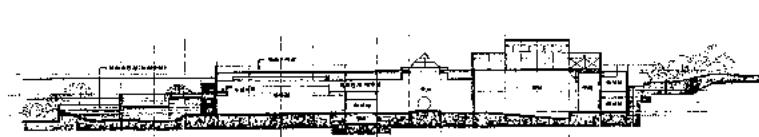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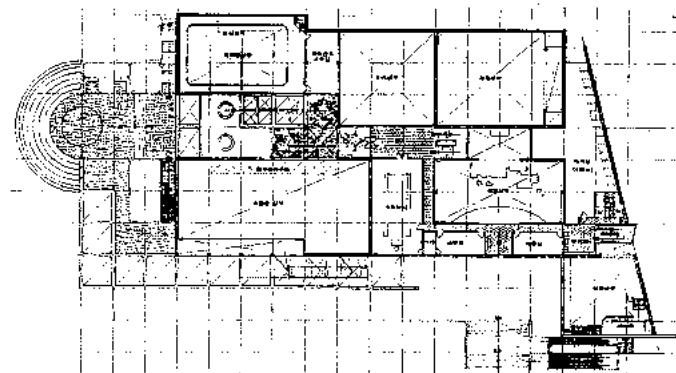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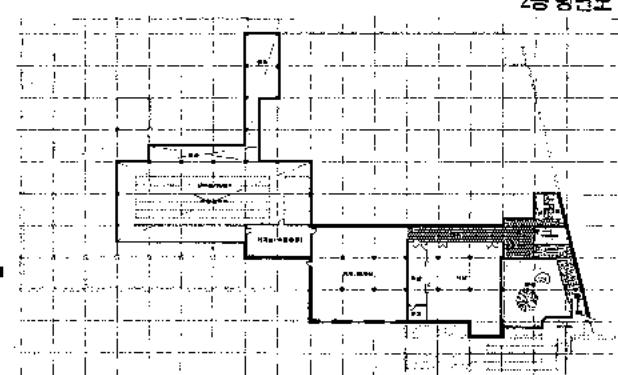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2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 기본방향

- 생동감 있고 인간적인 건물, 일시적 유행이나 조류를 타지 않는 연속성
- 건축적 공간의 국태화
- 대지의 고저차를 적절히 이용하고 전면 개발예정지와 후면 균린공원과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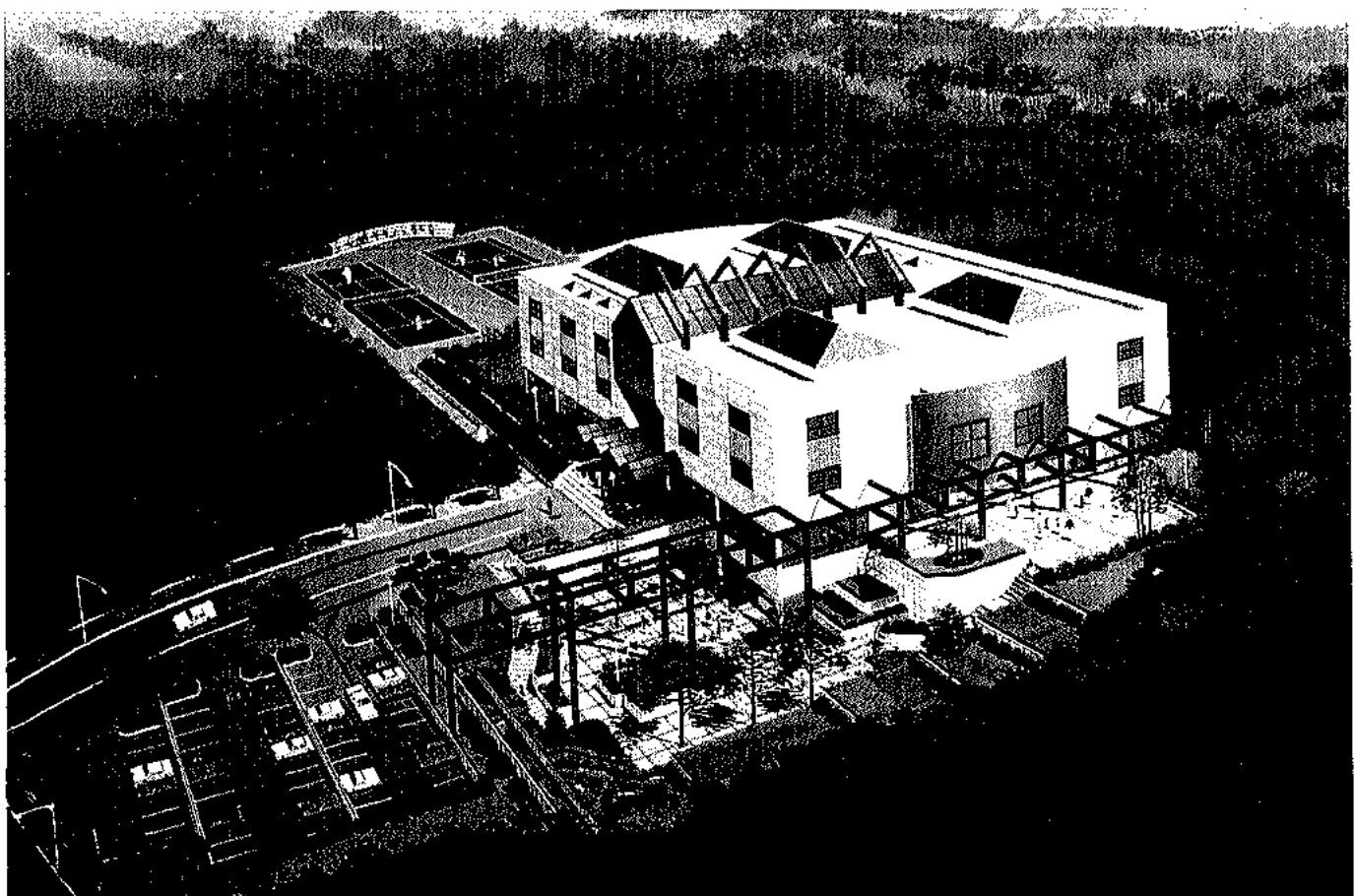
#### □ 에너지 절약형의 건물계획

- 건축 구조의 명확한 해석 및 미적 감각 부여(구조미)
- 건축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순응하는 유니크(UN-IC)한 건물 계획으로 새로운 문화 창달

#### □ 평면계획

- 주요공간의 독립성 유지 및 상호작용
- 대지의 경사와 건물배치에 따른 옥외공간의 다양성 획득
- 접근의 용이함으로써 시설간의 연결성 및 관리의 효율화

-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빛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 구조의 안전 및 주요공간의 기능을 고려한 저층형의 수평동선



조감도



위치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  
진리 산 147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도시계  
획구역

대지면적 / 12,506.00m<sup>2</sup>

건축면적 / 1,334.88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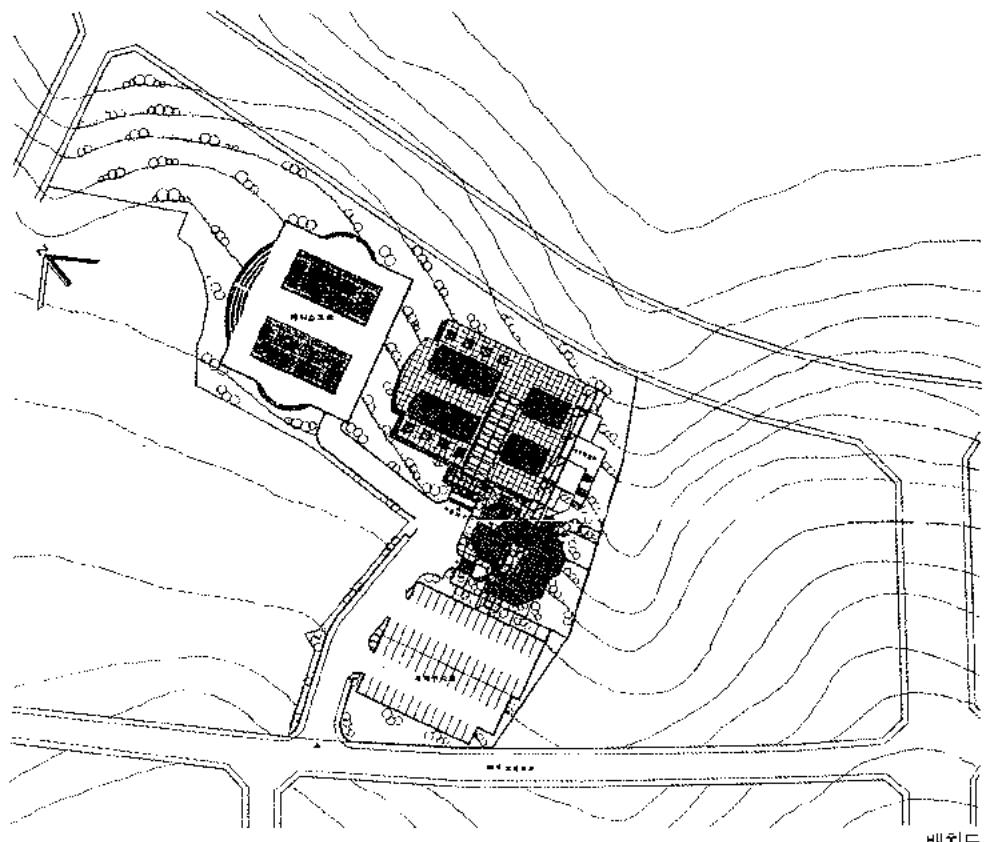
연면적 / 4,100.63m<sup>2</sup>

건폐율 / 11.07%

용적률 / 22.9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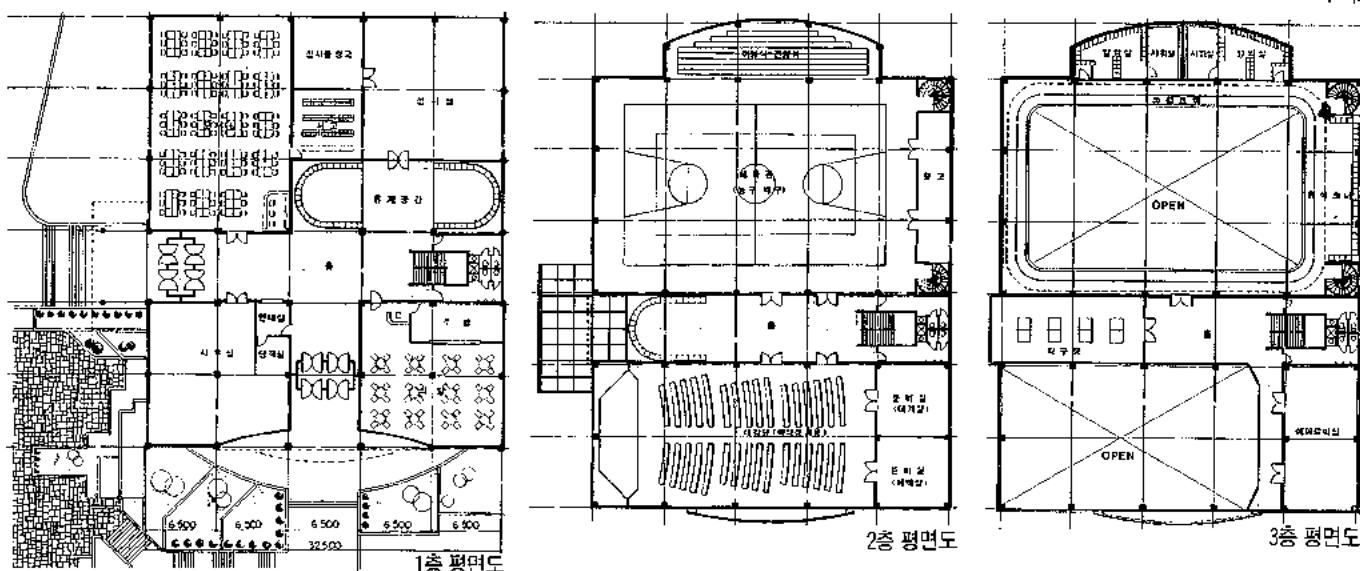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배치도



투시도



## □ 계획의 목표

-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도모
  -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
  -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 친환경 혜사 장소 분양

## □ 계획의 방향

- 합리적 계획
    - 동선의 합리화
    - 주변 여가 및 자연에 대한 접근성

대지이용

-인간 중심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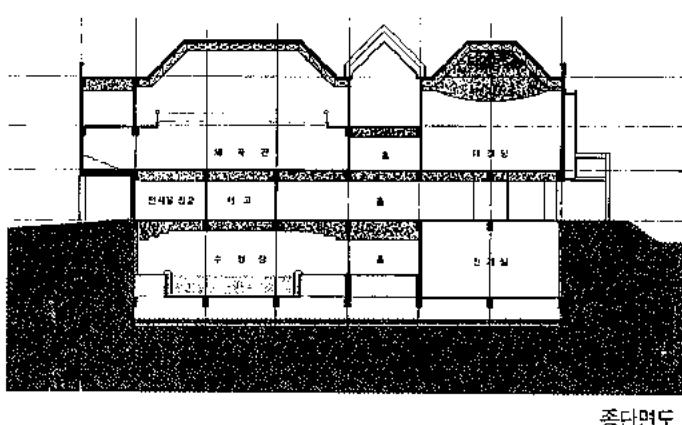
- 최적공간 및 환경 부여
  - 지형에 순응한 계획
  - 시각적 안정성 부여

—상징적 계획

- 지역의 Land Mark로서의 역할 부여
  - 강건한 이미지 창출

— 경제적 계획

- 태양광의 최대 사업을 위한 고려
  - 유지 관리의 편의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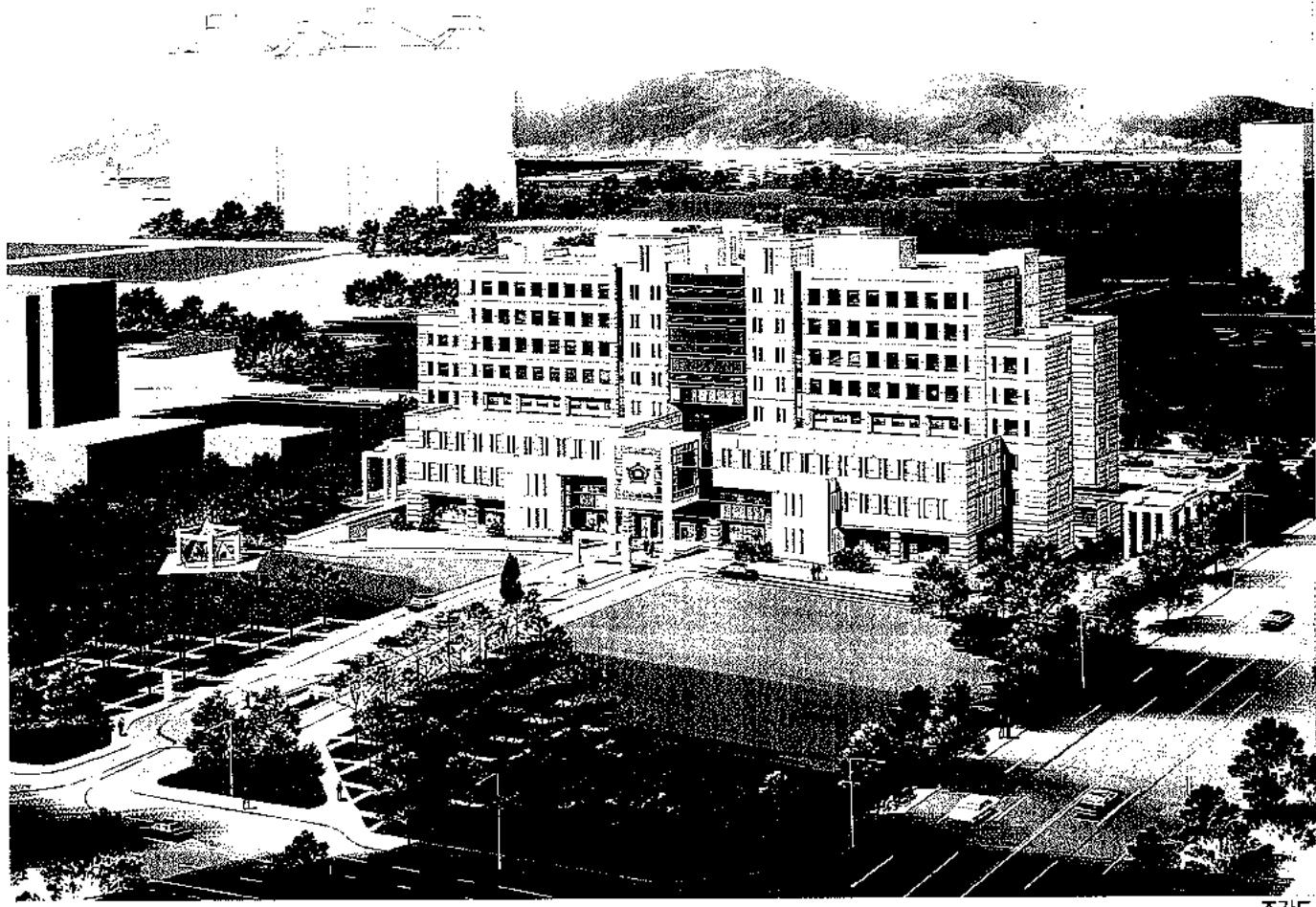
종단면도

# 대전법원종합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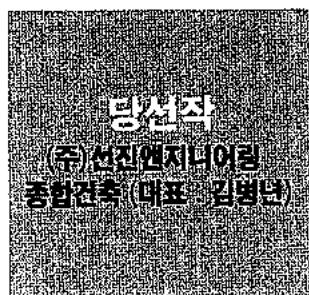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의 위상정립과 업무처리의 능률화 그리고 사법복지구현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대전법원종합청사 신축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지난 10월 6일 총 8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응모한 결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

합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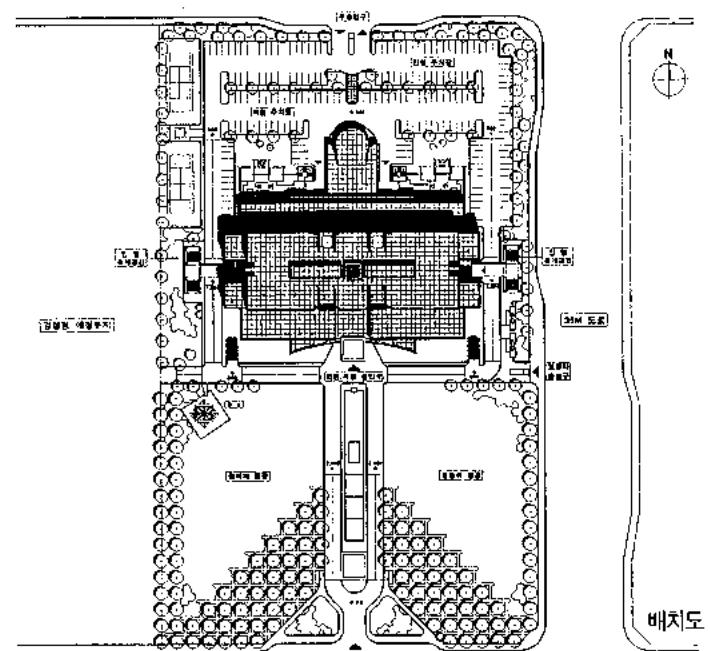
우수작으로는 건축연구소 시공안과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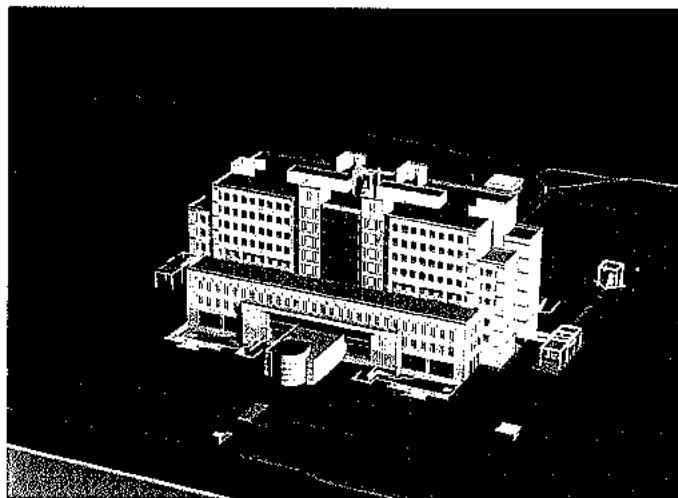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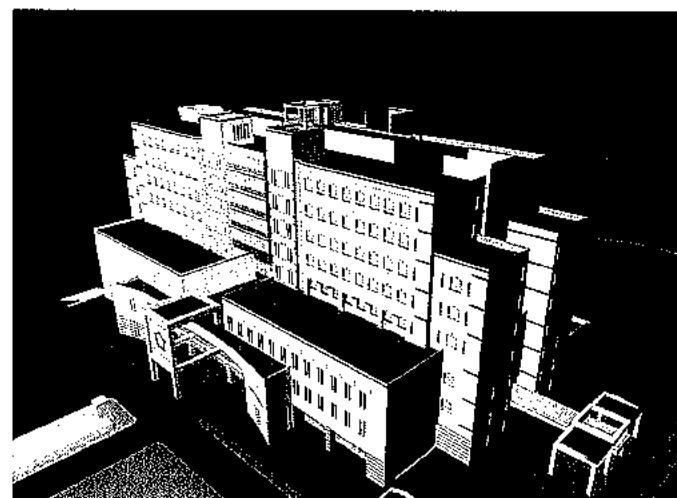


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둔산택지개발지구내 행  
정용지 중 175블럭  
대지면적 / 32,063m<sup>2</sup>  
건축면적 / 5,269m<sup>2</sup>  
연면적 / 33,861m<sup>2</sup>  
건폐율 / 16.4%  
용적률 / 80.4%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마감 / 화강석, 컬러 알미  
늄,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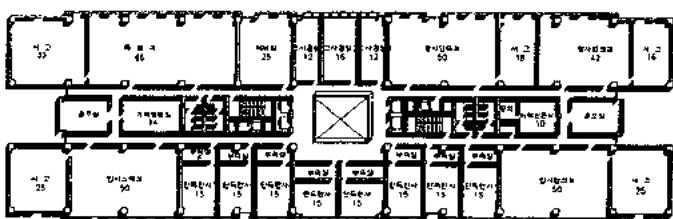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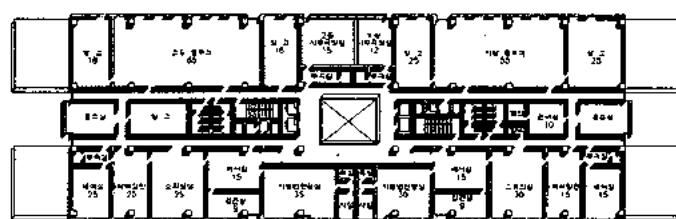
컴퓨터 모델링 1



컴퓨터 모델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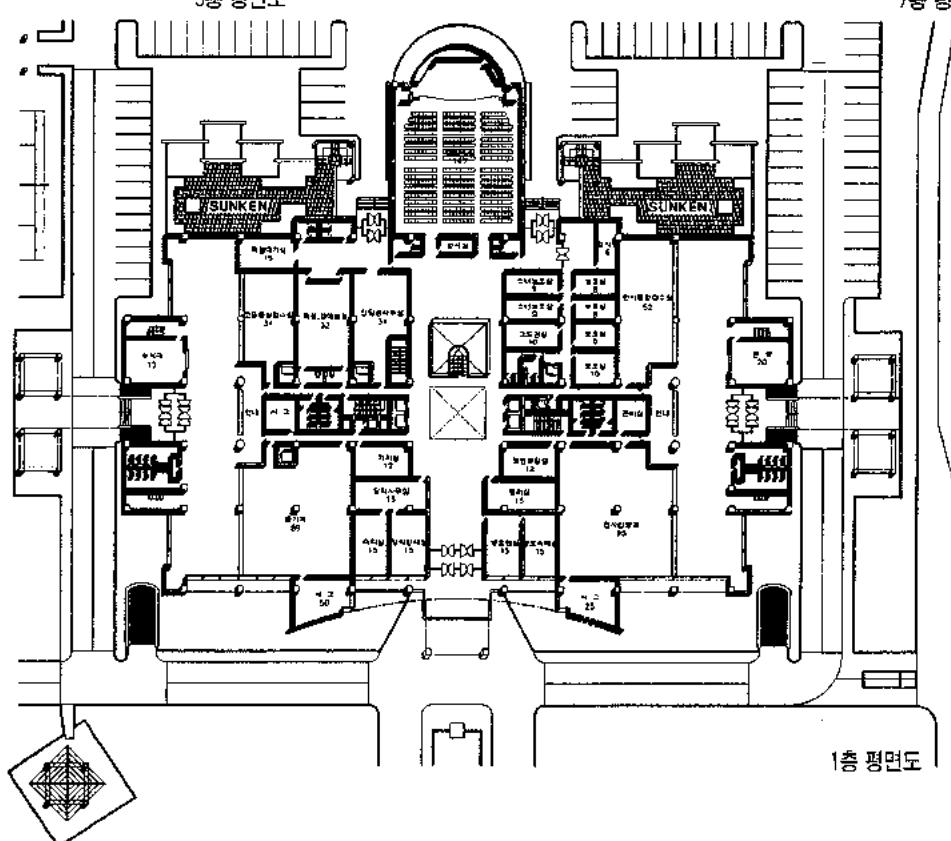
5층 평면도



7층 평면도

#### □ 배치계획

- 사법부의 정통성 표현
  - 법원의 정면성 강조로 권위의 표현
  - 법원이 지니는 고유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Zoning 계획
- 공간구성 기법
  - 체계적인 공간구성
  - 점진적 진입에 의한 공간흐름의 연속성
- 주변환경과의 조화
  - 토지이용의 극대화
  - 녹지공간의 최대화 보
- 기능적 동선체계
  - 기능별 동선분리
  - 동선의 단순, 명료화
  - 유기적 동선연결
  - 엄격한 보·차분리



1층 평면도

#### □ 평면계획

- 평면 Zoning
  - 건물내부기능이 복합적으로 저층부(법정, 민원)와 고층부(법관, 사무)로 분리
  - 계획주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평면을 계획하여 적재된 균형을 표현
  - 저층부는 1층 중앙의 Hall을 중심으로 2개의 Zone으로

- 양분되며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한 독립된 2개의 부출입구를 계획
- 고층부는 중앙의 Core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사무공간을 조성
- 공간집적에 의한 암실의 배제
- 기능별 공간의 집중배치 및 예비공간의 확보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인업무처리를 위한 면원관계실의 집중배치 및 대기공간의 확보
- 9.0~8.1m 모듈에 의한 간결한 평면구획
- 동선의 분리
  - 1개의 주출입구와 2개의 부출입구에 의해 법관, 사무직원, 일반인의 동선을 구

- 분하여 분산, 분리 배치하여 이용자 계층간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
- 동선별로 독립된 수직 Core 설정
- 중앙의 Core를 중심으로 복잡나양한 동선체계의 단순화, 간결화 추구



투시도



위치 / 대전지할시 서구 둔산동  
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행정용지중 175블럭

용도 /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 32,055.3m<sup>2</sup>

건축면적 / 4,376.18m<sup>2</sup>

연면적 / 34,679.32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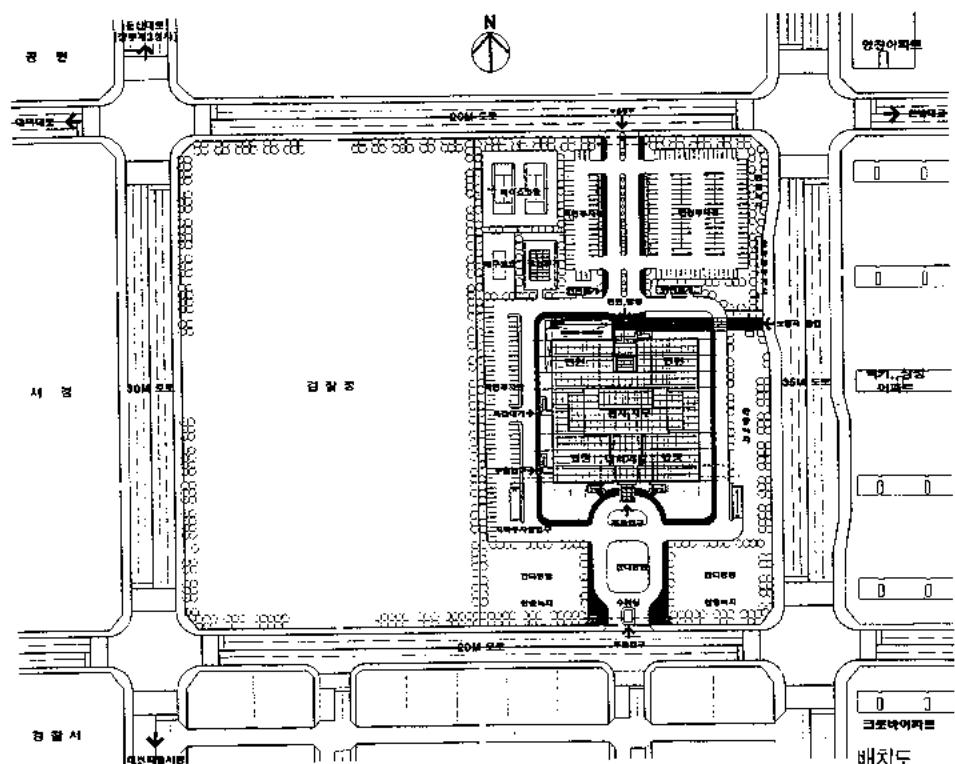
지상층면적 / 28,242.98m<sup>2</sup>

건폐율 / 14.78%

용적률 / 88.11%

녹지율 / 36.71%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16층  
(옥탑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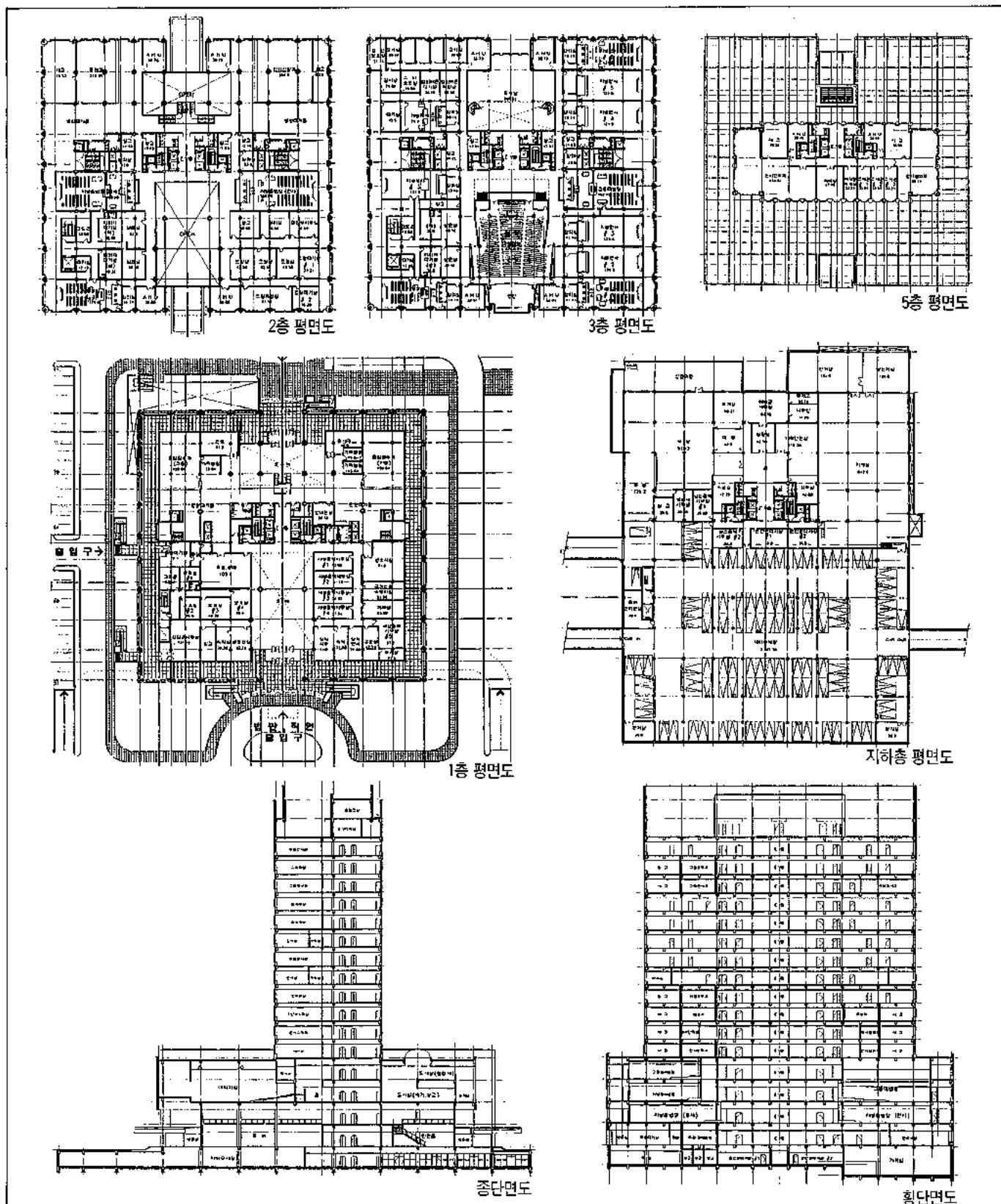
#### □ 배치계획 개념

- 도시축에의 적응 : 중앙 행정  
불럭으로 조성된 도시축과

#### 직교한 불럭

- 정면성 : 이웃한 경찰청사와  
정면 공유…남측
- 상징성 : 전면에 상징광장(녹

지)을 두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배치주축에 대해서 건물 및 외부공간을 대칭으로 배치하여 법원의 독립성 및 권



#### 위를 표현

- 도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 건물을 최대한 Compact한 형태로 배치시키고 충분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하여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환경과 복지, 편의에 부합
- 공간체계의 확립 : 광장, 보행

로, 회랑, 현관, 홀로 이어지는 내·외부 공간의 연결성과 각 공간의 구분으로 점증적인 공간체계를 확립

- 동선의 구분 : 법관, 직원, 민원인, 서비스동선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대지에 진입하게 하고 특히 민원의 보행동선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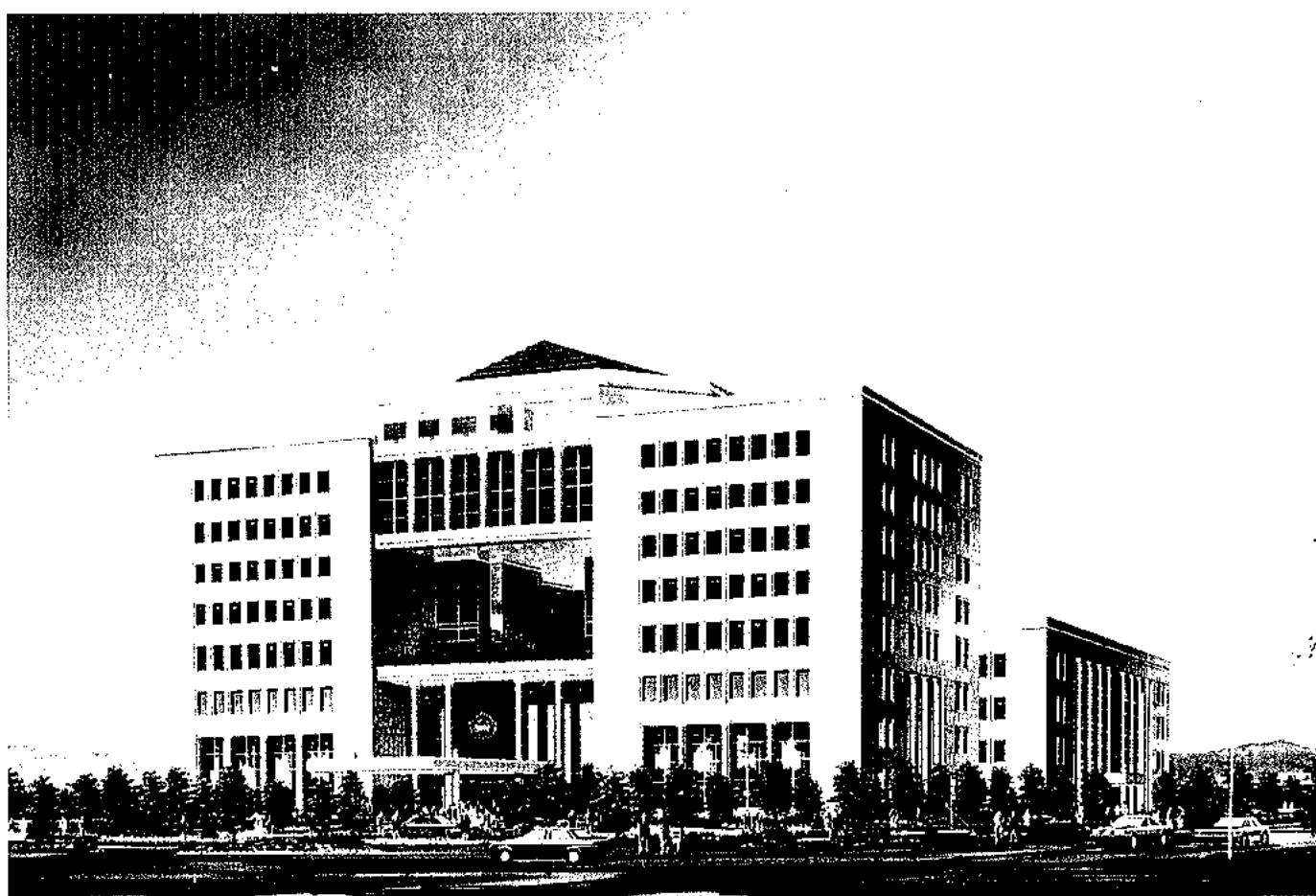
#### 단화

##### □ 평면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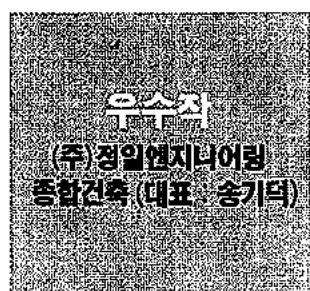
- 동선의 분리 : 법관, 직원과 민원인, 일반인을 별도의 통로로 구분
- 명확한 조닝 : 법관, 직원과 민원, 일반인이 혼재하지 않

#### 도록 공간을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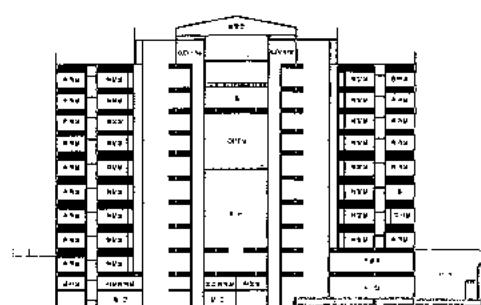
- 공간의 위계 : Lobby와 민원홀을 중심으로 각 기능을 질서있게 연결
- 민원, 방청인의 유도, 안내 : 민원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순차적으로 각 기능 공간에 도달할 수 있게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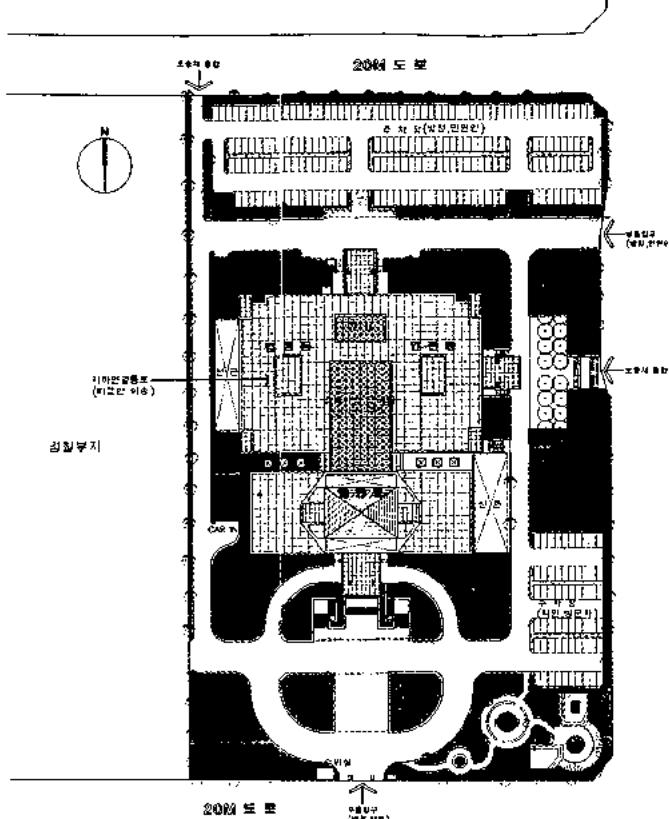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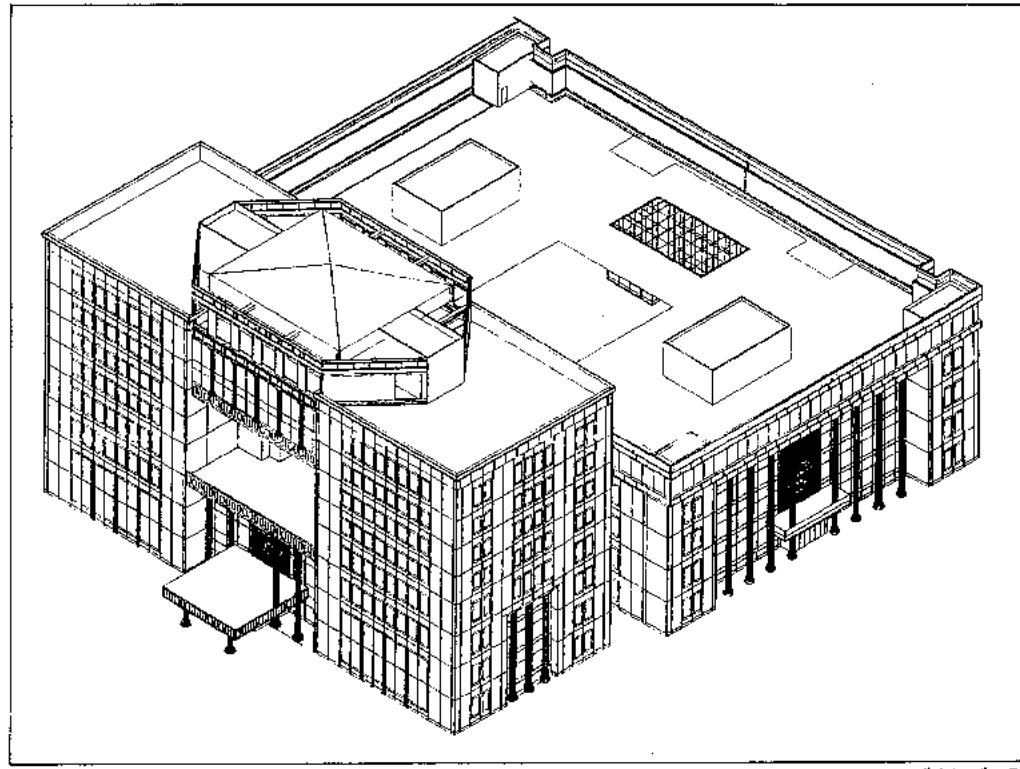
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행정용지증 175블럭  
대지면적 / 32,055.3m<sup>2</sup>  
건축면적 / 4,601.46m<sup>2</sup>  
연면적 / 35,003.23m<sup>2</sup>  
건폐율 / 14.36%  
용적률 / 109.20%  
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구조 / R.C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벼너마감,  
T18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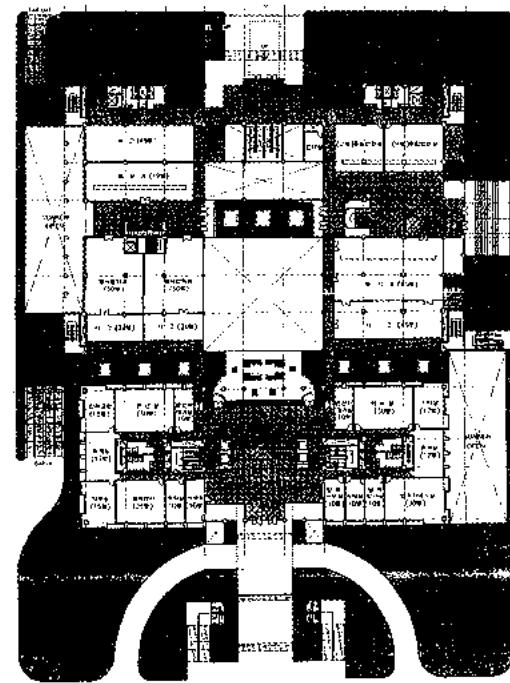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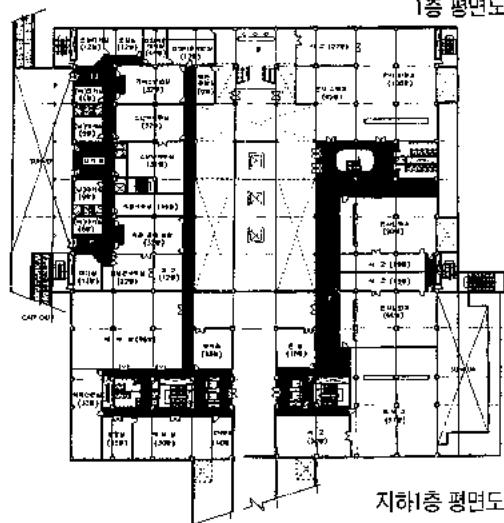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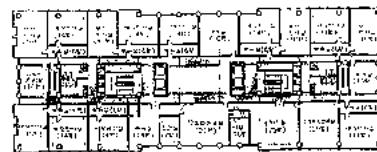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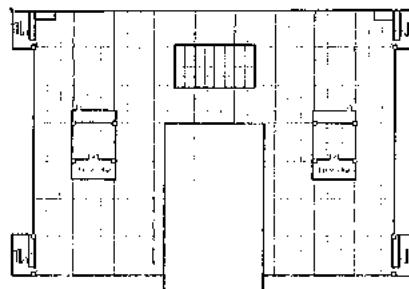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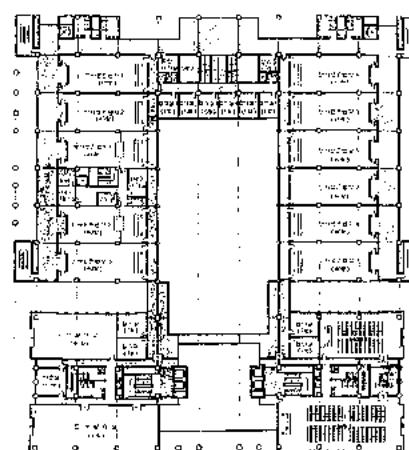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7층 평면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 배치계획

-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
  - 대지의 주진입부인 남측에 전면광장 배치
  - 대지의 후면부와 우측공간에 옥외 주차공간 확보
  - 대지 주변으로 녹지 공간을 구성하여 자연스러운 완충공간 확보

#### - 축에 순응

- 도로축과 대지축에의 어우러지는 질서
- 자연축에 순응

#### - 효율적인 동선 계획

- 사용자 분석에 따른 출입, 동선 분리
- 차량동선의 교차로에서 가능한 원거리 진입

#### - 외부공간의 구성

- 대지 우측 및 전면 파고라와 연못의 설치로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
- 대지 후면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 건물의 후퇴로 전면 Open Space 확보
- 적극적인 선콘도입으로 외부공간과 연계

#### □ 평면계획

-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민부서의 집중 및 민원인 대기공간 확보

#### - 방실의 용도전환, 확장, 재배치를 고려한 계획

- 품위증진 및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실, 과사무실 등 주요 방실에 적정 규모의 부속창고 배려

- 명확한 Zone, 구역구분 및 이동경로의 분리 등에 의한 건물의 기능을 체계화

# 1994년 9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1천2백6십2만6천4백6십9m<sup>2</sup>보다 22.0%(2백7십7만2천9백9십5m<sup>2</sup>)감소한 9백8십5만3천4백7십4m<sup>2</sup>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 누계 9천8십3만6천2백2m<sup>2</sup>보다 17.8%(1천6백1십3만6천7백7십1m<sup>2</sup>)증가한 1억6백9십7만2천9백7십3m<sup>2</sup>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전월 8월분 1천2백2십9만7천7백1십4m<sup>2</sup>보다 19.9%(2백4십4만4천2백4십m<sup>2</sup>)감소한 9백8십5만3천4백7십4m<sup>2</sup>의 실적을 보였다.

## 前年對比 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m<sup>2</sup>)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769,799	2,048,401	278,602	15.7%
	경 기	2,074,677	2,389,909	315,232	15.2%
	강 원	389,842	391,788	1,946	0.5%
	충 북	256,328	268,891	12,563	4.9%
	전 북	287,554	534,105	246,551	85.7%
	전 남	201,706	216,289	14,583	7.2%
감소지역	부 산	2,647,278	696,248	(1,951,030)	-73.7%
	대 구	729,475	379,051	(350,424)	-48.0%
	인 천	494,648	352,316	(142,332)	-28.8%
	광 주	312,068	138,661	(173,407)	-55.6%
	대 전	619,970	480,092	(139,878)	-22.6%
	충 남	866,421	430,948	(435,473)	-50.3%
	경 북	997,906	629,753	(368,153)	-36.9%
	경 남	912,159	877,615	(34,544)	-3.8%
	제 주	66,638	19,407	(47,231)	-70.9%
	합 계	12,626,469	9,853,474	(2,772,995)	-22.0%

## 前月對比 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m<sup>2</sup>)

용 도 별	8월분	9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874,562	675,416	(199,146)	-22.8%
다 세 대 주 택	373,433	306,512	(66,921)	-17.9%
연 립 주 택	129,662	217,336	87,674	67.6%
아 파 트	5,567,390	4,263,198	(1,304,192)	-23.4%
근린생활시설	1,318,243	1,158,630	(159,613)	-12.1%
종 교 시 설	82,793	65,299	(17,494)	-21.1%
의 료 시 설	131,060	50,381	(80,679)	-61.6%
교육연구시설	428,995	380,949	(48,046)	-11.2%
업 무 시 설	558,003	342,441	(215,562)	-38.6%
숙박시설	178,636	124,923	(53,713)	-30.1%
공 장	1,097,670	1,080,100	(17,570)	-1.6%
기 타	1,557,267	1,188,289	(368,978)	-23.7%
계	12,297,714	9,853,474	(2,444,240)	-19.9%

##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9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080	1,299	1,769,799	1,045	1,070	2,048,401	(35)	(229)	278,602	15.7%	
부 산	926	1,398	2,647,278	835	917	696,248	(91)	(481)	(1,951,030)	-73.7%	
대 구	1,226	2,231	729,475	1,162	1,201	379,051	(64)	(1,030)	(350,424)	-48.0%	
인 천	342	362	494,648	372	377	352,316	30	15	(142,332)	-28.8%	
광 주	347	401	312,068	267	271	138,661	(80)	(130)	(173,407)	-55.6%	
대 전	371	447	619,970	250	304	480,092	(121)	(143)	(139,878)	-22.6%	
경 기	1,763	2,199	2,074,677	1,725	2,054	2,389,909	(38)	(145)	315,232	15.2%	
강 원	706	840	389,842	489	579	391,788	(217)	(261)	1,946	0.5%	
충 북	648	778	256,328	491	571	268,891	(157)	(207)	12,563	4.9%	
충 남	501	563	866,421	398	418	430,948	(103)	(145)	(435,473)	-50.3%	
전 북	378	425	287,554	331	425	534,105	(47)	0	246,551	85.7%	
전 남	492	641	201,706	353	421	216,289	(139)	(220)	14,583	7.2%	
경 북	817	1,218	997,906	606	800	629,753	(211)	(418)	(368,153)	-36.9%	
경 남	1,136	1,615	912,159	868	1,017	877,615	(268)	(598)	(34,544)	-3.8%	
제 주	193	204	66,638	96	97	19,407	(97)	(107)	(47,231)	-70.9%	
합 계	10,926	14,621	12,626,469	9,288	10,522	9,853,474	(1,638)	(4,099)	2,772,995	-22.0%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9月分)

구분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4,816	25,738	14,056,454	13,767	14,226	15,573,612	(11,049)	(11,512)	1,517,158	10.8%	
부산	8,502	10,968	8,512,557	8,266	9,361	7,151,269	(236)	(1,607)	(1,361,288)	-16.0%	
대구	11,151	14,012	5,926,363	12,101	12,827	5,825,873	950	(1,185)	(100,490)	-1.7%	
인천	5,607	5,837	4,891,323	4,135	4,281	5,297,330	(1,472)	(1,556)	406,007	8.3%	
광주	2,750	3,146	2,397,751	3,263	3,888	4,233,279	513	742	1,835,528	76.6%	
대전	3,211	3,560	3,200,084	3,491	3,709	2,827,418	280	149	(372,666)	-11.6%	
경기	16,992	21,544	20,587,084	17,358	21,110	24,861,887	366	(434)	4,274,803	20.8%	
강원	5,456	6,364	2,857,818	4,820	5,541	3,156,457	(636)	(823)	298,639	10.4%	
충북	5,943	7,479	3,736,618	5,373	6,371	3,801,980	(570)	(1,108)	65,362	1.7%	
충남	4,367	4,656	4,246,065	4,497	4,778	9,660,858	130	122	5,414,793	127.5%	
전북	3,202	3,884	3,403,011	3,215	3,855	4,301,341	13	(29)	898,330	26.4%	
전남	4,212	5,623	2,840,718	4,375	5,304	2,861,914	163	(319)	21,196	0.7%	
경북	6,780	9,614	6,219,698	6,662	8,896	7,854,134	(118)	(718)	1,634,436	26.3%	
경남	9,848	12,454	7,204,274	9,497	11,234	8,566,335	(351)	(1,220)	1,362,061	18.9%	
제주	1,642	1,971	756,384	2,421	2,568	999,286	779	597	242,902	32.1%	
합계	114,479	136,850	90,836,202	103,241	117,949	106,972,973	(11,238)	(18,901)	16,136,771	17.8%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9月分)

구분 용도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307	3,901	595,847	3,068	3,133	675,416	(239)	(768)	79,569	13.4%	
다세대주택	467	551	186,341	632	674	306,512	165	123	120,171	64.5%	
연립주택	58	72	78,067	107	119	217,336	49	47	139,269	178.4%	
아파트	223	1,442	7,055,721	211	537	4,263,198	(12)	(905)	(2,792,523)	-39.6%	
근린생활시설	3,671	3,999	1,328,616	2,820	2,921	1,158,630	(851)	(1,078)	(169,986)	-12.8%	
종교시설	126	152	129,910	81	100	65,299	(45)	(52)	(64,611)	-49.7%	
의료시설	18	19	28,568	25	27	50,381	7	8	21,813	76.4%	
교육연구시설	138	175	224,571	158	176	380,949	20	1	156,378	69.6%	
업무시설	109	128	305,214	120	137	342,441	11	9	37,227	12.2%	
숙박시설	109	109	180,189	127	146	124,923	18	37	(55,266)	-30.7%	
공장	900	1,511	1,071,578	736	1,072	1,080,100	(164)	(439)	8,522	0.8%	
기타	1,800	2,562	1,441,847	1,203	1,480	1,188,289	(597)	(1,082)	(253,558)	-17.6%	
합계	10,926	14,621	12,626,469	9,288	10,522	9,853,474	(1,638)	(4,099)	(2,772,995)	-22.0%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9月分)

구분 용도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43,918	45,952	8,623,797	35,642	36,324	8,433,355	(8,276)	(9,628)	(190,442)	-2.2%	
다세대주택	8,862	9,666	4,393,511	6,332	6,823	3,194,760	(2,530)	(2,843)	(1,198,751)	-27.3%	
연립주택	578	1,005	1,431,848	875	1,098	1,651,772	297	93	219,924	15.4%	
아파트	1,671	8,398	36,861,369	1,677	6,715	39,921,190	6	(1,683)	3,059,821	8.3%	
근린생활시설	34,001	36,037	12,971,977	34,675	35,701	15,730,896	674	(336)	2,758,919	21.3%	
종교시설	1,064	1,268	890,498	1,125	1,305	991,358	61	37	100,860	11.3%	
의료시설	152	161	251,310	188	217	509,834	36	56	258,524	102.9%	
교육연구시설	1,146	1,471	2,897,993	1,198	1,395	3,267,017	52	(76)	369,024	12.7%	
업무시설	1,182	1,288	3,123,368	1,012	1,090	3,274,631	(170)	(198)	151,263	4.8%	
숙박시설	1,037	1,097	1,416,082	1,598	1,689	2,043,141	561	592	627,059	44.3%	
공장	6,782	10,970	8,398,049	7,661	11,382	11,852,024	879	412	3,453,975	41.1%	
기타	14,086	19,537	9,576,400	11,258	14,210	16,102,995	(2,828)	(5,327)	6,526,595	68.2%	
합계	114,479	136,850	90,836,202	103,241	117,949	106,972,973	(11,238)	(18,901)	16,136,771	17.8%	(=마이너스)

## 건설업체의『건축사업 진출 규제완화』요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원안부결”처리

대형건설업체들에 의해 행성  
쇄신위원회 국민제안으로 상정  
되었던 『건축설계 용역업 규제  
완화 방안』요구가 지난 10월 14  
일의 제60차 행정쇄신위원회에  
서 최종 심의된 결과 『제안자  
원안부결』로 의결됨으로써 일단  
락 지어졌다.

한편 이날 건설부에 의해 보  
고된 『건축설계업 육성방안』에는  
○현행건축사 자격(면허)시험을 1차시험은 대학졸업과 동  
시에 응시하고, 2차시험은 5년  
의 실무경력 후에 응시도록 시  
험제도개선 ○단독, 종합구분  
및 업무구분을 폐지하여 자유경  
쟁을 통한 업무수행과 기술향상  
을 촉진 ○설계감리에 대한 건  
축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설계도서 선고 의부제를 개정  
하여 자율적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단기 대책과,

또 건축사 중심의 설계기술  
전문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 위  
한 ○공종별 전문설계 용역업을  
육성 ○건축물 종류별 전문화를  
유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 법인화를 유도하는 등  
의 방안과 ○협회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건축설계사  
제도 연구, 보수교육 및 기술정  
보, 수립기능 부여 ○해외연수  
및 시찰확대로 선진기술 습득기  
회 마련 ○공제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조성으  
로 자율적 건축설계 용역업 육  
성방안 등이 보고되었다.

## 이사회 개최

본 협회의 주요 당면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9  
월 12일(제30회)과 9월 27일(제  
31회), 그리고 10월 11일(제32  
회)에 각각 개최되어 보고사항  
에 이은 회의록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회별 주  
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0회

- 예비규정개정(안)승인의 건
- 내용정리를 소위원회 위원  
장(김인곤이사)에게 위임  
승인함.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  
(안)승인의 건
- 유보함
- 95년도 사업계획(안)승인의  
건
- 유보함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위원회의 비) : 4백만  
원, 장보비 1천만원, 업무

추진비 : 3백만원)대로 예  
비비 1천7백만원을 사용하  
기로 협의함.

· 사무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시·도건축사회에서 조사  
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윤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본 협  
회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  
송하기로 협의함.

· 건설부 감사 지적사항 미집행  
처리에 대한 협의

—위원회를 축소 또는 통합하  
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설부 감사지적 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회를 활성화,  
전문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협의함.

·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에 대  
한 협의

—재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회장과 의논한 후에 다루기  
로 협의함.

### ○제31회

- 95년도 사업계획(안)승인의  
건

—논의된 내용을 사무처에서  
정리하고, 계수조정은 김인  
곤 예산편성 위원장에게 위  
임 승인함.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  
(안)승인의 건

—기술부 T/O에 2명을 증원  
하여 직원정원을 45명에서  
62명으로 조정하되, 증원직  
(2명)에 대한 적금은 부  
회장에게 위임하고, 각 부  
서별 사무분장은 원안대로  
승인함.

- 직원 퇴직위로금 지급 승인의  
건

—지급기준을 사무처에서 만  
들어서 다음 이사회에서 다  
루도록 하고 유보함.

-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CA-6)참가 대표단 선정  
에 대한 협의

—대표단 선정을 국제위원장  
과 회장에게 위임함.

### ○제32회

- 94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  
총회 임원참석에 대한 협의

—부회장에게 위임함.

- '95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출  
연금에 대한 협의

—연구과제가 본 협회와는 직  
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  
련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로 협의함.

- 건축사 수급계획 진행에 대한  
협의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시험  
위원회에 확인·검수 등 권  
한을 위임하여 최종 마무리  
하기로 함.

- 그린스카우트 가입에 대한 협  
의

—그린스카우트 및 생강살리  
기 운동에 가입하기로 하  
고, 시·도건축사회에도 일  
단 가입을 권장하기로 협의  
함.

- 신문발간에 대한 협의

—직원 임용 등을 회장 및 신  
문발간위원장에게 위임하  
고, 다음 이사회에서 주인  
하기로 협의함.

-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신고에  
따른 설계비용 절감에 대한  
협의

—기본 설계비의 50%를 감면  
해 주도록 회원들에게 권유  
하기로 협의함.

## 필리핀건축사회장, 본 협회 방문

필리핀건축사회 회장(Nosto  
S. Margio)과 부회장(Edgardo  
Aguila)이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본 협회를 방문  
하였다. 이번 방문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마닐

라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홍보하기 위함이  
었으며, 특히 이번 방문으로 양  
국의 건축교류증진에 크게 이바  
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94『한국건축문화대상』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본 협회와 건설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9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월6일(목)오후 2시 현대주택문화센터에서 오웅석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김우석 건설부장관,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등 건축관련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총81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대상 1점과 본상 4점(비주거 3, 주거1,)우수상 2점, 입선 21점을 각각 선정, 시상하였고, 계획건축물 부문에서는 신인부문 15점과 학생부문 127점이 출품되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 39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공로상에는 송기덕(정일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대림산업명예회장)씨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번 행사는 현대주택문화센터에서 수상작 70여 작품이 전시되어 예년에 비해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관계자의 호평과 함께 전시인,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속에 연인원 2만여명이 관람,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등 사회 각계의 관심속에 지난 10월 20일 성료했다.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컷팅 광경



개회사를 하는 오웅석 본협회장

치사를 하는 김우석 건설부장관



수상자 기념촬영광경

내빈에게 대상 수상자(문정일)의 작품 설명 광경

## 경기건축사회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제1회 건축대전 작품전시회」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의정부 시역 건축사회(회장 안영준)는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용보증 기금 의정부지점 3층에서 제1회 건축대전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총 45 점이 출품되어 회원은 물론 고

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학부 최우수작은 대진대 반승현(3년)의 「금속의 금」, 신인상에는 경민전문대 오화중(1년)의 「明」이 당선되어, 각각 1백만원씩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 광주건축사회, 「제4회 광주건축사 회원작품전」 개최 및 장학금 지급

광주건축사회(회장 김덕수)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남도예술회관에서 제4회 광주건축사 회원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학도의

학구열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총 61작품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식 행사와 병행하여 전남대학교 김선영의 13명에게 장학금 5백8십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월간 이상건축, 「한일국제심포지엄」개최

우리나라 건축계에서는 월간 이상건축(발행인 이용희)이 처음으로 일본의 건축포럼인 '이즈모 건축포럼'을 초청,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심포지엄과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토론하고 부산과 경남, 경주, 서울 등의 전통건축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다카마스 신을 비롯하여 약 70여명의 일본건축가들과 부산경남 건축가 및 건축인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한일 전통건축에 대한 조명과 함께 현대건축 슬라이드 쇼,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심포지엄

- 일시 : 11월 11일(금) 오후 6시
- 장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발표자 : 후노(교토대학 건축과 교수)/일본의 진통적 주거와 아시아  
· 다카마스 신(건축가)/도시와 건축  
· 빈현식(건축가)/지혜의 시대, 우리의 건축

### ○간담회

- 일시 : 11월 11일(금) 오후 8시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 전통건축답사 : 11월 12~13일
- 문의 : 월간 이상건축 / 051-465-1833

## 건축가협회, 「제1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는 오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제13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초대작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구성되어 전시되며, 비디오 쇼와 함께 건설 및 자제업체 전시가 함께 하는 '94

건축가 축제로 치뤄진다.

시상식은 협회상과 함께 일반 공모부문사상이 11월 18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행사 중 서울정도 6백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함께 같은 장소, 기간동안 「서울 도시건축전」이란 행사와 이틀로 특별 기획전을 갖는다.

## 김성곤, 「실크로드-드로잉전」 개최

건축가 김성곤 교수(동아대)의 「실크로드-드로잉전」 서울 전시회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김교수는 그동안 동서양의 문화와 건축의 근원을 밝혀보려는 커다란 명제에 도전하고 문헌조사와 현장답사에 뛰어들이 10여 년간 부지런히 실크로드와 연관된 지역을 두루 탐방하면서 되색되거나 사라져 버린 실크로드의 자취와 가택들을 스케치에 남아 「실크로드-드로잉전」을 마련하게 됐다.

스케치 40여 작품과 사진자료

가 함께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중국에서 자중해까지의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란, 아랍트, 터키, 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의 그림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을 통한 문화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전시에 이어 부산 전시가 국제신문문화센터에서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마련되며, 또한 국내전을 마치고 터키의 앙카라에서 마지막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본지 98~101쪽 참조)

## 제6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작품공모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의 패석하고 창조적인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94년도에 건축된 건물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시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축설계자, 시공자 등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창의력 발휘를 유도코자 「제6회 창원시 건축대상제」를 마련

한다.

- 접수기간 : '94. 11. 1~11. 30
- 대상 : '93. 12. 1~'94. 11. 30일 내 창원시내에 진립된 건축물
- 심사부문 : 단독주택, 아파트, 일반건물
- 접수방법 : 전경사진, 설계도면, 작품설명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 창원시 건축과(0551-80-2457, 담당 : 박성옥)